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朴 時 翼

풍수인테리어의 색채계획에 관한 研究

A Study on a Color Plan of
the Feng-shui Interior Design

2005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不動產開發 및 管理 專攻

李 東 姬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朴 時 翼

풍수인테리어의 색채계획에 관한 研究

A Study on a Color Plan of
the Feng-shui Interior Design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産大學院

不動産開發 및 管理 專攻

李 東 姬

李東姬의 不動産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5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목 차

그림 목 차

표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II. 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

1. 풍수지리의 이론

1.1. 풍수지리의 의미	8
1.2.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	9
1.3. 삼신오제	16

2. 풍수지리의 기(氣)와 색채

2.1. 기(氣)의 정의	18
2.2. 풍수지리 기(氣)의 종류와 변화	21
2.3. 오정색(五正色)과 오간색(五間色)	23
2.4. 팔괘(八卦)와 팔방위의 색	28

3. 풍수지리 색채의 상징과 사신사(四神砂)	32
3.1. 청룡과 청색	35
3.2. 백호와 백색	38
3.3. 주작과 붉은색	41
3.4. 현무와 검은색	44
3.5. 혈과 노랑색	47

III. 한국의 전통색

1. 풍수지리 색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색채의식	51
1.1. 한국인의 색채관	52
1.2. 한국인의 색채와 문화	53
2. 고분벽화에 나타난 풍수지리 색채의 조화	74
3. 생활속의 풍수지리와 색채조화	76
3.1. 색동	78
3.2. 단청	80
3.3. 서낭당, 오방신장기, 오색아기	82
3.4. 보자기	83
3.5. 복식	84
3.6. 식생활	85
3.7. 쪽두	87

IV. 색(色)과 기(氣)의 과학적인 분석

1. 색(色)의 이론적 배경

- 1.1. 과학적인 색의 개념 90
- 1.2. 색의 속성과 지각 요건 91
- 1.3. 색상의 주파장과 색의 혼합 94
- 1.4. 색채 감각의 수용기 - 눈 95

2. 기(氣)의 과학적 배경

- 2.1. 인체의 설계도-기(氣) 98
- 2.2. 기(氣)의 다른 이름-토션장과 생체정보 101

3. 신체치료를 위한 색

- 3.1. 색의 형(形)과 의(意) 110
- 3.2. 색의 심리적 영향과 생리적 영향 112
- 3.3. 색과 인체와의 상관관계 115

4. 색채 선정의 방법

- 4.1. 기질(氣質)의 고려 118
- 4.2. 십간과 음양오행의 조화 125
- 4.3. 오행 팔괘의 색깔 구성 128
- 4.4. 오행과 오제의 색깔 129

V. 색(色)을 활용한 풍수인테리어

1. 개별 색(色)의 특성	135
2. 색(色)의 의미를 적용한 주택 내부	
2.1. 공간	144
2.2. 가구 및 소품	148
2.3. 내부 조명의 색채	149
3. 색(色)의 의미를 적용한 주택 외부	
3.1. 환경의 색깔	152
3.2. 외부 조명	154

VI. 결론	156
--------------	-----

참 고 문 헌	159
---------------	-----

Abstract	164
----------------	-----

그림 목 차

<그림 1> 오행의 상생주기와 상극주기	15
<그림 2> 팔괘에 의한 색상 조건표	31
<그림 3> 색채 지각에 필요한 기본적인 3차원을 예시한 색입체	97
<그림 4> 킬리언 사진기로 찍은 일부 절단된 나뭇잎	99
<그림 5> 오행 팔괘의 색깔 구성	128
<그림 6> 오행의 모든 색깔	133
<그림 7> 빨강	136
<그림 8> 주황	137
<그림 9> 노랑	137
<그림 10> 녹색	138
<그림 11> 청녹색	139
<그림 12> 보라색	140
<그림 13> 회색	141
<그림 14> 금색	142
<그림 15> 갈색	142
<그림 16> 부엌	146
<그림 17> 화장실	146
<그림 18> 오행 팔괘의 조경 계획	154

표 목 차

<표 1> 오행의 구분	12
<표 2> 청오경과 장경에 표기된 기의 종류	21
<표 3> 양간의 색채 언어	26
<표 4> 음간의 색채 언어	29
<표 5> 20색상환의 오행 분류	29
<표 6> 천간합의 색채와 변화된 오행	30
<표 7> 풍수지리에 의한 색채	49
<표 8> 오행의 상징 색상과 특징	127
<표 9> 오행의 상생 주기	131
<표 10> 오행의 상극 주기	13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민족의 큰 중심 사상 가운데 음양오행을 기초로 한 풍수지리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서구문명이 유입된 이후 풍수지리는 길흉화복을 점치는 미신이라 여겨져 학문으로써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 채 일부 의식 있는 학자들에 의해 명맥만 이어지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풍수는 전통사상이며 전통과학이다. 모든 전통과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는 현재 지식수준에서 자연이 본디 지니고 있는 신비성을 인간이 반영하였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과학으로 완전한 서술이 가능한 세계는 없다. 첨단 물리학을 소개하는 책을 읽다보면 첨단 과학 속에 보다 많은 상상력과 신비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것도 과학이 아닌가.

지금도 한의학의 침뜸 시술의 기초가 되는 경락(經絡)의 본질에 관하여 소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 메카니즘과 시술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 정도이다. 상당부분 신비에 쌓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의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배척하지 않고 있다.

전통과학을 과학이라 표현하는데 지나치게 우려감을 갖는 태도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통은 비과학이란 잠재의식을 떨쳐버리고, 서구 문명의 맹목적인 선망이나 문화제구주의적 사고도 같이 지양해야 한다. 풍수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시각인 서양의 관점과는 달리 땅과 자연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만물에는 기(氣)와 혼이 함께 있다는 물심일원적인 사상과 지인상관의

시각을 지녀왔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라는 대전제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인 동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은 인체가 공간에 존재하는, 또한 공간을 갖는 하나의 사물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간과 환경, 신체와 공간이 동질적이며, 분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는 살아 있는 구조이고 공간은 인간적으로 분석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시작과 그 끝에는 인간 중심에 있다.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면, 다시 그것을 통해 인간과 사회는 학습되고 발전된다. 또한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로써 자연과의 공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 한다. 여기에서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을 매개로 ‘문화-인간-자연’이라는 관계성 내에서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인테리어에 있어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틀로 풍수를 적용하고자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문적 연구의 대상도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의 이론에 동양적인 개념이 도입 되고, 현대의학 분야에 한방의 침술이 적용 되는 등이 최근 동양의 철학과 사상이 학문적으로 재평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시점에서 풍수에 대한 시각도 변해야 한다.

환경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동양적 사상이 점점 각광받고 있는 현대에는 오히려 과학성과 미신성의 한계에 대한 연구에서 풍수이론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자연법칙에 대한 동양적인 해석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유익한 전통사상은 시대가 바뀌고 학문적 사고가 바뀌더라도 그 자체의 모습과 내용을 변용시켜가며 존속한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요, 공즉시색(空卽是色)”이듯이 논리와 초월성의 관계는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색과 공의 관계와 같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삶의 요소

를 뜻하는 색은 실체를 지닌 어떤 것 그리고 인간이 정립한 모든 지식을 말한다. 그러나 공에 해당하는 초자연적인 지식은 틀에 박힌 인식의 범주와 개념의 정립을 거부한다. 근본적으로 色과 空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색이 유를 의미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공을 반드시 무로 이해할 수는 없다. 더욱이 空에는 유와 무의 본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어떤 이에게 유로 보이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무로 비칠 수 있다. 유와 무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둘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즉,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된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나 감각할 수 있는 현상은 비존재, 혹은 감각할 수 없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지금 감각할 수 있는 삶의 형태와 상호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우주만물은 진동하는 흐름(vibratory flux)의 상태에 있다. 이들 만물은 각자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작용한다. 이 같은 작용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물론 생명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사람 또한 생명을 주고받음으로서 존재하는 개체로서 인체는 진동을 느끼며, 보며, 받아들인다.

이는 인간이 태양의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지구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전자기파나 진동과 관련된 물리적인 영역의 틀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 틀을 풍수지리의 음양오행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음양오행의 사상의 발전은 우주의식과 사상체계를 중심 원리로 색채관에 근거를 두고 발전된 자연철학으로 동양의 생활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

전통색채는 인간의 삶과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일상의 생활에 나타나는 의식, 행동, 심리, 정보의 전방에 영향을 준다. 특히, 지역이나

민족,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의 특성에 따라 조건이나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전통색의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전제로 한 객관적인 자료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무역의 장벽이 붕괴되고 기술 혁신과 고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산업구조에서 전통색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디자인 분야의 응용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 되는 사회기 때문이다. 전통색의 연구는 기술 개발에 비해 투자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 할 것이다. 이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연구할 만한 충분한 필요성을 가진다. 또한 경제적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지금 우리는 현실에 맞는 공간구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주거는 조선시대까지는 한옥이었으나 그 후 일본과 서양의 영향으로 좌식에서 입식으로, 기와지붕에서 슬래브 지붕으로 바뀌며 기능 위주의 편리한 주택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서구적이거나 한국적이란 혼란 속에서 한국적 현대주택의 공간구성과 인테리어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서구의 주거 계획의 접근법은 시공성, 실용성중심, 외관 형태미, 건축가의 이념표현을 중시하는 기능 중심의 접근이 시도 되고 있다.¹⁾

풍수는 전통건축에서 중요한 공간 원리로 사용 되었다. 인테리어에 풍수를 적용하는 것은 生氣를 흐르게 만드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풍수인테리어는 현대적인 사회구조와 생활의 변천에 따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공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공간을 위해서 풍수인테리어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풍수를 현대적으로 해석함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여기서 현대적 해석의 의미는, 현대의 보편적인 사유체계- 즉 서양의 수학적 연산과 이분법적인

1) 김형대, 주택 계획 설계. 기문당. 2002. p. 3.

단친 사고가 아닌 유연한 보편적 사고를 의미-와 논리로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풍수지리의 음양오행 등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 색(色)을 이론적으로 규명해 보고, 풍수인테리어에 있어 색(色)을 중심으로 풍수 개념 및 이론을 고찰하여, 풍수를 적용한 하나의 주거공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현대적 해석을 통해, 가치를 지닌 주거 공간 계획 시 합리적인 보완도구로써 음양오행을 이용한 우리 전통의 색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풍수는 길지 상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다. 양기는 주거주택에 널리 이용 되었다.

사람이 사는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개인적 생활공간과 사회적 활동공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둘은 중복되거나 혼재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공간이란 일의적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 의미의 건축물 외에 여러 형태의 구조물이나 시설물 따위도 사람의 활동에 관련되는 한 풍수 인테리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택(陽宅)풍수는 양기(陽氣)풍수라고도 하며 분묘를 음기(陰氣)풍수라 부르는 것과 대별된다. 양택 풍수를 분류해 보면 국가나 도읍 또는 마을 등을 보는 집단 양기와 가옥, 택지를 말하는 개인 양기로 나누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집단 양기의 뜻으로 도시계획적인 개념이며, 개인양기는 양택으로 건축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양기는 개인이 주거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의 관습상 기(氣)는 넓은 의미로서 지역을 뜻하고, 택(宅)은 좁은 의미로서 장소를 뜻한다. 개인적 양기는 집단양기보다 이동의 곤란이 적고 집단양기와 같이 광범한 지역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탐구와 선정이 용이하여 국도, 도읍보다 더 널리 사람들에게 의해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읍이나 군영 등 취락 풍수에 있어서는 양기를 사용했고, 개인의 주택에 있어서는 양택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개

인 양기풍수는 집단양기 풍수보다 더 성하였다.

음택 이론에서 지기가 땅속의 체백을 매개로 한 동기감응에 의하여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비하여 양택의 경우에는 지기를 사람 자신이 바로 받음으로 지세가 좋지 않은 곳에 입지한 양택에 사는 사람은 나쁜 지기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산 사람은 시신, 유골과 달리 이동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영향은 덜하더라도 정착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이동성이 거의 없거나 적은 환자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땅의 나쁜 기운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흉화를 입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시내 간선 도로변에 주택이 있을 경우 차량의 질주나 경적 따위에 따른 소음이 극심하여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인 바 촉감적,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인지능력 밖의 범위에도 위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과 관계가 분명한 현상이 존재한다. 소위 초현실이 아니라 바로 현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동양의 사상과 학문 체계에도 포함되는 양택 풍수는 그 대상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생활공간이라 누구나 쉽게 익혀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설픈 과학성의 논리에 길들여져 자연의 제 현상을 대하는 태도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어 수많은 사상(事象)들을 미제의 영역으로 스스로 내몰아 버리는 우를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검증이나 시도는 오로지 과학적이어야 하는 편협한 시각에만 집착하다 보니 비록 과학이 첨단으로 치달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인 불명의 불치병(不治病)과 같은 불가사의한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으니 유아식 소견은 떨쳐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생각의 문을 열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가꾸어 궁극에는 삶의 질을 높일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독일에서는 지자기를 측정하여, 이것이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미신으로 믿던 것들이 하나 하나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은 풍수의 의미와 색에 대해 역사와 과학적으로 고찰한다. 풍수의 목적이 생기(生氣)를 얻는 것이기에 특히 기(氣)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 과정에서 한의학이나 명리학의 기(氣)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기(氣)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함께 색(色)이 어떻게 기(氣)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유추해 본다.

즉, 풍수지리의 기(氣)와 색채의 관계를,

첫째,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의 상징과 의미를 연구하고,

둘째, 풍수지리의 기(氣)와 색채를 한국인의 색의 개념으로 분석하며,

셋째, 기(氣)와 색(色)에 대한 과학적 성질을 파악하여 실제 공간에 활용토록 한다.

풍수지리와 풍수인테리어의 보다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위해서는 철학, 자연과학(물리학, 지질학, 지구과학, 생태학, 환경공학, 인체구조학, 유전공학), 심리학, 역사학 등 실로 다양한 최근의 지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목적은 주거환경에 풍수인테리어의 색(色)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인만큼 풍수지리의 오행사상과 기(氣)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 했듯이 사업장의 풍수인테리어를 배제하고 순수 주거 목적의 풍수인테리어로 한정한다.

그리고 생기(生氣)를 얻을 수 있는 도구로서 색깔을 활용하여 직접 공간 구성을 통해 풍수인테리어의 모범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기(氣)의 과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합리성을 더하려 한다.

II. 풍수지리와 색(色)의 이론적 배경

1. 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

1.1. 풍수지리의 의미

풍수지리란 장서(葬書)의 장풍득수에서 나온 말이다. 터와 묘가 생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氣)가 모여 있고(藏風), 좋은 물을 만나야(得水) 한다는 뜻이다. 지리(地理)란 산수(山水)의 형세에 따라 길흉(吉凶)을 논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좀더 알기 쉽게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풍수지리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람(風)과 물(水)과 빛(光)을 지리(地理)와 관련을 시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천지(天地)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의 혜택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천(天)과 지(地)의 양자를 나누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활은 지상에서 영위되고 그 생활 자료는 대부분 땅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땅의 능력도 하늘의 힘을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天)을 아버지(父)와 같고 땅을 어머니(母)와 같이 믿게 되었다. 인생에 작용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땅이며 풍수는 인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땅에 의하여 그 생활의 발전과 행복을 구하려 함이다. 이와 같이 땅을 행복과 발전을 주는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이 깊어져 궁극적으로 일종의 신앙과 같이 믿어져 있기도 하다.

풍수지리는 근대의 지리학에 비하면 땅을 생명적 동적으로 생각하고 땅과 인생과의 관계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중하게 여긴다. 땅을 능동적으로 보고 땅에는 만물을 화생하는 생활력이 있어서 그의 활력의 후박여하에 의하여 길흉화복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중(地中)에는 생기가 행하고 있어서 이 생기는 바

로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한다. 즉, 현대의 지리학은 지를 광물 무생물로 취급하고 그의 인생과의 교섭은 사람에게 거주지 지역을 제공하고 곳 또는 사람의 생활을 길러 주는 재화의 생산장으로, 단지 사람의 이용에 임하는 수동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현대의 지리학은 땅을 오직 물질적이고 사람의 이용에 따라서 역할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풍수지리에서는 땅을 활용적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인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생물자로 취급하여 한편 두려워하기도 한다.

풍수가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함은 풍수(風水)와 풍수지리의 용어가 바람, 물, 땅 그리고 이치인 것에서 잘 나타난다. 바람과 물과 땅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이들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도 인간이 영향 받음을 오랜 체험을 통해, 풍수사상 및 풍수지리의 성격을 구체화하게 되었다.²⁾ 풍수지리의 개념은 인간의 생활이 문명이 발달된 현대의 생활에서나 또는 그 이전의 원시생활에 있어서 생활행위의 근원적인 바탕은 자연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풍수지리가 오랜 기간을 통하여 개인적인 또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의 한 방편으로 오늘에 전해진 과정을 살펴보면, 풍수지리의 이론은 문명 초기의 대부분의 문화가 그러하듯이 자연에 대한 초보적인 관념으로부터 출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러한 관념이 오랜 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하나의 뚜렷한 생활 철학으로 정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2. 주역(周易)³⁾과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

풍수지리의 사상적 배경은 역(易)사상과 음양오행을 기초로 정리되었다. 오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자연은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 왔는데 그 이치를 정리한 한 것이 풍수지리이다.

2) 박시익, 풍수지리의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

3) 유교의 경전인 삼경의 하나로 양과 음의 이원론으로 성립된 우주론적 철학이다.

동양문화의 대부분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음양오행설과 일종의 연관성이 있어서, 풍수지리설의 이론적 배경에도 음양오행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풍수지리설의 목적상 가장 핵심적인 이론인 생기(生氣)론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기(氣)로서 상호 연관시켜 해석하게 되는 바 이 기(氣)의 본질적 해석은 바로 음양과 오행의 이론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풍수지리설의 이론은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학설로서 체계를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1.2.1. 주역의 세계

동양철학에서 역(易)사상의 출발점은 우주만물이 모두 변화한다는 것에 있다. 즉, 낮과 밤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고, 산천이 변하고, 인간이 변하여 우주만물이 모두 변한다는 자연현상에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자연현상 그 자체에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존재함을 알게 된 것이다.

역(易)에서 우주만물의 변화는 기(氣,chi)에 의한다는 것인데, 기에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라는 상대개념으로 구분 되어진다. 즉, 삼라만상을 상대적으로 양분하여 양과 음으로 나누는 음양이원론(陰陽二元論)을 확립 하였다. 여기서 음(陰,ihn)과 양(陽,yang)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조화를 동양철학에서는 대대(待對)의 원리라 한다. 낮과 밤, 남자와 여자, 겨울과 여름, 밝고 어두움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성립되지만 남녀가 연애와 결혼을 하듯 서로를 의지하며 필요로 하기에 이를 대대(待對)관계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연이라는 대상을 관찰한 인류가 자연은 변한다는 현상에서 변화의 운동성은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 나갔던 것이 동양에서의 역(易)이었으며 여기서 사람들은 음양조화의 구조체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음양은 다시 사상(四象)으로 나누고, 사상은 다시 팔괘(八卦)로, 팔괘는 다시 64괘로 나누어서 괘사(卦辭)와 효사(爻辭)와 10익(十翼)으로 만들어 놓았다. 8괘는 천지만물의 온갖 현상과 형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역(易)의 시작이며 근본

이라 하고, 팔괘를 발전시켜 만든 것이 64괘다. 다시 말해서 64괘는 8괘의 한 괘 한 괘를 서로 결합시켜 새로운 괘를 만든 것인데 이때 한 괘를 소성괘(小成卦)라 하고 두 괘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괘를 대성괘(大成卦)라 하여 이 대성괘에서 생긴 논리와 변화를 표현하게 된 것이 64괘다.

이렇게 음양학에 변화를 주어 만들어 놓은 역으로 삼라만상의 존재와 그 존재가 변화하는 것을 예측 하고자 만든 학문이 주역이다.

그러나 주역은 음양이원론이라는 단순한 음양의 이론을 가지고 우주상의 엄청난 변화를 읽으려 하나 이것만으로 그 변화를 읽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주역 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우주의 생성 자체가 음양이 아니라 음양오행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역은 자연의 구성과 변화의 현상을 음양과 오행의 구별로서 해석하는 형이상학적 철학이론이다. 그러므로 주역은 바로 음양오행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우주 생성의 이(理)를 담고 있는 음양오행학이 삼라만상의 존재와 변화를 밝히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음양학을 가지고 역(易)의 근본이자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역은 다만 역의 시작이며 일부분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2.2. 음양오행의 개념

음양오행은 중국에서 시발되어 주(周)나라 때 정리가 된 것으로 일종의 철학이며 점성술이고 당시로서는 천문학이라 할 수 있다. 즉 음양이란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記號)로서 음(陰)과 양(陽)이라는 두 개의 기호에다 모든 사물을 포괄하여 귀속 시키는 것이다. 하나인 본질을 관찰하여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원론적(二元論的)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월성신(日月聖神)의 운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생활의 길흉과 화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

주 만물의 근원이 음·양의 기(氣)로 시작되고, 오행으로 확대 되는 것이 역학이며 생활과학으로 발전한 것이 음양오행 사상이다.

음양오행은 우주의 근본 이치로 순환질서와 자연변화의 원리이다. 즉, 생성과 소멸, 환원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인류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했으며, 자연의 운행 속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이치를 유추한 결과 자연은 음과 양의 이원론적 구조로 이루어짐을 알았다. 또 음양의 이기(理氣)가 상생, 상극함에 따라 만물은 생성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양으로 설명한 것이 음양설이요, 이 음양의 영향을 받아 삼라만상의 생성, 소멸, 환원을 자연의 근본적 구성인 오원기(五元氣) 곧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설명하는 것이 오행설이다. 자연현상에 상호 관련된 체계로 음양오행 이론이 서로 조화되어 더욱 완전한 철학적 체계를 이루었다.

<표1> 오행의 구분

구분	오행\음양	목	화	토	금	수
십천간	양	甲	丙	戊	庚	壬
	음	乙	丁	己	辛	癸
십이지지	양	寅	午	辰戌	申	子
	음	卯	巳	丑未	酉	亥
방 위		동	남	중앙	서	북
절 기		봄	여름	4계절	가을	겨울
색 상		청	적	황	백	흑

음양오행설이 표상하는 자연관은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 한다. 이와 같이 상호 유기체적인, 즉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의 정의는 장자⁴⁾의 우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원래 하나의 덩어리인 혼돈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음양이라는 것이다. 혼돈이 사라지고

4) 제나라 때의 장주의 어록을 모아 놓은 책

음양으로 분리가 된 이후에 대립의 양극론이 대두 되었다. 남과 여, 남극(南極)과 북극(北極), 밤과 낮, 동서양, 물과 불 등이다. 이 같은 음양의 이분법(二分法)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⁵⁾으로 설명 했고, 주역(周易)의 기본원리도 음(--)과 양(-)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양극(兩極)화된 이분법으로 모두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으나 단순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음양이다. 이들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항상 대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양의 대립적인 양극론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 시켜주는 것이 음양중화(陰陽中和)라고 한다. 음양중화는 이질적(異質的)인 성분 이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내는 오행중의 중앙(中央)이다. 음과 양의 균형을 태극(太極)이라고 하는데,⁶⁾ 이황(李滉)의 퇴계집(退溪集) 진성학십도(進聖學十圖)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잘 나타나고 있다. 양과 음이 합(合)하여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낳아서 오기(五氣)가 순차적으로 베풀어지고 네 계절이 운행된다.

음양오행설은 태극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태극(太極, 혼돈)은 무극(無極)에서 비롯되어 무극은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이며 무기체(無機體)상태이다. 태극은 만물의 근본이자 창시이며, 무에서 유로 변화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라 설명하여 음양 속에는 태극이, 오행 속에는 태극과 음양이 존재 한다고 했다. 즉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생겨나고 차례로 만물이 생겨나고 차례로 만물이 진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람이 가장 빼어남을 얻고 사람이 외부의 대상에 반응할 때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서 선악의 구분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오행이란 바로 하나의 태극이면서, 태극은 본래 무극(無極)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음양의 법칙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주역으

5) 1905년 확립된 물리학 이론, 임의의 운동에 있는 물질에 대한 시간, 공간은 상대적이며 상관관계로 봄.

6) 박주현, 알기 쉬운 음양오행설, 동학사. 1997, pp.104-151.

로 보면 사상(四象)⁷⁾이며, 명리(命理)학으로 본 것이 오행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철학은 5대(大)철학이며 자유 속에 구가하는 간단명료한 역간(易簡)철학인 것이다.

오행(五行)에서 행(行)은 운행(運行) • 류행(流行)으로서 자연과 생명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때문에 자연과 생명의 연속성을 표상한다. 오(五)는 오성(五星), 오색(五色), 오미(五味), 오성(五聲), 오지(五志) 등 천체, 소리, 맛 등 다방면에서 다섯 요소로 분류하는 사고(思考)의 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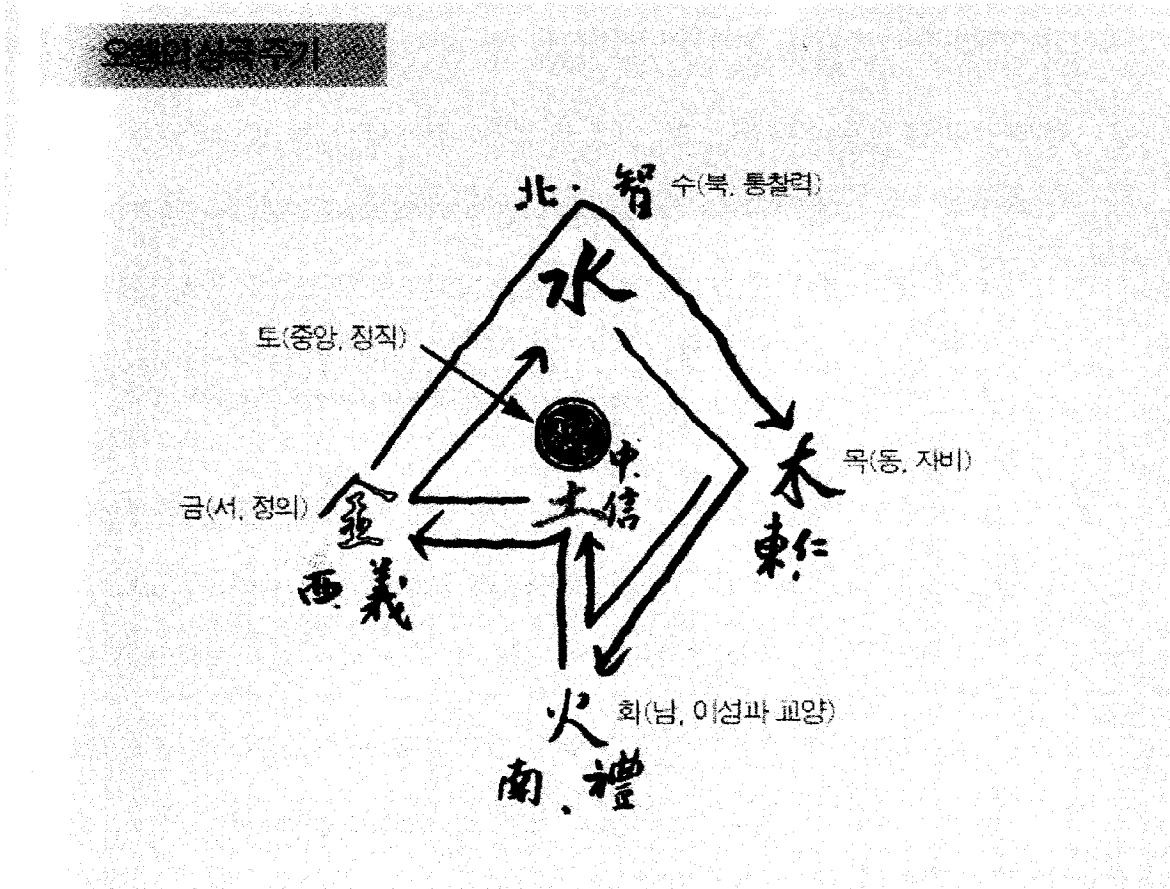
이러한 자연과 생명의 영속적인 순환을 상호보완적 구조의 총체로 파악하고 있는 사상이 음양오행설이라 할 것이다. 과학적 지식이고 인생의 지혜이며, 종교적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음양오행설은 그것을 관념화하여 살아온 사람들의 세계관이며 생명관이다. 이 같은 음양오행은 천문학, 의학, 역사학, 기상학 등의 학술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생활 속의 일부로서 문화와 생활에 끼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음양오행은 우주 만상과 심지의 의방(의망)의 형이상학적 설명에 고루 쓰인 동양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표상하는 자연관으로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이 상호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거기에는 단순한 유기체적 세계관을 뛰어 넘는 음양오행설의 본질이 있다.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질서에 순응 한다는 뜻이다. 자연의 경이에 순응하는 인식 하에 중국 대법전인 <서경집전(書經集傳)>의 하나인, 상서(尙書)의 홍범(洪範)에서 전해주는 곤(鯁)의 자연 정복과 우(禹)의 자연 순응의 두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끊임없는 변화와 검증을 거치며 다듬어져 온 것으로 자연과 생명 철학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있다. 음양설은 극단적인 둘의 대립적인 원소가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체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조화이며, 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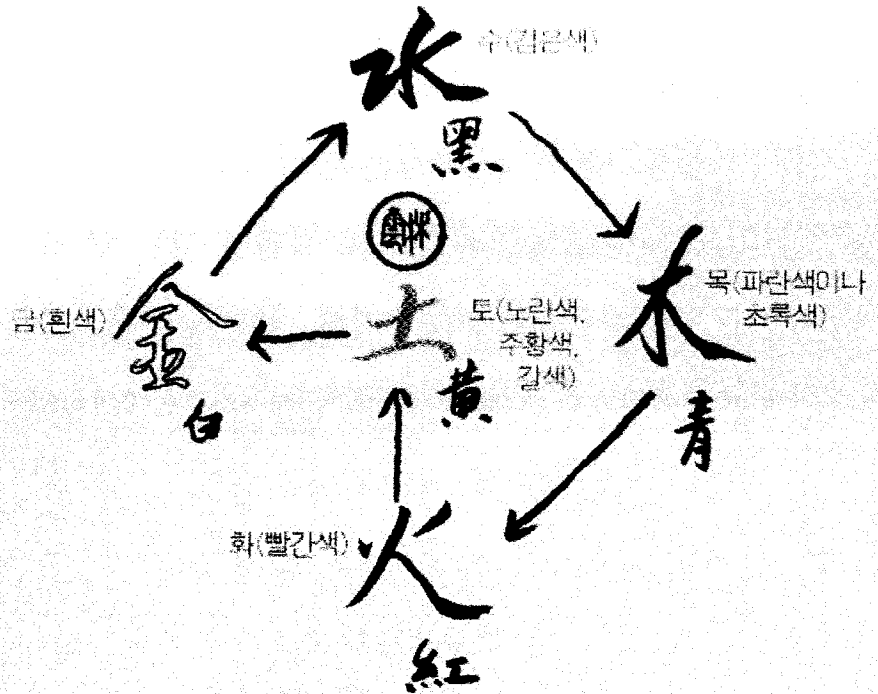
7) 음양의 성쇠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8괘 또는 64괘가 이루어짐.

풍수에서는 지형을 관찰하여 그곳의 땅으로부터 사람에게 미치는 길흉의 영향을 판단하다. 이러한 땅의 길흉은 음양오행의 이론으로 설명되어 진다. 풍수지리가 외형이라면 음양오행은 내질이라 할 수 있어서 음양오행의 이론 없이는 풍수지리는 일반의 상식적인 이외에는 그의 이론을 정립할 수 없다.

<그림1>오행의 상생주기와 상극주기



오행의 상생 주기



1.3. 삼신오제(三神五帝)

고조선의 천문사상에 있어서 지식이나 함문은 주로 천체의 운행에 따르는 계절과 일기의 변화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것은 이들 자연의 변화가 농업, 목축업, 수렵, 항해 등 고대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 계절적인 변화의 원인을 해(日), 달(月) 등의 천체의 변화작용에서 찾게 되어 그로부터 역(易)을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자연의 내면적인 성질로서의 변화적 원칙을 역(易)이라고 하여서 해석하게 되었

다. 마한 세 가상에는 환웅천황 당시에 이미 일년을 365일을 기준하여 역을 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고대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고대와 마찬가지로 학문은 역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고조선 시대에 사용하였던 역을 환역(幻易)이라고 하였다. 환역은 방위를 맡은 신으로 북, 남, 동, 서, 중앙의 오제(五帝)를 정하고 각각 흑제(黑帝), 적제(赤帝), 청제(靑帝), 백제(百帝) 및 황제(黃帝)라 하였다. 이러한 오제(五帝)는 방위의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방위의 개념은 천상의 신과 이들의 움직임, 즉 역(易)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삼신오제의 사상적 근원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이 “삼신오제(三神五帝)는 신설로서 우주의 조직을 설명하였다.” 삼신오제는 곧 고대인들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연의 변화 원리, 즉 역(易)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삼신오제의 사상은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천(天), 지(地) 그리고 태(太)의 3원소와 관련하여 해석함으로써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귀결하게 한다. 또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삼신(三神)사상은 자연의 숭배사상과 산신숭배의 사상 그리고 인간의 내세에 대한 사상 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래의 삼신오제 사상은 그 후에 발달된 음양오행 사상, 풍수지리의 사상과는 그 사상의 유사성으로 매우 밀접하게 융합되어 이론적인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 예로 한국의 궁궐, 사찰, 서원 등 전통 건축물의 중심사상은 삼신오제(三神五帝) 사상으로 확인된다.

2. 풍수지리의 기(氣)와 색채

2.1. 기(氣)의 정의

풍수에서 기(氣)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되고 있지 않으나, 우주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며 생명체 무생물체 등의 생(生), 장(長), 수(收), 장(藏)에 관하여 역동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즉 만물의 생성(生成), 변화(變化), 소멸(消滅)을 기(氣)의 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氣라는 글자는 하늘 즉 우주공간 속에 사방팔방으로 퍼져가는 기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⁸⁾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氣)는 만물에 스며 있기도 하지만 비어 있는 우주 공간 역시 실상은 기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다. 기는 물질과 비물질, 생물과 무생물, 시간과 공간, 빛과 파장 등 여러 가지 유무형의 존재로 우주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며, 허공이 아니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적 측면에서도 설명한바 있다. 따라서 동양사상에서 기는 우주만물의 구성체와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공기와 같이 비어있고 보이지 않는 기운도 기이다.

기(氣)의 특성 및 해석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우주공간과 지구상의 기는 천(天), 지(地)의 기운 영향으로 음양의 기와 오행의 기 및 오운육기(五運六氣)의 형태로 표출된다. 지구와 지구 밖의 태양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기운이 음과 양의 두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의 몸체를 갖는 개별적인 동식물, 비물질마다 음기와 양기, 생기와 사기(邪氣), 내기와 외기 등 상대적이면서도 상생(相生) 상보(相補)해 주는 기를 갖는 다. 이는 지구와 땅인 음과 우주와 태양인 양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지구 상의 모든 생물과 현상이 음과 양의 두 가지 기운을 동시에 함유한다는 의미이다.

8) 이길환 역, 기의 불가사의, 동화문화사, 1993, p.108.

셋째, 기(氣)는 서로 다른 유무형의 기와 상생, 생보하거나 상충하려 한다. 이것이 태양이 낮에는 지구에 에너지를 복사하고 밤에는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를 복사하듯이 상호 관계성을 동시에 가지려 일방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볼 때,
넷째, 기(氣)는 같은 성질끼리 유유상종(類類相從)하려 한다.
다섯째, 기(氣)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일정한 통로(맥)를 따라 움직인다.

여섯째, 기(氣)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강약이 변화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일곱째, 기(氣)는 마음 가는데 따르고, 기(氣)가 따르는데 마음이 간다.

(氣則心行 心則氣行)

여덟째, 기(氣)의 형태(물질 또는 비물질)가 변해도 기의 절대량은 언제나 같다.(에너지 보존의 법칙)

기(氣)는 동양철학과 동양의학 그리고 풍수의 핵심이지만, 불가능이 없어 보이는 현대과학으로 아직 그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21세기를 기(氣)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기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氣)는 과학적 장치로 검출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땅과 인체 그리고 동식물 내부에 존재하는 기(氣)는 복잡한 생리학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서, 물질, 비물질에 있는 존재로서의 기(氣)를 따로 분류하여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음양오행의 기(氣)를 중심으로 하는 풍수에서는 정지된 상태의 존재로서의 기가 아닌, 음양오행이 서로 상생(相生), 상보(相補), 상충(相沖) 하고 어우러지며, 움직이는 기능으로서의 기(氣)를 강조한다.

기(氣)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중국의 기공(氣功)에서 시작되었으며, 세계에서 최초로 인체에서 방사(放射)되는 외기(外氣)를 측정한 이는

1977년 상해원자연연구소의 고태삼박사인데, 기공사의 손에서 변조된 저주파의 적외선 등이 나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유무형의 존재별로 이루어진 고유한 파장 등으로 구별하는 척도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기(氣)의 종류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는데⁹⁾¹⁰⁾ 구체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까지의 풍수연구와 이론들은 생기(生氣)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어떤 관련된 전자기파를 신경체계에 보내는 미세한 전기 자극에 의해 인간의 기분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들 자기파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기가 6가지의 생생한 색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과학으로 입증 되었다.¹¹⁾

풍수지리의 본질적인 이론의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문헌적 자료의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의 핵심은 결국 기(氣)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내용들은 기존의 문헌들에서도 확인이 된다. ‘인자수지’¹²⁾에는 바람과 물은 생기의 내(來), 지(止), 취(聚)를 살피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의 목적은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기(氣)의 발원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다.

9) 진용옥, 최한기의 기철학과 전기론, 한국정신과학학회, 1997, p.33- 19세기 중엽 기일원론을 집대성한 최한기는 ‘기는 하나이지만 그 있는 곳을 가르켜 명칭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이충용, 한반도에 기가 모이고 있다, 집문당, 1997, p.12- 기가 뭉치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이 되고 흩어지면 만질 수 없는 에너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관계 공식($E=mc^2$, E: 에너지, m:질량, c:광속도)에서 어떤 물질의 질량이라도 에너지가 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에너지의 종류도 물질의 가지 수 만큼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10여 가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를 현대 과학의 측정 장비로 관찰하여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형태로 측정하여 전기(電界), 자기(磁界), 원적외선(原赤外線), 마이크로파, 초저음파, 광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1) 김은경 역, The power of color, 교보문고, 1996, p.311.

12) 김동규, 인자수지, 명문다. 1999.

<표2> 청오경과 장경에 표기된 기(氣)의 종류

청오경	음양의 기(氣) 길기(吉氣) 귀기(貴氣) 진기(眞氣) 가기(佳氣) 외기(外氣) 내기(內氣) 전기(全氣)
장경	오기(五氣: 오행의 기) 음양의 기(氣) 외기(外氣: 땅위의 기) 내기(內氣: 땅속의 기) 전기(全氣: 상하, 좌우, 전후, 육합의 기가 결정된 기) 길기(吉氣) 생기(生氣)

2.2 풍수지리 기(氣)의 종류와 변화

인간과 만물의 화생(化生)적 힘의 근원은 모두 천체와 그의 운동 즉 기(氣)에 기인하고 있다. 천체 운동의 방법은 회전운동으로 일점에서 출발하였다가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연속으로서 이러한 운동적 성질도 기(氣)의 작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운동으로 밝음과 어두움, 더위와 추위, 동(動)과 정(停)의 서로 대립적 구별이 발생한다. 이것은 음양의 표면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그 운동을 남과 북의 축과 동서의 방위를 구별하게 하며, 이들 각 방위는 북(水), 남(火), 동(木), 서(金) 및 중심(土)의 오행에 의한 기(氣)의 차이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일일(一日)에 있어서도 태양의 위치, 즉 시간에 따라서 공기의 기(氣)가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년에 있어서도 태양이 하늘에 우시(右施)해서 위(緯)가 되며 그 운행의

계도는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춘하추동의 계절적 구별을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계절은 오행의 성질로서 해석되고 있다.

봄은 오행의 목(木)으로서 만물이 소생하여 위로 솟구쳐 직상하는 기운을 뜻하며, 여름은 생명체를 왕성하게 성숙시키는 화(火)의 뜻이며, 가을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잎은 떨어뜨리는 금(金)으로서, 겨울은 물(水)과 같이 차갑게 정지하여 휴식하는 뜻을, 그리고 이들의 각 기운을 포함하여 흙(土)의 기운에 포함시킨다는 기(氣)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생명체의 활동은 자연히 계절의 변화, 즉 기(氣)의 변화에 순응하게 되는데 기(氣)는 일정한 오행의 법칙에 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 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 오행의 개별적인 성격을 보면 오행은 각기 다른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성격도 다르다. 이들 오행은 상징의 관계에 따라 성(盛)하기도 하고 쇠(衰)하기도 한다.

음양과 오행은 상보상성(相補相成)하는 것으로 음양은 오행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는데 오행은 머물지 않고 순환하는 운동으로 풍수지리 색채에서도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는 음양의 소장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런 작용에 의해 자연현상이 운행되며 인생의 길흉화복이 지배된다.

상생의 원리는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있고, 상극의 원리는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의 이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음양오행의 이법에 순응하면 잘 살고 배역하면 망하여 못산다는 이치이다. 풍수지리 색채의 조화에 있어서 상생색(相生色)을 보면 청생적(靑生赤), 적생황(赤生黃), 황생백(黃生白), 백생흑(白生黑), 흑생청(黑生靑)이다.

이와 같은 오행의 순환 법칙에 친화하고 순응하는 상생의 관계에 있는 것을 상생설로 그리고, 순환의 법칙에 역행 하고 배반 상극이 되는 것을 상극설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성질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생, 상극의 관계를 보다 자연 친화적이며, 순환의 법칙에 순응을 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오

행설의 중심 이론이고 풍수지리의 색채도 여기에 연유한다.

2.3. 오정색(五正色)과 오간색(五間色)

풍수지리적 색채 체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색(靑色)은 동방(東方)의 정색으로 목성(木星)에 속하고-동방정색속목(東方正色屬木)¹³⁾, 방위로는 동쪽이며 계절로는 봄에 해당한다.

적색(赤色)은 남방(南方)의 정색으로 화성(火星)에 속하고-남방정색속화(南方正色屬火), 방위로는 남쪽,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된다.

황색(黃色)은 중앙(中央)의 정색으로서 토성(土星)에 속한다-중앙정색속토(中央正色屬土), 오색에 중심이 되고 모든 계절에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백색(白色)은 서방(西方)의 정색으로 금성(金星)에 속하고-서방정색속금(西方正色屬金).

흑색(黑色)은 북방(北方)의 정색으로 수성(水星)에 속한다.

이와 같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색(黑色)을 즉 풍수의 오색, 정색(正色)을 즉 풍수의 오색, 정색(正色) 또는 정방정색(正方正色)이라 한다.

또한 녹색(綠色)은 청(靑) 황(黃)색으로 동방(東方)의 간색(間色)이고,¹⁴⁾

홍색(紅色)은 적백(赤白)색으로 남방(南方)간색(間色)이며,

벽색(碧色)은 담청색(淡靑色)으로 서방(西方) 간색(間色)이다.

그리고 자색(紫色)은 적흑(赤黑)색으로 북방(北方)간색(間色)이고,

유황색은 황흑(黃黑)색으로 중앙(中央)간색(間色)이다. 이를 오방간색이라 한다.

풍수지리 색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색은 하늘과 무성한 식물 등을 상징하는 색이다.¹⁵⁾ 한국을 동방에 위치한

13)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 심리, 명지출판사, 1986, p.45.

14)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p.35.

15) 안향신,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24.

나라로 보는 까닭에 동방 색인 파란색을 숭상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길복(吉服)으로 푸른 옷을 입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파란색이 궁중 시녀의 의복 색이었기 때문의 청의(青衣)라는 말로써 시녀의 의미를 상징하였다. 전통적으로 보면 음양오행에서 청색(靑色)은 적색(赤色) 다음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청색(靑色)녹색(綠色)감색(紺色) 등의 넓은 개념의 청색으로 쓰여 졌다. 청색은 양기(陽氣)가 왕성해서 축귀(逐鬼)에 유효하다는 미신적 관습이 현재에도 민중의 생활에 남아 있다. 정신병 치료에 동도지(東桃枝)로 구타하면 체내에 부착된 귀신이 방출 되고 병을 고친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민간요법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풍수지리 색채에서의 청색은 벽(壁), 창(蒼), 남(藍), 아(鴉)청, 청현(靑玄), 유(柳)청, 창(蒼)황, 녹색(綠色) 계열에서 비(翡)색, 연(연)두, 옥색(玉色), 흑유(黑幼)색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색인 청색은 Munsell의 표색 기호로 볼 때 8.3PB2.2/10.1에 Purple 기미가 있는 Blue에 해당하며 생명을 표시하고 발전, 창조, 신생을 상징하는 양기의 색으로 봄과 초목(草木)의 의미를 지닌다.

백(白)은 아무색도 가지지 않는 무색(無色)으로 흰색은 빛을 상징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흰색을 고귀하게 여겼다.

또한 흰색은 순결, 청력 등을 상징하며 한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민족의 색으로 일컬어진다. 풍수지리 색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색으로서의 백색은 Munsell 표색계로 표시할 때 색상이나 채도를 가지지 않는 무색이지만 우리 민족은 설백(雪白)색(6.2G8.8/0.5), 유백(乳白)색(8.0Y9.0/2.0), 지(紙)백색(白色)(6.0Y9.0/1.3), 소(素)색(1.3Y8.4/2.7)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백색에 대한 색채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적(赤)은 음양오행설에서는 불이며, 만물이 무성하여 양기(陽氣)가 왕성한 화(火)인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색으로 만물을 생산하는 양에 속하

는 색이다. 붉은색은 홍색(紅色)계열의 천(茜)색, 조(條)색, 훈(纁)색, 비(緋)색, 선홍(鮮紅), 주홍(朱紅), 담주(談朱), 대홍(大紅), 운(暈)색과 자색(紫色)계열인 남홍(藍紅), 토홍(土紅), 진홍(眞紅), 도홍(桃紅) 등이 있다. Munsell의 국제표준기호 측정에서 볼 때 가장 채도가 높은 색상이 된다. 풍수지리 색채인 적색은 음양오행설에서 화생토(火生土)로 연화(蓮花)의 덕(德)을 상징하고 있다. 복색(服色)에서 황색 다음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중국 황제의 황색을 상용하지 못한 관계로 한국에서는 적색을 왕의 복색으로 사용했으며, 상층계급의 사람들이 입던 복색이었고 출가하지 않은 소녀는 젊음이 충만함을 표시하기 위해 화기(火氣)의 상징적인 홍색(紅色)옷을 주로 입었다.

또 벽아진경(辟邪進慶)의 가장 강력한 의지 표현의 하나인 부저에는 적색으로 글씨와 그림을 그려 악귀를 쫓았다. 악귀와 질병을 음(陰)이라고 생각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정색(正色)을 양(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陽)의 색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적색과 청색을 사용 하였다. 그 이유는 적색은 모든 생명체가 무성한 남방의 색이고, 청색은 해가 뜨는 동방의 색이라 하여 양(陽) 중의 으뜸 색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양을 중화시켜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양의 색으로 음을 쫓는데 사용하였다.¹⁶⁾

또, 적색은 각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사용 차이가 있지만 태양 광명(光明)과 열, 불, 혈액 등 생존에 불가결한 것을 상징하게 되어, 대다수의 원시종교에서는 적색을 숭상하는 신앙이 시작 되었고 동양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음양오행사상과 결부되어 이론적으로 색의 체계화가 되었다고 본다.

흑(黑)은 조선시대 어린이 예복(禮服)으로 치색(淄色)을 사용하여 근본을 되찾고 예(禮)사상을 되돌아보아 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승복도 흑색이어서 치의(緇衣)는 승려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고, 무당이 검은 옷을

16)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미에 관한 연구, p.75.

입고 영매(靈媒)의 역할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

또한 흑색(黑色)은 북방의 색으로 수성(水星)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수(水)에 해당하여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스며들기를 좋아하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Munsell의 표색계로 본다면 모든 색을 포함하는 색이지만 음양오행에서는 현(玄), 오(烏), 조(早), 묵(墨), 회색(灰色), 구색(鳩色), 참색(黦色), 치색(淄色), 흑장색(黑醬色) 등의 기억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황(黃)은 음양중화(중화)에 해당하며 대립적 관계를 가지는 적과 청 그리고 백과 흑의 중심인 중앙의 방위를 갖거나 사이를 의미한다. 음양오행에서 우주의 중심으로 설정된 황색(黃色)은 Munsell의 표색기호로 볼 때 7.5R 8.7/9.1에 해당하는 Yellow로 명시성(明視性) 및 주목성이 높아 안전과 관련된 색채로 사용되고 풍수의 오색 중 가장 고귀한 색으로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를 상징하며, 만상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땅을 상징하였다. 만물의 중심으로 대지(大地)를 의미하는 토(土)이므로, 황색을 비롯한 담황, 아(蛾)황, 유황, 계(鷄)황, 천(淺)황, 행(杏)황, 치(梔), 송화(松花)색, 미색(米色) 등도 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황색은 중국 황제의 복색으로 숭상되어 조선조에서는 사용이 일체 금지되었고 세종때에는 황색뿐 아니라 황색에 가까운 누른색까지도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후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1900년 고종 대한제국 연도 이후 일반 평민까지도 치자로 물들인 황의(黃衣)를 입는 풍속이 한동안 등장했다.¹⁷⁾

음양설은 한 시대 사람들의 색채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적색을 제외한 색을 음양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청색과 흑색은 어두운 색으로, 백색과 황색은 함께 엷은 색으로 각각 묶었다. 한편 백색은 다만 ‘무색’의 상태, 즉 어떠한 색채의 채도가 점점 약화되거나 색채 부재의 상태로 보았으며, 황은 이

17) 한국색채 형 문양에 관한 연구,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1995, p.68.

러한 색채의 부재인 백색과 색채의 중간 상태로 보았다.

음양설에서의 이분법은 백과 흑은 선과 악의 색채로 상징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정(正)과 사(邪)로 옳고 그름으로 비유하여 백흑지변(白黑之辨)을 흑백을 가린다는 말로 써 왔다.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실린 고시(고시)들에는 백색이 붙은 낱말로 흰달, 흰눈, 흰옷, 백일, 백발, 백지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한결 같이 우리 겨레의 품성을 표현한 것이다.¹⁸⁾ 이처럼 음양의 흑과 백에서도 백은 배정(배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고 사용 되어 왔으며, 흑은 어둡고 침침하여 악으로 비유되어 왔다. 백색과 흑색은 흉례(凶禮)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풍수지리색채 에서는 색명(色名)에 있어서 색채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어렵다. 이는 풍수지리 오색과 오간색의 기본적 이외에는 자연현상의 변화에 따르는 색채의 이미지를 한자의 뜻글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색과 양색의 구분 또한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

청색과 백색의 간색(間色)으로는 벽색(碧色)이 있지만, 이 벽색의 명확한 색기호는 알 수 없으며, 막연하게 하늘색 일 것으로만 추정 할 뿐이다. 이렇듯 한국의 색에는 명도의 인식이 약하고 색상과 순도의 이미지만 왕성하였다. 색과 색 사이에는 간색만 있다. 색의 개념은 기(氣)가 살아 있는 색이다.

그러므로 풍수의 오색 정도로만 구체화 되어 있고 간색이나 기타의 잡색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만 남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일부에 국한되어 사용되지 못한 이유는 조선시대에서는 유교사상이 국가의 근본지침 이어서 풍수의 오색을 단순한 색채로 보지 않고 의미를 지닌 도덕의 근본가치 표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색(正色)은 간색을 대신 할 수 있으나 간색(間色)은 정색(正色)을 대신할 수 없어 항상 간색은 정색의 부수적 색채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된다.

18) 하용득, 한국인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9.

2.4. 팔괘(八卦)와 팔방위의 색

십간(十干)에는 고유의 색상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음양오행의 이론이 전래된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다채로운 색상을 재현시킬 수 없었고 또한 그 색채의 색상, 명도, 채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행(五行)에 따라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왔고, 음양의 차이에 따라 구분은 되었지만 명칭과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다양한 색채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색채의 명칭이 생겨남에 따라 그러한 모든 색채를 그러한 모든 색채를 오행의 색채 언어로 해석하여 합일(合一), 상생(相生), 상극(相剋) 관계를 고려한 색채 선정으로 음양오행 이론을 근거로 한 색채 계획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원리이다.

다음의 팔괘에 의한 색상 조건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색채는 오행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십간은 각각의 오행으로서 음양 구분이 되어 나뉘는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고유 색채가 있다. 과거 전통적인 색채 명칭은 그 범위가 넓지 않았던 까닭에 현대에 와서 새롭게 명칭 된, 원색에서 파생 되어진 유사 범위의 색채까지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십간이 각기 가진 오행의 고유 색채는 다음과 같다.

<표3> 양간의 색채 언어

양간(陽干)	갑 甲	병 丙	무 戊	경 庚	임 壬
오행(五行)	양목(陽木)	양화(陽火)	양토(陽土)	양금(陽金)	양수(陽水)
색채	청색 녹색 코발트	적색	황토색	흰색	검정색 갈색

<표4> 음간의 색채 언어

음간(陰干)	을 乙	정 丁	기 己	신 辛	계 癸
오행(五行)	음목(陰木)	음화(陰火)	음토(陰土)	음금(陰金)	음수(陰水)
색채	하늘색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베이지, 크림색	회색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먼셀의 20색상환을 기준으로 각각의 계통색까지 포함한 색채를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5> 20색상환의 오행 분류

색명	계통색명	오행	천간
빨강	red	火	丙
다홍	yellow red		丁
주황	yellow red(orange)		丁
갈색	reddish yellow	土	戊
노랑	yellow		己
노랑연두	greenish yellow	木	乙
연두	green yellow		乙
풀색	yellowish green		乙
녹색	green		甲
초록	bluish green		甲
청록	blue green(cyan)		甲
바다색	greenish blue		甲
파랑	blue		甲
감청	purplish blue		甲
남색	purple blue(violet)		甲
남보라	bouish purple	火	丁
보라	purple		丁
붉은보라	reddish purple		丁
자주	red purple(magenta)		丁
연지	purplish red		丁

이와 같이 모든 색은 오행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며 바꾸어 말하면 음양오행에는 각각의 표현 색채가 있다. 따라서 오행으로 분류된 색채를 통하여 배색하되 서로 간에 배치되지 않는 기운의 색채 구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천간합(天干合)의 색채 조합 구성을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천간의 색채는 각 천간의 대표색으로 설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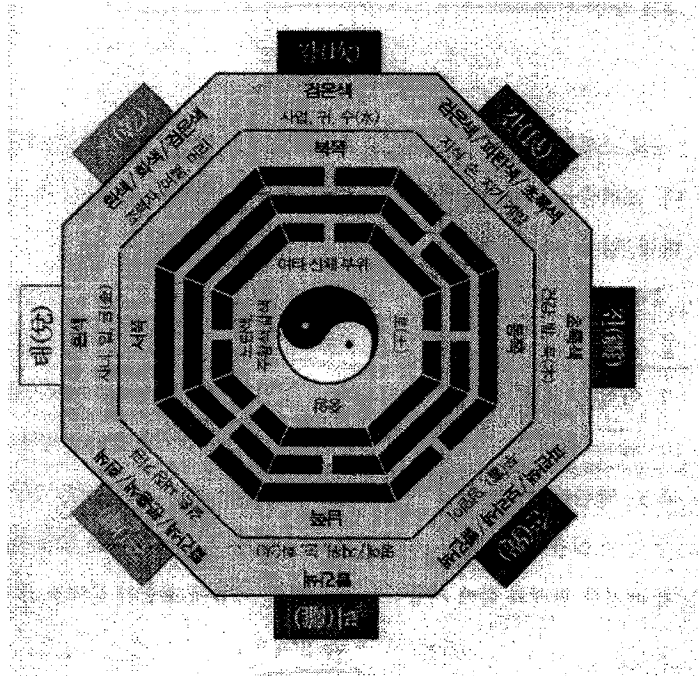
<표6> 천간합의 색채와 변화된 오행

구분	천간		합 ▶	변화된 오행
천간	甲(갑)	己(기)		토
색채	청색	황색		
천간	乙(을)	庚(경)		금
색채	하늘색	흰색		
천간	丙(병)	辛(신)		수
색채	적색	미색		
천간	丁(정)	壬(임)		목
색채	분홍(보라)	흑색		
천간	戊(무)	癸(계)		화
색채	황토색	회색		

천간합은 갑기합토(甲己合土), 을경합금(乙庚合金), 병신합수(丙辛合水), 정임합목(丁壬合木), 무계합화(戊癸合火)의 다섯 가지인데, 이 이론은 색채에도 적용되어 음양오행에서 의미하는 이상적인 색채 배색의 고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오행은 만나서 다른 오행의 성격으로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정(丁)과 임(壬)은 각각 화(火)와 수(水)의 기운을 띄고 있지만 두 오행이 합일(合一)된 후에는 새로운 오행인 목(木)으로 변화한 것을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오행 색깔을 「주역」의 팔괘와 결합하면 신비의 8각형인 오행 팔괘가 된다. 이 팔괘는 상응 색깔, 신체부위, 방위와 함께 여덟 가지 운을 예시한다. 중앙에 있는 아홉 번째 방위는 오행의 토(土)와 노란색 그리고 3효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다른 부위를 상징한다. 오행 팔괘는 무한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팔괘는 방, 안마당, 신체, 얼굴, 손바닥 등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올바른 위치에 적절한 색깔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팔괘의 각 방위에 해당하는 기본 색깔에는 ‘보완색’이 있는데 이는 기본 색깔과 긍정적



<그림 2> 팔괘에 의한 색상 조건표

인 관계를 유지하고, 오행의 주기에 따라 서로를 생성시킨다.

풍수와 음양오행의 해석을 통한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별개의 이론으로 각기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고려가 선행될 때 자연의 이치에 근접한 과학철학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이루어 질것이다.

3. 풍수지리 색채의 상징과 사신사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의 풍수지리에서 색채는 음양오행설이 전해진 이후의 정연한 논리를 발전하게 되었다. 음양오행설은 우주와 인간의 생명을 음과 양, 만물의 생장과 소멸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변화로 설명 하였고 선인들은 이로써 길흉화복을 점쳤다.

오행을 방위로 나타내며 목은 동방, 금은 서방, 화는 남방, 수는 북방, 토는 중앙이라 하고 이 오방위를 지키는 신을 오방장군 이라 하여 동은 청제, 서는 백제, 남은 적제, 북은 흑제, 중앙은 황제라 칭하였다. 또한 이 오방을 청• 백• 적• 흑• 황의 색채로 표시하는 것은 춘, 하, 추, 동 등의 계절과도 관계가 있고 따라서 방위• 색채• 계절은 서로 일련의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¹⁹⁾

방위로서의 색을 설명한 일연의 [삼국유사]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백두산의 줄기가 뻗어 내린 이 산은 각 대(臺)마다 보살이 머무르고 계시므로 마땅히 청색(靑色)방인 동대의 북각(北角)아래 즉, 북대의 남쪽 기슭에 관음방(觀音房)을 두어 원상(圓像)의 관음보살과 푸른 바탕에 그린 일만 관음상을 모시고. 적색(赤色)방인 남대(南臺)남쪽에는 지장경(地藏經)을 두고, 원상지장(圓像地藏)보살과 붉은 바탕에 그린 팔대보살을 수위로 한 일만 지장보살을 모시고... 백색(白色)방인 서대(西臺) 남쪽 면에는 미타방(彌陀房)을 두고, 원상무구수불(原象無量壽佛)과 흰 바탕에 그린 무량수여래를 수위로 한 일만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흑색(黑色)방인 북대(北臺) 남쪽면에는 나원당(羅漢堂)을 두고, 원상석사불과 검은 바탕에 그린 석가여래를 수위로 한 오백나한을 모시고... 황색(黃色)방인 중대(中臺)의 진여원(眞如院)에 한가운데는 니상문수보살부동상(泥像文殊菩薩不動像)을 모시고 뒷벽에는 누린 바탕에 그린 비로나자불을 수반으로 한 삼륙화형을 모시고...>²⁰⁾

19)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1, 동아출판사, 1983, p.298.

즉, 방위와 색의 관계를 동은 청색으로, 남은 적색으로, 서는 백색으로, 북은 흑색으로, 중앙은 흰색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풍수지리 색채 개념의 성립에 근거가 되며, 또한 앞에서 연구되었던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표현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이 방위의 수호신으로서 각기 방위에 따른 색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오행에 의한 다섯색은 우주생성의 기본색으로서 불리 운다. 이러한 풍수의 오행은 우리의 생활 속에 파급되어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혹은 의식의 법칙으로서 사용 되었으며 회화에 있어서 채색화의 주된 색으로 쓰였다.²¹⁾

또한, 오행을 인체의 구조에다가 관련시켜 목은 간과 담을 형성하고, 화는 심(心)과 소장을 구성하고, 토는 비(脾)나 위(胃)를 형성하고, 금은 폐와 대장을 구성한다고 하였다.²²⁾ 오행을 색으로 나타낸 풍수의 색채는 의식주(衣食住)와 문화에 두루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풍수지리 색채에 있어서 사신사는 고대인들이 신앙인 삼신오제(三神五帝)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삼신이란 하느님의 조화(造化), 치화(治化), 교화(敎化) 등 세 가지 능력의 삼위일체를 말하고, 오제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 방위에서 하느님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신(分神)을 말한다. 즉 동제(東帝), 서제(西帝), 남제(南帝), 북제(北帝), 중제(中帝)를 뜻한다.

이 오제는 각각의 고유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동제는 푸른빛의 기운을 갖고 있어 청제(靑帝)로, 서제는 백색의 기운을 갖고 있어 백제(白帝)로, 남제는 붉은 기운을 갖고 있어 주제(朱帝)로, 북제는 검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현제(玄帝)로, 그리고 중제는 노란색 기운을 갖고 있어 황제(黃帝)로 구분한다. 오제는 수성과 화성, 목성, 금성, 토성 등 5개별에 각각 분산, 배치하고도 한다. 오제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 이 신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

20)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p.35.

21) 홍지윤, 한국 전통 색채화 연구, 홍익대학교, 1994, p.10

22) 변만리, ibid, p.133.

서남북 중앙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다. 또한 각각 고유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깔, 곧 풍수지리의 색채이므로 상징되기도 한다. 간단히 오제를 요약해 보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은 파란 옷을 입고 있어 청제라고도 하며, 여러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제는 목성에 위치하고 있다. 동녘의 신 청제는 동쪽의 기운처럼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게 한다. 봄에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동제의 대표 기능이다.

남쪽에 있는 신은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주제 또는 적제라고 한다. 뜨거운 태양처럼 정제가 만들어 놓은 기운을 확산시켜 널리 뿌리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하늘 서쪽에 위치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대신하는 신은 언제나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백제라고 한다. 백제는 주제가 번성시킨 생명체의 기운을 정지시키며, 다음을 쉬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금성에 위치한다.

하늘에 북쪽에 위치한 신은 현제라고 한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있다. 현제는 백제가 죽인 생명체를 편안히 휴식하게 하는 신이다. 그 기간은 다음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수성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신이 황제이다. 황제는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하며 노란 옷을 입고 있다. 황제의 기운은 사방과 기운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넷 보다 가장 중심적인 기운이다. 토성에 위치한다.²³⁾

이와 같이 오제는 풍수의 색채인 동시에 오방위, 오신을 이야기 한다.

또한, 사신(四神)은 청룡(靑龍),백호(白虎),주작(朱雀),현무(玄武)의 4방위 신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하여 우주를 보호하는 상상의 동물형이다. 이 방위별 색채는 ‘동이문화’에서 동은 해가 뜨는 탄생의 곳ियो, 파란 동해 색이며, 다스리는

23) 박시익, *ibid.* p.44.

장수는 청룡이니, 서쪽으로 해가 지니 서쪽은 죽음의 땅 고비 사막이며 모래의 흰색이요, 장수는 백호이다. 남쪽은 집을 남향으로 두는 이유, 즉 빨간 해가 있기 때문이요, 주작은 장수이며, 북쪽은 흑룡강이 시작되는 눈 녹는 검은 땅이며 비가 되는 구름은 검은색이니 물이요, 장수는 현무이다. 황제내경의 원리라고 했으니 그 결정적인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인 셈이다.²⁴⁾

이러한 다섯 가지 풍수의 색채의 내용을 정리하면, 동, 서, 남, 북이 중앙이 위치관념 외에

북(北)은 동(冬), 지(智), 우(羽), 수(水): 흑(黑)을

남(南)은 하(夏), 예(禮), 징(徵), 화(火): 적(赤)을

동(東)은 춘(春), 인(仁), 각(角), 목(木): 청(靑)을

서(西)는 추(秋), 의(義), 상(常), 금(金): 백(白)을

중앙(中央)은 신(信), 관(官), 토(土): 황(黃) 등의 뜻이 있다.²⁵⁾

3.1. 청룡(靑龍)과 청색(靑色)

① 청룡(靑龍)

용(龍)은 고문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써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기린, 봉황, 거북 등과 더불어 신비롭고 영물스러운 4가지 동물 중의 하나이자 으뜸으로 여겨져 왔다.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이며 조화나 변신이 자유로운 전능의 상징수인 용(龍)은 81개의 비늘을 가지고 99수를 갖춤으로서 홀수를 양으로 보는 음양설에 의해 양(陽)의 기(氣)를 띠게 되는 것이다.

청룡(靑龍)은 동쪽을 상징하는 색 청색으로 청은 푸르름과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내며 암흑의 어둠을 헤치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쪽은 소생, 부활을 뜻하게

24) 김민기, 한국의 부자, 보람사, 1987.

25) 박선희, ibid, p.5.

된다. 동쪽을 가르켜 방향은 좌(左)를 뜻하고 좌청룡이라 불려왔다. 이는 한국인은 남쪽을 향한 자세서 좌우, 전후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즉, 남(南)과 앞 전(前)과 배는 간은 방위이고 뒤 후(後)와 등과 북(北)은 같은 방위이다. 음양오행 상징으로 볼 때 오행신 중에서 목성(木星)을 상징하는 용(龍)은 양(陽)의 기(氣)를 가지며 만물을 탄생케 하는 봄의 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방의 사자인 청룡도 나무의 치솟는 양의 성질과 연관되어 동방의 목과 함께 오행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풍수지리에서 청룡(靑龍)이 발생하는 생기(生氣)는 대표적인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갖고 있다. 청룡(靑龍)이 세 가지 기능을 기대하는 자세에서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좋고, 후손(특히 남자)들이 고급 공무원이 되거나 재물을 모은다. 또한 자손도 번창한다. 이와는 반대로 청룡(靑龍)이 나쁜 자세는 건강을 잃고, 자손이 줄어들며, 심한 경우 대가 끊어지기도 한다. 청룡(靑龍)의 형태는 남자들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청룡(靑龍)의 지세가 약하면 병으로 고생하는 남자들이 많아진다.

청룡(靑龍)의 산세가 유순한 자세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반면, 청룡(靑龍)의 산세가 상부보다 하부에 뭉쳐 있으면 하극상의 비극을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등을 돌리고 있는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회를 등지는 후손이 나온다. 또 이런 지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거나 부도 같은 일을 겪는다.

청룡(靑龍)의 끝 부분인 집에 등지고 멀리 뻗어 나간 지세라면 형제관계를 끊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생긴다. 부모를 떠나 멀리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이런 지세의 영향이다. 형제가 여러명 있는 경우, 청룡의 부분적인 형태에 따라 자식들의 형편이 달라진다. 청룡(靑龍)을 시작점에서 끝 부분까지를 삼등분 했을 때 맨 위 부분은 형제 중에서 장남에게, 가운데 부분은 차남에게, 마지막 부분은 막내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청룡(靑龍)상부에 큰 힘이 뭉

쳐 있는 지세에서는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많이 발전하고 끝 부분에 힘이 뭉쳐 있으면 막내아들이 성공한다. 청룡(靑龍)이 전반적으로 고르면 형제들이 고르게 발전한다. 청룡(靑龍)뿐만 아니라 백호(白虎)의 길이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청룡(靑龍)이 남성이라면 백호(白虎)는 여성이므로, 딸과 며느리에게 그 기운이 전달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② 청색(靑色)

청색은 오행에서 나무를 상징하고 방향은 동쪽이며, 계절은 봄을 나타낸다. 인간의 상으로는 어진 마음, 감정으로는 기쁨, 맛으로는 신맛, 장기로는 간장, 눈을 나타내며, 음(音)으로는 각을 나타낸다. 오방신으로는 청제(靑帝)장군을 뜻한다. 그리고 상징하는 동물로는 청룡(靑龍)이고, 천(仟),지(地),인(人)에서 땅을 의미한다.

청색은 창조, 신생, 생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기가 강하다. 양기는 기운은 말하는데 만물이 움직이거나 살아나려고 하는 기운이다. 우주의 만물이 생성 발원하는 원천적인 힘이다. 이 힘에 의하여 온갖 종류의 생명이 그 형태를 드러내거나 빈 공간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운이 쇠퇴해 가거나 죽어가는 목숨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청색과 관련된 물건이나 청색 계열의 물감을 사용하였다.

청색은 적색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청, 녹, 감 등의 개념으로 쓰여지는 색으로 청색은 승화의 빛이요 피안의 빛이므로 초월, 지양, 희망을 상징한다. 이것은 인간이 하늘빛과 물빛을 삶 속에서 함유하는 경지를 의미한다. 또 청색은 방위로는 해가 떠오르는 동방에 해당되고 하늘과 무성한 식물 등을 상징하는 색으로 계절로는 만물이 생성하는 봄인 까닭에 청색은 청정한 생명을 상징하며 양기가 왕성한 색으로 간주 되었다.

아기가 출생하면 문전에 송죽의 푸른 가지와 빨간 고추를 꽂고, 금침의 잇색으

로 남색을 쓰며 사주보는 청색과 홍색 비단으로 한다. 또 서낭당을 지나 갈 때는 돌이나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 길하기를 바란다. 이는 청을 청정한 생명의 상징과 강한 양기(陽氣)를 가진 색으로 여겨 적색과 함께 사(死)와 음(陰)을 물리치는 벽사기복(辟邪祈福)의 색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귀신을 쫓거나 괴질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었다. 청색은 정신적인 영역에다 육신의 성장과 번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시종교의 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성과로는 발생에 속하며 인간의 선함을 관장하는 색이다.

청색은 물, 식물 등이 생명을 상징하며, 창조, 불멸, 정직, 희망을 뜻한다. 복숭아, 대나무, 소나무 등의 식물은 청색을 상징하는 자연적인 색이며 약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식물이 성장할 조건을 갖추면 청록색이 된다. 청색과 녹색은 자연의 색이다. 청록(靑綠)의 식물이 있는 곳은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 곳이므로, 청록색은 고마운 색, 아름다운 색으로 인식되었다. 청색의 사용의미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기원이 아니라 더 넓고 높은 영원한 차원에 도달하기 위한 발원이며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으로는 답답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는 색으로 인식되기도 한 청색은 역시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양기(陽氣)가 풍만한 색이었음을 느낀다.

3.2. 백호(白虎)와 백색(白色)

① 백호(白虎)

고대의 중국의 신화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음양의 기(氣)를 띤 오행 가운데 서쪽의 신수(神獸)로 정해진 것이 백호(白虎)이다. 음양의 이치로 볼 때 서쪽 방위와 추운 계절을 의미하는 상징수인 백호(白虎)를 <백중경>에서는 좌 방위의 서쪽인 금, 계절로는 가을, 오행으로 형벌을 관장하는 신미여 바람을 분리 비로 변하게 하고[호풍환우(呼風喚雨)], 불을 두려워하는 음기의 상징수라 하였다.

동이(東夷)문화 에서는 서쪽으로 해가 지니 서쪽은 죽음의 땅, 고비사막이며 모래의 흰색이요 장수는 백호이다. 여기서 호랑이가 불을 두려워 한다함은 오행 상극설에 의하여 화극금(火克金), 즉, 물로서 금을 제압한다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음양의 이치로 볼 때 호랑이는 음기(陰氣)의 상징 수(水)인데 반해 불은 강한 양기(陽氣)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이 음을 우선한다거나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 있다는 의미로 보겠다. 이 호랑이는 음양의 구분에 따라 음기(陰氣)를 가지면서도 그중에 음의 상위(上位)라 할 1음에 해당되는데<본초강목(本草綱目)>26)에서 호골(虎骨)을 풍병 치료제로 쓴다고 한 것이라든지 범의 수염이나 털을 태워 먹으면 중풍의 효험이 있다고 한 것 등은 바로 오행상으로 볼 때 바람인 풍(風) [중풍, 풍병]은 목(木)이고 호랑이는 서쪽의 금(金)에 해당하므로 오행 상극에 의해 금이 목을 눌러 이겨서 [금극목(金克木)]병이 치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풍수지리에서는 주산(主山)에서 갈려나간 오른쪽 산맥으로 금의 기운을 맡은 태백(太白)신을 의미한다. 또한 백호(白虎)의 발생되는 기운은 재산과 여성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백호(白虎)가 기능을 다하는 지역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 데, 딸은 물론 며느리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 여성의 체질이나 성격에도 반영되어 백호(白虎)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부모를 효도하며 가문을 위해 정절을 바치는 여성이 나오는 반면, 등을 돌리고 있는 산세에서는 딸이나 며느리가 가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뒷면을 보이는 배반 격인 경우에는 재물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② 백색(白色)

백색은 소, 지색 이라고도 하며 결백과 진실, 조락과 쇠퇴를 의미한다. 방위로서는 서, 계절로는 추, 오행으로는 금, 풍수로는 백호를 뜻한다.

26) 중국 명나라 때 본초학자 이시진(1518-93)이 엮은 약학서, 52권, 1596년 간행. 이 책은 저자가 혼자의 힘으로 30년에 걸쳐 집대성한 것으로, 원고를 고치는 일만 3차례 하였다고 함.

인간상으로는 옳음과 의리, 감정으로는 분노, 맛으로는 매운맛, 장기로는 폐를 나타내며, 오방신으로는 백제(白帝)장군을 뜻한다. 그리고 상징하는 동물로는 백호(白虎)이다.

신화적으로는 백색은 출산과 태기를 상징하고, 상스러운 정조를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백색은 순결, 청신, 순수, 깨끗함을 상징한다. ‘해모수’, ‘주몽’, ‘박혁거세’, ‘김알지’의 출생신화가 그렇고, 백산의 신은 ‘밝달검’이며 ‘밝달’은 우리말의 음운변화로 배달이 되는 것도 그렇다. 또한 전시에는 진영에서 오른쪽 문에 백호기를 세워 우군이나 우영을 지휘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 서낭신에게 길지 또는 폐백으로 백색의 한지를 오렸는데, 이들은 모두 색색의 신성을 미화한 것이다.

백색은 순결과 청렴을 상징하고 빛을 의미하여 태양숭배를 하는 민족들이 신성시 하였던 색이다. 또 백색은 대대로 흰옷을 즐겨 입었던 한민족과도 관계가 깊은 색이라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한민족의 백의상용에 대하여 그 연원을 연구 한 바 있는데 대체로 흰옷을 주로 입었던 까닭을 모아본다면 ‘밝음, 백’등을 의미하는 밝음 사상에 근거하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과 한민족이 가진 본래의 기질과 정신에 의해 청렴결백 이라든가, 학, 백자 등에서 보이는 희고 순수한 색을 즐겨했다는 설, 유교에 관혼상제에 의해 사자의 저승길을 밝혀 주는 하양 상복에서 흰옷이 유래되었다는 견해, 또 각종신분이나 직위별로 녹색을 규정하였고 서민에게는 아무런 색채를 띠지 않는 소복을 입게 하였다고 하는 설, 마지막으로 당시 염료가 비싼 까닭으로 바탕색 그대로인 백색 옷을 입게 되었다는 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백색은 순결과 청렴을 상징하고 빛을 상징하며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백색을 신성시 하였다 우리민족의 백의를 즐긴 것도 역시 진실과 결백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높다.

풍수지리 색채 중에 서쪽을 나타내는 빛깔로 해가 지는 곳, 음기를 상징하며 상복으로 주로 이용 되었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을 청정(淸淨)한 천국으로 호송

한다는 의미²⁷⁾를 지니고 있다. 사별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속을 벗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도 있다.

백색은 실제 완전히 빛이 반사된 순백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다른 색상과 비교하여 희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백색이 갖는 정서로서는 환희, 명쾌, 순결 등이며 태양의 광명을 표시하는 의미로 흰빛을 신성시하기도 하였는데, 이 점은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색채관에서 의미가 깊어진다. 역학에서 말하는 태극은 극의 움직임에 따라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생기며 처음의 출발 준비적 태세가 음이 되고 그의 발동이 양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을 기본으로 새서 동이 생기는 것이 사물의 자연적인 순서라고 생각하고 백색을 색채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고, 불생불멸과 영구불변 하는 기백을 가졌다하여 백의민족, 배달민족의 유래가 된 것이다. 백색은 순색이라고도 하여 결백과 진실, 삶과 낯, 순결 등을 뜻한다.

3.3. 주작(朱雀)과 붉은색(赤色)

① 주작(朱雀)

주작(朱雀)은 봉황과 같은 의미를 통한다. 봉황(鳳凰)은 양(陽)의 기(氣)를 나타내는 태양의 사자(使者)인 봉(鳳:수컷)과 태양 속의 신조(神鳥)인 황(凰:암컷)을 관념상 하나로 합친 태양조이다. 또 풍수지리 색채의 화려한 색과 오음[五音;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을 갖춘 상지조로써 양(陽)의 기(氣)를 지닌 적색 상징의 영수로 표현된다. 고대사회로부터 태양과 불 그리고 새를 토tem으로 하는 부족의 상징으로 쓰였다고 하는 봉은 물의 정(靜)으로서 동방군자의 나라에서 왔으며 사해(四海)밖까지 날수 있고 머리는 덕(德),목은 의(義),등[背]은 인(仁)을 심장은 신(信)을, 날개는 의(義)를 지닌 ‘오행상징조’로 표현되기도 한다.²⁸⁾

27) 김수석 역, 색채의 예술, 서울 지구문화사, 1994. p.18.

동이문화(東夷文化)에서 남쪽은 집을 방향으로 두는 이유 즉 빨간 해가 있기 때문이요 주작(朱雀)이 장수를 이야기 한다.

풍수지리에서 주작(朱雀)은 혈관의 하부, 곧 전순부터 멀리 있는 조산 사이에 있는 산을 모두 말한다. 주작(朱雀)중에서 집터 가까이 있는 안산은 재산, 지위, 평판 같은 기운과 연관된다. 그래서 주작(朱雀)이 좋은 집터에서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朱雀)이 나쁜 집터에서는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물러나는 등 명예를 더럽히게 된다.

주작(朱雀)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현무가 주인이라면 주작(朱雀)은 손님 또는 보조자로서 현무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안산과 조산에서 생기를 보내는 지세에서는 매우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며, 명예와 재물까지 동시에 얻게 된다. 거리면 에서 보면 안산은 집터에서 가깝고 조산은 집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안산에서 발생하는 기운이 먼저 작용하고, 조산에서 발생한 기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전달된다. 따라서 책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계급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 했고, 이러한 높은 신분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안산은 신분의 높고 남음과 연관이 있다. 안산의 형태는 주택의 길흉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산의 형태가 안정되고 힘이 있어서 바가지는 얹어 높은 것 같으면 부자가 배출되고, 문필봉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관직으로 출세하는 인물이 나온다. 반면, 안산의 형태가 불안하거나 흉하면 흉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지세는 안산은 남산이며, 조산은 관악산이다. 경복궁에서 바라볼 때 관악산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더구나 한강은 남산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화산인 관악산의 영향을 피라기 위해 광화문 앞에 해태 석상을 세운 것처럼, 조산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도 안산과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28) 왕대유, 임동석 역. 용봉문화 원류, 동문선, 1994, p.56.

수 있다.

② 붉은색(赤色)

붉은색은 생명의 근원으로 믿어져 왔고 신성, 신비, 두려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적색은 곧 생명에 대한 숭배의 증거물이 되고 생명을 낳고 지키는 힘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적색은 붉다는 개념에 포함되는 적(赤), 홍(紅), 주(朱)를 총칭하고 있다. 방위로는 남, 계절로는 하, 오행으로는 화, 풍수로는 주작, 신명(神名)은 축융(祝融)을 뜻한다. 적색은 따뜻한 남쪽을 뜻하므로 만물이 무성하고 양기가 왕성하여 태양과 생명을 의미한다.

붉은색은 오행에서 불(火) 상징하고 방향은 남쪽이며 계절은 여름을 나타낸다. 인간의 상으로는 예의 바름, 감정으로는 즐거움, 맛으로는 쓴맛을, 장기로는 심장을 나타내며, 오방신으로는 적제(狄鞮)장군을 뜻한다. 그리고 풍수지리에서는 남쪽을 주작(朱雀)이라 하는데, 붉은 봉황을 형상화하여 무덤과 관의 앞쪽에 배치하고, 천(天),지(地),인(人)에서는 하늘을 의미한다.

붉은색은 타오르는 태양의 생명력을 담은 색이라 하여 양기(陽氣)를 상징하는 색이다. 또 태양, 불, 피(血) 등을 상징하는데 가장 강한 벽사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색이기에 민족의 색으로 대두 되었다. 이런 이유로 부적(符籙)을 그릴 때 쓰는 유화 제2수는, 즉 단사가 붉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자 아이들이 봉선화로 손톱을 빨갱게 물들이는 것도 벽사의 의미에서 시작 되었고 왕의 곤룡포도 붉은 비단으로 지었다. 역시 붉은색은 벽사와 길상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죽음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혼례 시 신부 얼굴에 연지, 곤지. 청색과 함께 반드시 붉은 천이 사용된 사주단자. 아기를 낳았을 때 다는 금줄의 붉은 고추도 적색의 강한 양기를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지에 먹는 팔죽이라든가, 집을 지을 때 쓰던 붉은 황토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벽사(辟事)란 인간을 괴롭히는 천재지변, 병마, 액운, 맹수 등을 쫓는다는

뜻이다. 벽사신앙의 색채적 주술성은 인간과 악마의 투쟁을 마술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벽사신앙²⁹⁾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적색이나, 적색으로 이루어진 물건들은 삶을 보다 더 인간적이도록 만들었다. 이 외에도 가축이나 인간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또한 집안, 마을, 나라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데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목적으로 사용된 붉은 색은 집, 음식, 옷가지, 노리개뿐만 아니라 전통미술에 잘 표현되고 있다.

붉은 색은 온화하고 만물이 무성한 남방에 해당되고 성과로는 성장에 속하며 인간의 예(禮)를 관장한다. 또 만물이 무성해서 양생기(陽生記)가 왕성한 곳으로 양(陽)이 음(陰)보다 우세할 때 복(福)이 온다고 하였다. 붉은색을 사용하는 의도는 귀신으로 대표 되는 음을 양으로 물리치고 막는다는 의미로 오색실, 색동저고리, 부적 등에 귀신이 싫어하는 붉은색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무병과 집안의 안태(安泰)를 얻으려는 일반 사람들의 정서를 형상화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홍, 주, 황색과 유사색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3.4. 현무(玄武)와 검은색(黑色)

① 현무(玄武)

현무(玄武)는 거북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 거북은 예로부터 장수하는 고령 동물로 오행설에 천년을 사는 동물로서 인간사의 길흉을 짐작할 수 있는 영수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사(四)방위의 북쪽에 위치한 방위신인 현무도 음양오행설에 따라 그 상징 의미가 설명되어 질수 있다. 음양설에서도 혼돈인 태극상태로부터 발생된 양기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음기는 땅이 되었다고 했다. 이 양기가 썩여 화(火)가 되고 화의 정(精)은 태양이 되며 또 음기의 집적은 수(水)가 되는 데 이 수(水)

29) 벽사란 인간을 괴롭히는 천재지변, 병마, 액운, 맹수들을 쫓는다는 뜻이다.

의 정(精)은 태양이 되며 또 음기의 집적은 수(水)가 되는 데 이 수(水)의 정(精)이 모여 달이 되었다. 이때 수는 암흑, 겨울, 태극 도사의 감괘(坎卦), 구멍 등을 의미하고 방위는 북(北), 시(時)는 밤, 빛같은 검정을 나타내는 데 거북을 음기운 수를 상징하여 고분벽화에 표현한 것이 현무이다.

예 건물의 대들보를 보면 상량문에다가 ‘거북 구(龜)’자를 거꾸로 적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거북 (水) 이 건물의 화재 (火)를 막아준다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거북이 가진 물 (水)의 상징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거북은 우주 창생 신화에서 부계(父系)의 하늘 (陽)의 상징물로서 그 위치는 가장 낮은 3음에 속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음과 양의 관계를 통해 양을 추구하는 음의 영원한 순환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파악될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 현무(玄武)는 혈(穴)에 지기(地氣)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사신사(四神沙)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현무(玄武)가 사신사 가운데 주인 역할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된다. 따라서 산세규모나 기상이 청룡, 백호, 주작보다 크고 힘차야 하며 주룡(主龍)에서 개장과 천심 등 여러 변화 과정을 이루는 생룡(生龍)이어야 한다.

현무(玄武)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生氣)를 갖고 있어,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되는데, 주작이 사회적인 평판이나 여론 등 외부적인 기운을 주는데, 반해 현무는 내부적인 힘을 만들어 준다. 예를 들면 한 자세에서 현무(玄武)는 생기를 만들어 주고 주작은 그렇지 못할 경우, 능력은 우수하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 배출된다. 반대로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사회적으로는 인기를 얻는 사람이 배출된다.

② 검은색(黑色)

검은색은 오행에서 물을 상징하고 방향은 북(北)쪽이며 계절은 겨울(冬)은 나

타낸다. 인간의 상으로는 슬기로움, 감정으로는 슬픔, 맛으로는 짠맛, 장기로는 신장을 나타내며, 오방신으로는 흑제(黑帝)장군을 뜻한다. 그리고 상징하는 동물로는 풍수오행사상에서 신수를 의미하는 현무도가 그려져 있다.

흑색은 방위로는 북, 계절로는 동, 오행으로는 수, 풍수로는 현무를 뜻한다. 그리고 북방의 흑색은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은색은 오(烏), 회, 흑색이 포함되며 중국에서는 현색(玄色)이라는 것이다. 흑색은 빨간색을 내포하고 다시 빨간색이 노란색을 내포하고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묘 자리가 아무리 명당의 형국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땅을 파 보아 흙빛이 검정일 때에는 물이 나오므로 자손이 빈천하게 된다하여 금기시하고, 음양오행에서도 검은색은 음의 대표적 색으로서 암흑, 죽음, 부정, 음흉 등의 뜻을 나타낸다.

검은색은 ‘검’은 ‘검다’의 어근이 된다. 고대에는 ‘검’이라는 말이 명사로서 ‘黑’의 뜻을 지녔다. ‘검다’는 명사 ‘검’이 형용사로 바뀐 것이다. ‘가마귀(烏)’의 ‘가마’는 ‘감’에 ‘아’가 붙은 것이다. 즉 까마귀는 검은 색을 의미하고 고분벽화에서는 ‘삼족조(三足鳥)’로서 천조이며 태양을 상징한다.

검은색은 오행중 수(水)로서 위에서 아래로 스며드는 물처럼 음유(陰柔)한 성질을 가졌다고 한다. 성과로는 저장(貯藏)에 속하고 인간의 지혜(智)를 관장하며 은밀하고 현묘함을 좋아한다. 또한 검은색은 북방을 가르키고 어두운 밤, 죽음, 죄악, 슬픔, 신비로움을 연상하기도 하나 현색이라고 하여 검정색을 기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모든 빛깔을 간직한 잠재 되어 있는 가능성이 색으로 인식하여 표현 하였다.

인간의 감각에서 검은색이란 단순히 빛을 잃음에 따라 느끼는 색이라기보다는 빛의 자극이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색을 동시에 봄에 따라 비로서 검게 보이는 색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 검은색은 예부터 어느 민족이든 다른 색의 뜻에 대한 부정적 상징으로 되어 있다.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으니까 검은색에서

어두운 밤, 죽음, 죄악을 연상하고, 신비로움이나 슬픔, 장례식의 상징으로 쓰고, 흑백하면 악과 선, 불의와 정의를 뜻한다.

시각적으로 소극적인 수축색이며, 이 소극적인 효과가 인접한 색을 돋보이게 하여 고급스럽다든가, 세련되었다든가 하는 예외적인 좋은 인상을 주는 면도 있다. 작품에서 붉은색, 청색, 황색 등의 색상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세련된 감각을 느끼게 한다.

3.5. 혈(穴)과 노랑색(黃色)

① 혈(穴)

한의학(韓醫學)에서는 인체의 바탕이 되는 피의 순환구조를 경혈(經穴)과 혈맥(血脈)으로 본다. 인체의 혈맥은 풍수지리에서의 산줄기에 해당되고, 인체의 경혈은 풍수지리에서의 혈자리이다. 산줄기가 혈맥관계에 비유되는 것은 한수(漢水), 낙수(洛水)라는 물줄기인 혈(子)에 산줄기 이름을 붙은 한북정맥(漢北正脈), 낙동정맥(洛東正脈)등에서도 알 수 있다. 인체의 경혈은 침을 놓은 자리로, 침의 시술 시에 정확성을 요한다.

풍수지리에서의 용(龍)은 선(線)이고 풍수지리에서의 혈 자리는 점(點)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에서도 혈 자리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한다. 또한 혈(穴)에 생기(生氣)를 만들어 주는 사신사, 곧 청룡·백호·주작·현무 등은 각각의 생기(生氣)를 가지고 혈(穴)의 생기(生氣)를 만들어 주고 있다.

② 노랑색(黃色)

노랑색(黃)은 오행에서 흙(土)을 상징하고 방향은 중앙이며 계절은 늦은 가을을 나타낸다. 인간의 상으로는 믿음, 감정으로는 욕심, 맛으로는 단맛, 장기로는 비(鼻)를 나타내며, 오방신은 황제(皇帝)장군을 뜻한다. 그리고 상징하는 동물로

는 황룡(黃龍)이며, 천(天),지(地),인(人)에서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랑색(黃)은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므로 가장 존귀한 상징색으로 여겨져 왔다. 삼라만상의 모든 빛을 포용한 색이며, 인간의 믿음을 관장하는 노랑색(黃)은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상징으로써 황제나 임금만이 이 색으로 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고분에서 발견된 왕이 쓰는 왕관이나 그 밖의 부장품이 금을 재료로 하는 것도 이 노랑색(鳳)의 상징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오행에서는 땅 빛을 황으로 나타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황천이라 하였고, 분신, 배신, 죽음, 황폐, 질투, 무기력 등 부정적 의미로 여겨져 왔다.

노랑색(黃)은 잘 익은 곡식, 정신의 성숙, 용기, 지조, 순결, 사랑, 지성, 평화 등 긍정적 의미를 상징한다. 황금은 존엄과 부귀의 상징이고 임금의 옷은 노랑색 등 긍정적 의미를 상징한다. 황금은 존엄과 부귀의 상징이고 임금의 옷은 노랑색(黃) 곤룡포에 황룡을 금실로 수놓아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였다. 또한 노랑색(黃)은 풍수의 오색 중 중심 색이고, 방위로는 중앙에 해당하며 4계절에 모두 연관되어 있다.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므로 풍수의 오색 중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었다. 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땅을 상징한다.

노랑색(黃)은 빛깔로 땅이 평평하며 늘 젖어 있어서 만물이 잘 자라는 곳이라 했다. 그리고 존귀함, 권위, 세상의 중앙을 나타내는 왕의 상징 색으로 권위의 상징의 표현이다. 노랑색(黃)은 지구에 있어서 태양의 궤도가 되고 태양과 가장 가깝다는 뜻에서 일명 “황도”라고 일컫으며, 광명과 생기(生氣)의 정화로 보았으며, 금, 지황, 토황, 자황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밝고 성스러움을 표현하며,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색채관이 형성되어 황제의 색으로 고귀함의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초기의 종교적인 회화에서 성자의 배광 색으로 쓰여 지기도 했다. 흙을 상징하는 황토는 결국 생명의 원천이며 생산과 재생산을 상징한다.³¹⁾

30) 박용숙, 한국미술의 기원, 예경출판사, 1990, p.208.

31) 하용득, ibid, p.208.

노랑색(黃)은 팽창색, 진출색이기도 한 황색은 눈에 보다 잘 띄이고, 주목성이 높다는 성질, 즉 시각적 전달효과가 대단히 뛰어난 색이라는 점에서 상업적 측면에서도 대표적인 색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편리하고 경제한 생활과 경제반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채도, 명도가 높아서 눈에 잘 띄고 주목성이 높으므로 특히 검정색과 대비되어 시각적 전달효과가 대단히 뛰어나다. 그리고 같은 크기로 비교했을 때 다른 색보다 더 크게 보이는 팽창색이며 본래의 거리보다 가까워 보이는 진출 색으로 작은 면적에서 더 돋보이게 한다.

<표7> 풍수지리에 의한 색채

색상	청(청색)	적(붉은색)	황(노란색)	백(백색)	흑(검은색)
상징동물	용	봉황, 주작, 공작새	사람	호랑이	거북이
방위	동	남	중앙	서	북
오행수	3, 8	2, 7	5, 10	4, 9	1, 6
계절	춘	하	사계	추	동
풍수	청룡	주작	혈	백호	현무
음양	양	양		음	음
오행	목	화	토	금	수
신체	陰;간-陽;담	심장-소장	비-위장	폐-대장	신장-방광
의미	창조, 탄생 생식	생명력	소생, 부활	조락, 쇠퇴	암흑
역할	태양을 떠오르게 한다. 모든 생명체를 탄생하게 한다.	태양의 뜨거운 빛을 발산한다. 생명체를 사망으로 발산, 활발하게 활동한다.	사신들의 업무를 조정, 균형한다.	태양을 저물게 한다. 생명체의 죽음을 주관한다.	태양의 기운을 감추는 동시에 죽음에 이룬 생명체가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생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풍수지리의 핵심은 기(氣)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기(氣)는 색

으로 해석되며, 음양오행, 삼신오제로 해석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하였다. 풍수 지리의 색채의 의미와 상징성은,

첫째, 색(色)은 기(氣)를 나타내며, 이 기(氣)는 인간이 색에 의해서 기(氣)의 자극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색의 상징성은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한국인의 색채를 기본적인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또한 풍수지리로 분석한 것을 제시 하였다.

풍수지리에서의 색채 의미와 상징성은 이상적 디자인의 근거 자료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상적인 색채구성은 색의 속성에 있어 음기(陰氣)와 양기(陽氣)로 되어 있음으로 음양(陰陽)을 같이 사용하여 중화 시키면서 이상적인 디자인을 창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풍수지리 색의 계승과 적용은 경험 과학적 논리체계로서의 '자연-인간-색'의 유기체적 해석이 예술의 체계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풍수지리에서의 색채에 대한 이론을 정리함으로서 동양의 철학적 배경과 새로운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양의 오래된 철학에 나타난 이러한 자연의 힘, 즉 기(氣)와 색채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해석이다.

Ⅲ.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의식

1. 풍수지리 색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색채의식

풍수지리 색채에서 한국인은 색채를 생활 속에서 사용할 때에 어떠한 사상을 바탕을 두었던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실용주의 학문이 도입된 것은 1876년경이었으니 19세기 중엽이 된다 (1830년을 19세기 시작으로 보았을 때).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과학적 세계관에 눈뜨기 시작한 개항 전까지의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지배하였던 것은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바탕을 둔 사상체계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는 모두 이러한 사상체계에 의한 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창기의 표시로 입었던 붉은 치마(계급표시로서의 색채사용의 예)도 적상(赤裳)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홍상(紅裳)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신은 양(陽)이므로 양의 색을 사용해야하고 하반신도 음(陰)이므로 음의 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정상간(衣正裳間)이라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철저히 실천했기 때문이다.³²⁾

인간 과학과 자연과학에 바탕을 둔 색채에 대한 발전적 생활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국인은 어떠한 색채사상을 가졌으며, 또 어떻게 생활 속에서 색채를 사용하였던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32) 한국 전통 표준 색명 및 색상연구, 1차 시안, p.21.

1.1. 한국인의 색채관

선사시대에는 자연에 대한 공경심에서 샤머니즘적인 색채관이 지배적이었다. 먼 옛날 세상에 처음으로 인류가 나타나고,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자연은 시로 경이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신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불가사의였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절대시, 신성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기상의 변화, 야수의 전략, 굶주림 등 최초의 인류가 겪었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자연으로 인식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자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어졌기 마련이다. 한국인은 자연이 베풀어 준 색에 대해서 순수하게 순응하여 그대로 상징하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자연관이 곧 그들의 우주관이 되었고 또 그러한 우주관이 바로 샤머니즘과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샤머니즘이란 일(日), 월(月), 성(星), 신(神)의 운행, 천기, 암석, 수목, 호연 등의 자연현상을 비롯해서 전쟁, 수렵, 작물의 풍흉, 질병, 음양, 색채, 향취 등의 모든 존재와 사건과 물상이 신의 소산이며 이런 것들은 오로지 주술에 의해서만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믿는 사상이다. 샤머니즘은 신령이 실재하여 샤먼이라는 주술자에게 붙어, 주술자는 산에게 소속되고, 신으로서 행동하여 악귀를 쫓고 인간에게 복지를 가져온다는 민간신앙이다.

샤머니즘은 원시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민간층에게 깊이 파고들어 폭넓은 종교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샤머니즘에는 주술적 효용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색채의 주술성은 원시인의 색채의식을 잘 보여준다. 즉 귀신이 싫어하는 색채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는 색채 자체의 의미보다 색채 자체에 상징성과 의미를 부여하여 상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고, 주로 풍수의 오색이 사용되어졌다.

인간들이 미(美)에 대한 감각이 다양한 것은 각자가 처한 자연환경의 차이와

타문화와의 교류에 의한 영향으로 비롯되었다. 인간은 자연의 소산이고 그 곳에서 생화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미(美)의 개념 역시 자연을 기준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연환경의 차이는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 미의식(美意識)을 가지게 하였고, 그들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우리 민족의 조형의식과 색채관은 역시 한반도의 자연적 특성과 타 문화와의 교류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음양오행설이 모든 생활에 침투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한 색채관이 정립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주생성이 이념을 기초로 발전한 것이며, 우주의 본원이 음(陰), 양(陽)의 두 기(氣)에 있다. 천지만물의 화정은 이 두 기(氣)로 이루어졌다는 역학의 이론과 천문학적 철학으로 발전한 것이 소위 음양오행사상이다.³³⁾

이 사상체계는 색채의식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어 색채를 풍수지리에서의 색채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자의 철학사상에 바탕을 둔 유교적 세계관이 사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전시대와는 변모된 양상을 보여준다.

즉, 유교적 질서의 확립은 귀족과 서민사회를 확연히 분리하였고, 이러한 준비 표현의식(尊卑表現意識)이 음양오행사상과 결합되어 색채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응용되었다.

1.2. 한국인의 색채와 문화

색채 해석에 있어서 ‘한국인의 색(color)을 어떠한 언어와 의미로 표시하여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색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심리적 상징을 구사하는 경험으로서의 색(色)을 말할 때는 더욱 그렇다.

색(色)이란 언어는 한자의 표현이다. 순우리말로 색은 빛깔이다. 한국인은 색채

33) 하용득, 한국인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9, p.35.

라는 말보다 ‘색깔’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색깔’보다는 곧 빛으로 인식하였고, 한국의 색채문화는 곧 빛의 문화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빛은 곧 생명을 의미하며 이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 빛깔을 가진다는 것은 빛과 그 빛의 성질로써 이미지의 ‘깔’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상과 자각자간의 관계는 빛으로 맺어진다. 정신은 빛으로, 빛은 정신으로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빛깔을 넣어 인간과 자연의 사물들을 올바르게 비추기 위해 자신의 빛깔, 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빛의 시각적 현상을 표현하는 언어가 많았으며, 언어에서 빛에 대한 관심은 생활 가운데 은유를 통해 의미론적이며, 상징적으로 깊이 베어져 왔다. 흰색을 좋아한다 함은 흰빛을 좋아 하는 것이며, 흰빛은 곧 담백한 빛깔을 말한다. 이 담백한 빛깔은 곧 격의 빛깔이므로 담백, 의미는 담백한 빛깔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색채에 대한 개념에서도 앞에서 연구 되었던 바와 같이 서양과 우리는 틀리다. 서양에서는 ‘sky blue’ ‘marine blue’, ‘field green’ 등으로 구별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도, 바다도, 들도 ‘푸른 빛깔’로 말하며 인식한다. ‘푸르다’라는 말은 빛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깔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빛깔과 문화의 경험을 통해 맺어진 상징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색채 개념은 오늘날 한국인도 Green-Blue계를 포괄적으로 푸른색, 한 가지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란 도구들의 의미 체계이다. 빛깔도 나-우리라는 생활 속의 도구 체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에 의한 특수성이나 빛깔의 물리학적 일반법칙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며, 도구 개념의 변화에 따른 동사적 해석과 의미의 관계와 그에 따른 변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⁴⁾

물리적 측면에서도 빛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구조의 개념이 문화마다 다

34)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1998. p. 239.

르다. 같은 동양권이라도 중국과 일본과도 확연히 차이가 나며, 미국이나 유럽은 색채에 대한 구조적 개념이 서로 다름으로서, 같은 색상이라도 채도와 명도가 다르고 색상의 배열과 순서가 다름으로 전혀 다른 구조의 개념으로 지각되어 오기 때문에 한국인의 빛깔을 회묵하고, 한국인의 고유한 빛깔의 미적 가치 확립하여 이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한국 전통표준 색명, 색채에 의하여 풍수지리 색채를 살펴보면,

①붉은색계-적, 적단, 주, 자, 단, 담주, 적토, 주토, 휴색, 갈색, 괴색, 심행색, 장색, 추향색, 호박색, 홍색, 갈금색, 장단, 석간주, 육색, 비색, 비홍, 강, 훈, 전홍, 다홍, 주홍, 도홍, 다홍, 목홍, 선홍, 진홍, 심홍, 천홍, 궁홍, 분홍, 진분홍, 천담홍, 정홍, 소홍, 연홍, 은홍, 금향색, 연지색, 반홍, 토홍, 심도홍, 채홍, 모란색, 홍단, 연분홍, 주홍, 흑홍.

▶ 빨강³⁵⁾

정색의 하나인 빨강은 남쪽과 여름의 색을 나타낸다. 빨강 계열을 낼 수 있는 천연 염료 방법으로, 이 꽃에 의한 홍염 염색법을 사용해 왔다. 이 꽃은 국화과의 두해살이풀로 빨강 물감의 원료가 된다.

예부터 빨강은 주술적 의미로, 나쁜 병을 막기 위해 벽이나 기둥에 붉은 칠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팔의 붉은색이 액막이가 된다고 여겼으며, 간장을 담글 때 빨간 고추를 띄웠고, 아들을 낳았을 때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문 밖에 붉은 고추를 다는 등 우리 민속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빨강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인 오방정색의 빨강 이전에 우리 민족이 일찍이 사용해 온 것으로, 진취적이며 힘을 나타내는 색의 의미처럼 고구려 민족성을 대표하는 색이다.

- 고추

35) 이재만, 한국의 색, 일진사, 2005.

고추는 한국에 17세기 초엽에 전래된 식품이다. 「지봉유설」에 고추가 일본에서 전래되어 ‘왜겨자’라고 한다는 기록이 잇는 것으로 보아,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빨간색이 태양이나 불을 상징하며 잡귀를 쫓는 빛깔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빨간색의 고추는 악귀를 쫓는 의미로 쓰였다.

- 의장구

조선시대 왕들이 입었던 곤룡포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과시하는 의장구들은 시각적으로 권위의 힘을 전달한다. 의장물 중에서 권위의 상징성을 가장 잘 집약한 것이 어보(御寶,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다. 도검(刀劍), 사명기(司命旗)등은 힘을 통한 권위를 보여주는 의장물이다. 의장물에 달아둔 유소장식은 절대 권위가 영속하기 기원하는 권력가들의 염원을 엮은 또 다른 의미의 힘과 영원의 상징이다.

- 팔죽

팔죽은 동짓날에 먹는 음식으로, 팔을 삶아 으깨거나 채에 거른 뒤 그 물에 참쌀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넣은 죽이다

동짓날에 팔죽을 문이나 벽 여기저기에 뿌려 두는데, 이것은 팔죽의 붉은 빛이 나쁜 악귀를 쫓아낸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초상이 났을 때나 이사했을 때 액운을 막기 위해 팔죽을 쭈어 집 안팎에 뿌리고,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

▶ 주홍

오간색의 하나인 주홍은 붉은빛과 누른빛의 중간으로 붉은 쪽에 가까운 빛깔을 말한다.

- 석류 화채

연한 붉은 빛을 띤 석류차는 새콤달콤하면서도 씹살한 향을 지녔으며, 맛과 향이 풍부하면서도 깔끔하다. 비타민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껍질을 달인 물은 감기에 효험이 있다.

석류는 붉은 꽃이 피어 빨간 열매로 익고, 속에 든 씨껍질도 붉은색이다. 또한 안에 많은 종자가 들어 있어 다산(多産)의 상징이 된다.

흔레복인 활옷이나 원삼에 포도, 석류 동자 문양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포도와 석류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자손을 많이 낳고 특히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기복적(祈福的) 뜻이 담긴 것이다.

- 활옷

조선시대 공주나 왕자가 입던 대례복(大禮服)을 ‘활옷’이라고 한다. 활옷에는 연화, 모란, 봉황, 원앙, 나비, 십장생 등의 무늬를 수놓는다. 구성은 뒷길이 길고 앞길이 짧으며(무릎선 내의) 깃이 없고 동정이 넓다.

▶ 주황(등색, 橙色)

주황은 우리말로 등자나무의 열매라는 뜻으로 등색・울금색으로 써 왔으며, 붉은 색이 많으면, 등적색, 노란색이 많으면 등학색 또는 황주라고 하였다.

주황은 단순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다. 또한 눈에 잘 뜨인다는 시각적 효과 때문에 안전색채로서 위험을 표시하는 색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아시아에서 특히 불교국가에서 주황은 광명을 의미하는 최고의 고귀한 색으로, 동남아시아 승려복과 사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색이다.

- 감

감은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재배한 과일로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에 경상도 고령에서 감을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옷색(漆色)

중국에서는 옷색을 검정・빨강・노랑・금색 등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검정을 나타낸다. 옷나무 생즙이 사람 몸에 닿으면 독이 되지만 이것이 나무나 쇠붙이, 가죽 또는 어디든 일단 칠해지면 색깔이 좋아지고 윤이 나며 별레가 생기지 않고 습기에도 강해져 귀한 물건이 된다.

옷의 천연 도료는 특유의 광택과 재료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특성으로 예부터 사랑을 받아 왔으며, 현대에도 옷에 비료될 만한 도료는 없다.

옷색은 검정 • 갈색 • 빨강 •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의 복합체로 나타난다.

▶ 갈색

조선중기 이후 황토로 물들인 무명천의 색을 갈색이라 하였다. 하얀 옷을 황토로 물들인 의복은 우리 전통색 중 하나로 자연의 색이다.

갈색은 풍부 • 풍성함의 색이며, 흙의 색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자연의 색이다. 밝은 갈색은 자연적인 통나무의 색이고, 어두운 갈색은 딱딱한 나무와 가죽을 표현한다.

갈색은 자연 그대로의 색으로 전통적인 고풍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 향아리

향아리의 색은 바탕흙의 재료나 소성방법, 유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바탕흙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철의 양이 큰 작용을 하는 데, 철화합물은 산화성 불에는 갈색이나 붉은색 또는 밤색 계통의 색을 낸다.

우리의 전통 가온은 대부분 부엌과 가까운 집 뒤의 높직한 곳에 장독대를 둔다. 장독대 위에 향아리는 같은 계통의 색인 한옥과 서로 잘 어울린다.

- 밤

우리나라의 밤은 서양 밤에 비해 육질이 좋고 단맛이 강해 우수한 품종으로 꼽힌다. 주로 중 • 남부지방에서 생산한다.

- 한옥

단청되어 있지 않은 한옥은 온화하면서 고풍스러움이 있다. 궁궐과 사찰, 그리고 한복 등이 색상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한옥은 자연의 신비와 우리 민족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신비로움이 있다.

자연의 모습으로 세워진 한옥의 미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색상 중의 하나이다.

▶ 추향색(秋香色)

추향색은 가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색이자,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색이다. 중성색으로 시골의 옛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고풍스러운 색이기도 하다.

가을날 그 화려했던 단풍의 자태도 겨울의 길목에서 싸늘한 서리가 내릴 때쯤이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추향색은 가을의 색이지만 초가집에서 풍겨 나오는 고풍스러운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황토로 지어진 초가집 색, 소쿠리와 광주리의 색 등 옛날 우리 민족이 사용했던 일상 도구들의 색은 무한하고 향구적이다.

이러한 색은 영속성과 중성적인 성격이 있어 vs안하고 조용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분홍(粉紅)

분홍은 사랑스러움·귀여움의 상징으로, 여성적인 색이며 로맨틱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봄의 화창한 날씨 속에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분홍으로 물들인 진달래와 철쭉꽃의 아름다운 보자기나 장신구, 매듭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우리 여인들이 즐겨 사용한 색이다.

▶ 석간주색(石間硃色)

단체에 사용된 석간주색은 처음에는 높은 채도였으나 점차 홍송(적송) 줄기와 유사한 색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궁궐이나 사찰 등의 기둥과 벽에서 석간주색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청이라 하면 윗부분의 화려한 색들을 떠올리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간주색이다.

삼국시대의 단청은 음양오행설에 따라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중간 간색을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 될 수 있도록 배색하였다.

②노란색계-자황, 담황, 지황, 천황, 상황, 치황, 백황, 적황, 자황, 홍황, 토황,

금색, 심황, 명황, 행황, 아황, 송황색, 두릅, 치자, 황, 토색, 유황, 자황, 행자색, 유황.

▶ 노랑

노랑은 오행설에 흙을 상징하며, 황토는 비옥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황제는 노랑으로 표시된다.

오방색(五方色)의 하나인 노랑은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하여 천하를 통치하는 색이다. 신라시대부터 노랑의 황제의 색이라 하여 태조 5년에는 남녀 모두 노란색을 입지 못한다는 금령을 내렸다. 노랑색과 비슷한 색들도 입지 못하게 하였다.

노랑을 의미하는 관용색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색의 이름으로 황색이 써 왔다. 노랑을 의미하는 현대 관용색명은 상아색, 개나리색, 해바라기색, 레몬색, 카나리아색, 바나나색 등이 있다.

노랑은 모든 색의 근원으로 숭상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천자(天子)의 색으로 여길 정도로 가장 존귀한 색이었다. 노랑 계열의 다양한 이용은 치자를 비롯하여 황련, 황백나무, 울금, 금잔화 등의 풍부한 염료와 노랑이 지닌 상징성에서 비롯되었다.

- 옥수수

옥수수의 색은 시골의 정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색이다.

- 개나리

기나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이다. 산과 들에 지천으로 노랑게 수놓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고 반가운 노랑은 황성한 생명력과 기쁨과 희망을 상징한다.

▶ 유황색(硫黃色)

오방간색의 하나인 유황색은, 북방의 검정과 중앙의 노랑 사이에 있는 탁한 노

란색이다. 홍황꽃이 유황색의 빛깔을 띠는데, 짙과 짙신의 색으로 노랑게 물들었던 짙이나 적당이 퇴색된 자연의 색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유황색을 볼 수 있다.

-짙

벼, 밀, 보리 등의 알곡을 떨어낸 줄기를 벼짙, 밀짙, 보릿짙이라고 부른다.

▶ 황토색(黃土色)

황토색은 온화하며, 포근한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의 황토는 규석과 장석, 석회석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연황색 퇴적물로서 황색토와 적색토가 있다. 전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주로 남부 해안지방과 서부 해안지방 산지에 많이 퇴적되어 있다.

황토는 습도가 높을 때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시에는 습기를 발산하는 자동 습도 조절력이 뛰어나다. 또한 바깥의 더운 열기를 막아주고, 날씨 추울 때는 반대로 온기를 발산시켜 주는 이점이 있어 일찍이 우리 민족은 황토집에서 생활해 왔다.

▶ 치자색(梔子色)

치자 열매를 깨뜨려 물에 담가둔 것을 달여서 체에 걸러내어 염색을 한다. 치자의 농도가 짙을수록 노란빛에 붉은 기운이 성한 주황색이 된다. 하지만 삼베나 모시, 무명, 명주 등 바탕천에 따라 색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직접 염색을 해 봐야 색을 볼 수 있다. 삼베나 모시에 농도 옅은 치자색을 들여서 지은 옷은 고풍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 자황색(雌黃色)

자황색은 보랏빛의 자색으로 저채도의 색상이며, 선연색의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일찍이 우리 민족이 매듭이나 자수 등에서 사용하여 사랑받아 온 색중의 하나이다.

자황색은 화려한 색은 아니지만 귀족스러움이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

함을 준다.

조선시대에는 노랑이 가장 높은 직위를 나타냈지만 후삼국시대에는 주황색 계열색을 선호하였다.

▶ 황금색

황금색은 관용색 이름으로, 계통색의 밝은 노랑주황(10YR 7.5/13)의 색이다. 금은 색깔이 화려하고 잘 변색되지 않으며 희소성이 높아 보석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금은 삼국시대의 화려했던 문명을 나타내는 데 당시의 왕관이나 장신구의 세련된 세공과 디자인에서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예술성과 섬세함을 찾아볼 수 있다.

금장신구는 황홀한 아름다움과 환금성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으며, 귀금속들 중에서 오로지 금만이 아름다운 광채와 희귀성, 손쉬운 가공성 그리고 불멸성을 겸하고 있다.

③청색계-일람, 양람, 표람, 연람, 천람, 청, 포도청, 구두청, 풍람, 벽람, 주남, 파랑, 청암, 천담, 아청, 청현색, 심청, 취벽, 청벽, 창백색, 벽, 취람, 양람.

▶ 파랑

파랑은 ‘靑(푸를 청)’이라 하여 동쪽의 색이며, 계절적으로 봄을 나타낸다. 예로부터 파랑은 초목의 빛깔로서 성장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늘색(파란색이 아닌 새벽의 빛깔)으로도 쓰여, 이를 ‘청천(靑天)’이라 하였다.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이족(東夷族)’이라 불린 것과 ‘청구(靑丘)’라 이르기도 한 것으로 보아 민족적으로 오랜 기간 파랑을 선호하고 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파랑은 고구려와 qior제, 신라의 복식 제도에 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색채로, 음양오행의 상징성 외에도 우리 고유의 민속적인 상징을 지나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혼례 때 청 • 홍의 색실을 넣어놓는 것이나 신부복은 청호 dtor으로 만들었던 것, 사주보를 청홍색으로 만든 것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쪽

파랑의 주로 여뀌과 식물은 쪽에서 푸른 염료를 얻었다. 쪽은 높은 50·80cm로 여름에 가지 끝에 빨강이나 하양의 작은 꽃이 수향꽃차례로 달리는 식물로 파란색의 염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해 왔다.

우리민족의 쪽 염색은 「후한서(後漢書)」의 기록으로 보아 삼한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삼국시대에는 상류사외에서 파란색 의복을 널리 입었으며, 고려 시대에도 상위(上位)는 아니었으나 사직(司直)의 복식으로 입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파랑과 빨강이 대표적으로 성행하게 되어 쪽을 이용한 염색이 널리 이루어졌다.

쪽빛은 맑고 푸른 하늘 색, 고요한 바다의 색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색이다.

- 청사초롱

청사초롱은 궁중에서 또는 벼슬아치들이 밤나들이 때 쓰던 청사 바탕에 홍사로 상·하단을 두른 초롱과 일반인이 혼례식에 사용하던 홍사 바탕에 청사로 단을 한 초롱을 말한다.

▶ 벽색(碧色)

동방의 파랑과 서방의 하양 사이에 있는 오방간색의 하나인 벽색은, 곱고 짙은 푸른색을 의미한다.

파랑과 초록의 빛이 나는 벽색은 고급스러운 색감에 산뜻한 느낌을 준다. 또한 안정적인 색으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이황 선생의 퇴계집 「진성학십도차(進聖學十圖節)」에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수신편에 벽색은 청백(담청)색으로 서방간색이라고 하였

다.

▶ 천청색(天青色)

천청색은 한국표준색의 관용색 이름으로 하늘색이고, 계통색 이름은 연한파랑(10B 7/8)이다.

우리나라 하늘색은 맑고 시원함이 묻어나는 깨끗한 보석과 같다. 공기가 건조하여 하늘빛이 유난히 푸르고 깨끗하여 그야말로 청정무후하다. 그 청초한 정서를 동경하여 청자의 색이 창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청자의 푸른색은 태양의 빛에서 청정무후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다. 노년에 옥색을 즐겨 사용했던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높고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가진 한국미의 전통, 그 중에서도 고려청자의 청아한 맑은 하늘색과 이조백자의 다양한 백색의 빛깔 등 한국 미술품이나 옷 빛깔에서도 볼 수 있는 색상들은 우리나라 풍토의 영향이 매우 크다.

▶ 벽청색(碧青色)

벽청색은 구리에 녹이 슬어 생긴 푸른색으로, ‘벽(碧)’은 고운 푸른색을 의미한다.

구리는 공기 중에서 산화하여 검은색이 된다. 그러나 습기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염기성 탄산구리를 생성하여 녹색이나 청색이 되는데, 이것을 동록 • 동청 또는 녹청이라 한다. 다크터키옥색(darkturquoise)이나 펄터키옥색(paleturquoise)과 색상이 비슷하다.

청동의 푸른빛인 벽청색을 볼 수 있는데, 청동의 종류나 환경에 따라서 초록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파랑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다.

▶ 초록

오방간색의 하나인 초록은 자연의 푸르름을 나타내는 색으로, 전통적으로 목청, 석록, 녹취, 총취, 총록, 초색, 청충 등으로 불렸다. 한자에서 ‘록(綠)’외에 ‘취(翠)’도 초록으로 분류하여 파란색을 나타내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초록을 취록(翠綠)이라 하는 동시에 취색도 초록, 파락 범위 내에서 쓰인다. 취연(翠煙)은 초록 연기라는 뜻이고, 취우(翠雨)는 푸른 잎에 내리는 비, 취죽(翠竹)은 푸른 대나무를 뜻으로 시문에 종종 나타난다.

사람들은 초록에서 안전함, 안정감, 신뢰감을 느낀다. 또한 자연, 삶, 생명력, 봄, 희망, 평온, 만족, 신선함, 조용함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며, 부정적인 의미로는 익지 않은, 독, 무시무시한, 쓴맛 등이 있다.

▶ 연두색(軟豆色)

연두색은 연한 콩의 색으로 특히, 녹두색을 말한다. 녹두라는 말 자체가 ‘綠(초록 록)’과 ‘豆(콩 두)’가 합성된 한자어이다.

연두색은 봄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의 이미지로 젊음과 싱싱함을 느끼게 한다. 예물 보자기를 보면 속이 비칠 듯한 얇은 견사로 만들어 하얀색을 바탕으로 파랑, 주홍 대비의 직선을 사각으로 돌리고, 그 안에는 연두색 등 엷은 동색 계통의 대칭으로 조화를 이룬 것을 보아 연두색을 전통 장신구나 한복 등에 사용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 비색(翡色)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목록에 가장 먼저 꼽히는 고려청자의 매력은, 표면을 파고 무늬를 새겨 넣는 상감기법과 투명한 푸른빛에 있다.

고려청자의 비색은 비췌빛이란 뜻이다. 고려 인종 때인 1123년 송나라 휘종의 사신으로 고려에 온 서공의 여행기 「고려도경」에는 “고려인이 푸른빛 자기를 귀히 여겨 비색이라 일컫는다.”면서 “근래 제작이 공교로워지고 색깔이 어욱 아름다워졌다”고 적고 있다. 청자의 비색은 비밀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 우아한 한국의 색이다.

▶ 옥색(玉色)

옥빛이라 하며 주로 푸른색을 의미한다. 옥(玉)은 돌이면서도 그 빛깔과 특성으로 인해 온화함·윤택함·치밀함 등을 지니고 있어 예부터 군자나 높은 사람의

덕망과 고귀함에 비유되었다. 그래서인지 임금이나 미인의 용모, 사람의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옥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밖에 옥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악귀와 부패를 막는다고 하여 임금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함께 묻기도 하였다.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깊고 맑은 은은한 빛깔로 다른 빛깔들을 조용히 잠재우는 신비로운 옥빛은, 한국인의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색이다.

▶ 녀록색(翡綠色)

청색의 하나인 녀록색은, 가칠 단청에 사용되었다. 녀록은 산하를 덮고 있는 소나무를 상징한다.

목조 건물에 쓰이는 단청의 두 가지 바탕색은 석간주라는 붉은색과 녀록이라는 청록색이다. 건물의 기둥에 칠하는 석간주는 토종 소나무 적송의 붉은 줄기색과 같고, 건물 지붕틀의 녀록은 소나무 잎과 같은 청록색이다.

붉은색 껍질과 초록색 잎이 가진 소나무의 자연적 보색을 나란히 칠하면 서로 다른 색을 자극하게 되어 가장 선명한 색깔을 유지하여, 붉은색은 더욱 붉게 보이고 청록색은 더욱 푸르게 보이는 보색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다.

색상은 옥색과 비슷하면서도 초록색 기운이 돈다. 1970년대에는 시아니그린(cyanine green)을 사용하였다. 녀록빛은 예전에는 뽕양고 은은한 옥색 초록빛이었는데, 현재는 초록기가 많아 무거운 느낌이 든다.

▶ 양록색(洋綠色)

양록색은 단청에 쓰이는 색으로, 구리에 생기는 녹과 비슷한 녹청색이다. 또한 석록(石綠)과 같은 진한 빛으로 색사이 선명하여 초록빛에 노란 기가 보일 정도로 눈부시게 밝고 푸르다.

양록은 ‘서양에서 온 물감’이란 뜻인데, 양록(洋綠) 또는 이록(二綠)으로 해석한다. 채도로 보면 양록·양청·양주는 삼록·삼청·삼주보다 짙은 빛이다.

일제 때 본격적으로 단청의 색으로 사용했으나 앞의 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

고 분말입자도 거친 편이다. 1960년에 경복궁 경회루 단청 보수공사를 전후하여 쓰이게 된양록은 푸른 기운이 낮고 뿌옇기까지 하였다.

▶ 하엽색(荷葉色)

하엽색은 계통색의 진한청록과 비슷한 색으로, 한자의 ‘荷(연꽃하)’와 ‘葉(입사귀엽)’으로 연잎을 상징하는 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사찰에 단청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인 단청의 중심색으로 사용되었다.

연꽃은 더러운 물속에서 자라나 깨끗한 꽃을 피운다고 하여 예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불교에서는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깨끗한 꽃을 피운다는 청정함의 상징으로 극락세계를 연꽃에 비유하였다.

④무색계(백, 흑)-소색, 지색, 호소색, 지백, 설백, 유백색, 백분, 흑색, 오, 구색, 조, 현, 치, 향조, 묵, 여지, 백색이다.

▶ 검정

검정은 숯으로 분말이나 갈매나무 껍질 등을 사용하여 염색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색으로 변화되어 우리 옷의 색채미를 만들어 왔다.

최근에 검정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된 색으로 슬픔과 연관된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아함의 이미지로 선택하고 있다.

검정을 사용하는 곳에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 검정색 제품은 힘, 잠재력, 장수를 연상하게 하고 무게감을 나타낸다.

옛날부터 간장 맛이 좋아야 그 집 음식 맛이 좋다고 할 정도로 간장은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미 식품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683년 왕비를 맞을 때 납폐품목(納幣品目)에 간장과 된장이 있었다는 기록과 대두류가

2,000년 전에 한국에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부터 장을 담그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간장의 검은빛은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빛깔이자 정성이 가득 배인 빛으로 여겨지고 있다.

- 갓(笠)

갓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후에 재료, 모양, 제작방법 등이 다양해지면서 조선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갓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흑립(黑笠)은 갓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마지막에 정립된 방식으로, 조선시대 500년을 이어오는 대표적인 관모이다.

갓은 넓은 의미로는 방립형과 평량자형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갓을 뜻하나, 좁은 의미로는 검정갓을 뜻한다.

- 먹(墨)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 전부터 먹을 사용하였는데 위만, 낙랑시대에 중국의 갓을 사용하다가 신라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서 정품의 먹을 생산하게 되었다. 신라의 교양이 있는 집안이나 무관의 집안은 모두 송연묵(숯묵, 솔묵)을 사용했는데, 품격이나 질이 우수하였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조선묵(朝鮮墨)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먹을 만드는 방법은 송연묵과 유연묵(기름묵)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을음을 흠쳐럼 고정하는 것이 먹인데, 연매(그을음)를 취하는 방법에는 소나무를 태운 송연에서 취하는 것과 채종류, 참기름, 비자기름, 오동기름 등을 태운 연기에 취하는 것이다. 이 그을음이 바로 먹의 주재료가 된다.

- 숯(목탄, 木炭)

숯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재질이 단단한 나무가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류가 주로 사용된다. 참나무류로 만든 숯을 참숯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질이 낮은 검탄과 질이 좋은 백탄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600년 전부터 숯이 사용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청

동기나 철기를 제작하는데 있어 높은 온도를 내기 위해서는 숯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숯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숯을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숯의 일차적인 용도는 화기로 한약을 달이거나 음식을 조리거나 옷을 다림질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숯이 민간에서 활용된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나 집안은 물론 개인에게 다가오는 액을 물리치거나 사악한 것, 또는 병의 원인이 되는 좋지 못한 기운을 없애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에도 숯은 우리 주변에서 공기 정화 기능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하양

하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끗함, 순결, 청정 그리고 평화를 나타낸다. 일찍이 우리 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어 ‘백의민족’이라 불렸다. 1940년에 발표한 「조선 복색원류고」에 하얀옷을 입는 이유가 나오는데, 예문송상에서 인간의 감정 생활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세종 때에는 준비의 순위를 밝히기 위해 관리는 유색의 옷으로, 서민은 염색하지 않은 옷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복식용 염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때때로 절약형 내지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백색의 소모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치를 억제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흰옷을 입었던 이유는 염료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오행사상의 영향과 사대주의, 금치정책, 준비 구별 등으로 복색의 자유를 철저히 제약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양 숭배 사상에서 유래한 토속 신앙에서 하양 선호사상이 생겨났으며, 한반도의 환경적 영향에 의해 우리나라는 하양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지역으로, 이것은 날씨의 영향도 매우 크다. 지금 우리 민족이 하얀 자동차를 가장 즐겨 타는 것도 이러한 환경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 충렬왕 원년에 태사국에서 임금님께 아뢰기를 “동방은 오행 중 목(木)의

위치오니 푸른 색깔을 숭상하여야 하며, 하얀 것은 오행 중 금(金)의 색깔인데 지금 나라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하얀 모시옷으로 옷옷을 입고 있으니, 이것은 목(木)이 금(金)에 제어되는 현상입니다. 하얀 의복을 금하기를 청하나이다”하니 그 말을 좇았다.

중국 사람들은 “고려 사람은 하얀옷을 좋아한다”라고 하였으며, 도선은 “동방은 목(木)의 푸른 것을 숭상하여야 할 터인데 하얀 것을 숭상하니 이것은 금(金)이 목(木)을 이기는 것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도방 사람들이 비록 하얀옷을 입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금지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조 때 오히려 하얀옷에 대한 금란이 있었으며 선비들 중의 무식한 자들로 출립할 때 홍의직령을 입었다. 명종 을축년 이후로 여러 번 국상이 있어서 그대로 소복을 입게 되어 지금은 홍의직령이 전혀 없고 온나라 사람들이 모두 소복을 입으니 중국 사람들이 이를 비웃는다.”(「지봉유설」 연려실기술 별집 제13권)

- 삼신상

삼신상은 아기의 출산과 성장을 돌보아 주는 삼신할머니께 바치는 의식으로, 쌀과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차려 놓고 아기의 무병장수를 비치는 치성(致誠)을 드린다.

- 소금

고려 이전의 소금에 대한 문헌은 매우 적다. 다만 「삼국지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고구려조에 소금을 해안지방에서 운반해 왔다는 대목이 있을 뿐이다. 신라나 백제에서도 해안지방에서 소금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구각에서 ‘도염원’을 두어 직접 소금을 제조·판매하여 재정 수입원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에는 연안의 주군마다 염장을 설치하여 관가에서 소금을 구워 백성들은 미포와 환물하였다. 구한말을 거쳐 일제 강점기가 되자 소금은 완전 전매제

가 되었고, 1961년 염전매법이 폐지되자 종전의 국유염전과 민영업계로 양분되었다.

- 조선백자

조선백자는 티없이 맑은 흰빛의 아름다운 자기이다. 백자로 인해 서민들이 생활과 백의민족의 정을 느낄 수 있다. 백자는 백토를 써서 아무런 문양 없이 제조한 순수한 백자와 회청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그리고 유약을 칠워서 구워낸 청화백자, 철사로 그림을 그려 넣은 청화백자, 붉은색의 진사로 문양을 나타낸 진사백자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세종조를 전후한 초기의 백자는 한결같이 균형이 잡히고 매끄러이 고우며 단아하다. 백자는 초기에는 궁궐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 마늘

마늘은 단군신화에 등장할 만큼 신비성과 함께 기초적 약용식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마늘은 우리 민족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만큼 음식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마늘은 강정·강장 효과가 인정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약용 건강식품이다.

▶ 회색

회색은 잿빛의 색으로, 섬세함과 심오함을 만들어 내는 색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단순하고 모호하면서도 특성 없는 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회색만이 가지고 있는 미묘함과 질감은 고풍스러운 맛을 느끼게 한다.

회색은 그 어떤 색보다 시각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중성색으로 하양과 검정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포용의 색인 동시에 포기과 비운의 상징이기도 하다.

회색 화강암은 한옥의 기와와 조화를 이루어 차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오랫동안 비바람을 견디어 온 석탑의 은은한 회색빛과 회색돌의 담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고상한 미가 있다.

선비의 기품과 잘 어울리는 것이 돌길이다. 여유있고 자연스레 배치된 회색돌 길은 청렴과 소박한 품위가 열보인다.

▶ 치색(淄色)

치(緇)는 검거나 중이라는 뜻으로 치의(緇衣)라고도 하며, 검은 물을 들인 중의 옷을 의미한다. 잿빛을 띤 빛깔을 회백색 또는 농회색, 짙고 검은 회색을 암회색, 잿빛 바탕에 다소 청색 기가 있는 것은 회청색으로 표현하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입는 승복은 계절에 관계없이 호색이다. 그러나 동남아사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우는 회색 이외의 붉은빛이 도는 승복을 종종 볼 수 있다.

승복은 '괴색법'이라 해서 초기 불교 교단 계율에 정해져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이와 비슷한 색을 내기 위해 숯을 갈아서 물들여 입었다. 지금의 회색 승복은 숯물 들인 색에서 비롯된 것이다.

승복의 잿빛은 결사(乞士)의 정신으로 청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출가 승려들의 각오를 투영한다. 또한 은은한 잿빛에서 우리나라는 그 절제된 힘은 경외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색,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숨겨 놓은 색이다.

▶ 지백색(紙白色)

창호지의 누런 기가 도는 하얀색을 지백색이라고 한다. 한지(韓紙)는 문방사우(文房四友) 가운데 하나로 불리며,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깝게 지내왔다.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는 창에 붙이는 창호지이다.

창호지는 닥나무 등의 섬유를 원료로 만들어진단다.

창살과 창호지의 단아한 조화 속에 배어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멋을 이 지백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르스름한 하얀색이지만 새벽, 아침, 점심, 그리고 노을

질 때 창호지 사이로 비치는 변화무쌍한 빛깔의 조화는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 소색(素色)

소색은 소복의 색을 말한다. 하양은 완전한 순백색을 말하며, 소색은 자연 그대로의 약간 누런 기가 도는 색을 말한다.

무명은 소색으로 짜서 표백하거나 염색해서 사용하였다. 모시는 우리나라 상고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이용되어 온 직물로, 모시풀의 섬유를 가지고 직조하여 의복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 ⑤ 자색계 - 자색, 다자색, 담자색.

▶ 자색(紫色)

자색은 남빛과 자줏빛이 섞인 색이다

오간색의 하나인 자색은 주로 치마나 회장에 사용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꽃 자주색을, 중년이 되면 짙은 자주색을, 노년에는 검은 자주색을 선호하였다.

조선 후기 당상관의 관복은 적색 바탕에 검은색 망사를 이중으로 사용하여 기품있는 자색을 연출한 것을 볼 수 있다.

남빛과 자줏빛이 섞인 빛깔 또는 파랑과 빨강이 겹친 빛깔인 자색은 보라색이라고도 하는데, 파랑과 빨강의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한다.

▶ 다자색(多紫色)

단청에 사용된 다자색은 검은 주홍빛으로, 자색의 고귀한 이미지와 갈색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색이다.

다자는 차의 잎이 마른 상태의 진한 자색으로, 사물색이기 때문에 계통색이나 관용색에는 해당되는 이름이 없다.

계통색에 탁한 회보라, 어두운 회보라, 어두운 보랏빛 회색 등이 다자색과 비

슷하다.

단청의 빛 순서에는 초빛, 이빛, 삼빛이 있는데 다자색은 삼빛에 해당되는 색으로, 단청에서 쓰이는 세 가지 빛 중 가장 어둡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자연이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실물의 색을 생활 속에서 사용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 담자색(淡紫色)

담자색은 짙은 자주빛이다. 영어로는 모브(Mouve)라고 하며, 모베인 또는 아닐린 바이올렛이라고도 하는데 프랑스어가 영어가 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꽃에서 담자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색상이 화사하고 고귀해 매듭이나 보자기, 장신구 등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에서의 색채는 적색, 청색, 황색, 백색, 흑색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백색에 대한 한국인의 기호는 대단하며 흰색은 무색의 이미지이며, 무색의 인간생활이 공수래공수거사상과 일치하는 자연에의 동화이다. 원색에서 탈피하여, 채색을 금하는 사고방식으로 발전되어 회백색의 무채 색조를 선호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이런 의식이 우리들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왔다.

2. 고분벽화(古墳壁畵)에 나타난 풍수지리색채의 조화

고분벽화의 형성요인은 고구려 사람들의 신앙심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다고 믿었다. 물론 이 영혼 불멸설은 고구려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국 고대 샤머니즘(Shamanism) 신앙의 대부분이 그러했으므로 원시시대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었던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을 기초로 벽화는 내용상으로 볼 때 도교와 불교적인 종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벽화의 주제내용은 4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병존하면서 발전하더니, 6세기 중엽이후부터는

고구려 사람은 고유한 장례의식과 종교 관념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기의 독특한 변천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벽화의 색채는 호화롭고 현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즉, 순수하면서도 사물의 수류부채(수류부채)는 사물에 따라 색채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다. 고구려의 인물벽화에 나타난 색채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순수하여 피곤함이 없는 평탄한 색이다.³⁶⁾ 그러나 사수(四獸) 동물문의 색채는 섬세하면서 생동적이고 비상하는 모습이 위협적이다.

고구려 벽화 말기인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성행한 사수의 표현은 색에 있어서 가장 세련된 표현을 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들로 강서대묘의 현무, 강서종묘의 주작, 백호, 6세기의 형성된 집안4호 고분의 신선도와 청룡, 5호 고분의 신선도 등이 있다.

고구려 벽화의 색채를 종합하여 보면 푸른색, 흰색, 검은색, 청록색, 황갈색 등이 대부분이며 붉은색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사용하면서 점차 발전하여 금박으로 채색효과를 나타내기까지 하였다. 채색원료로 흙을 포함한 광물성 안료 등을 배하하여 썼으며, 고유한 색깔로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프레스코(Fresco)³⁷⁾화법을 썼다. 특히, 집안4호 고분의 신선도와 청동에서는 색채 특유의 비교적 담담한 색상이 퇴색하기는 하였지만 원색의 색이 동적으로 화려함을 잃지 않았고 빨강과 파랑, 노랑의 기본적인 삼원색을 중심으로 윤곽선이 되는 검정, 용의 얼굴과 휘날리는 갈퀴를 강조하는 흰색이 보색의 관계가 되어 주제의 명시성과 주목성이 더욱 강조 된다.

형태상으로는 수평으로 꿈틀거리며 뻗어 나가다가 수직으로 상승하여 영키는 용의 구성이 풍수의 오색의 배열과 함께 화면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반면의 위, 아래로 영키며 힘차고 자유롭게 부유하는 용의 곡선을 중심으로 화면의

36) 김종태, 한국문화론, 서울, 일지사, 1989, p.71.

37) 프레스코 화법 :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 덜 마른 호박죽 바탕에 물에 갠 안료로 채색한 석고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그림을 그려야 한다.

상, 하단에 적, 청, 황으로 배열된 마름모, 원, 등의 기하학적인 문양은 화면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그에 따른 동일 색상 배열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은 선, 색채, 면의 조형적 구성을 인정되고 균형 있는 화면으로 정돈하고 있다.

고대인에게 색채는 하나의 자연의 신비였고, 그 신비를 풀기위해 옛사람들의 우주관에 바탕을 둔 천문수리 법칙인 음양오행사상을 색채의 체계에 결부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삼원색을 기본으로 한 황, 적, 청, 청, 흑, 백, 풍수지리 오색 위주의 색채구성을 중심으로 작품에서는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인 프레스코(Fresco)기법을 향토색 주조의 질감과 일련의 토속적 문양의 도입으로 해서 현시대에 맞는 미감을 표현하려 하였다.

3. 생활속의 풍수지리와 색채조화

한국의 음양오행이라는 즉 기(氣)의 색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 결과 한민족은 음양오행설을 근거로 한 색채 관념이 생활 속에 깊이 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에서 지내는 다섯 가지의 의례인 오례<길례(吉禮), 보례(寶禮), 가례(嘉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의 의식에서도 모두 음양오행적 이치에 따랐다.

길례, 보례, 가례와 같은 의식에서는 주로 정색 중에서도 양에 해당하는 적, 청을 사용하였으며, 흉례때에는 음에 해당하는 복현서백으로 인위적인 것이 배제된 자연적인 상태의 표백을 하지 않은 백석으로서 소복, 조사모(鳥紗帽), 흑각대(黑角帶) 등이 사용되고 일체의 장식을 금하고 있다. 물론 혼례를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들은 양의 색채로서 적색이나 청색은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적, 청, 황, 백, 흑 으로 이어지는 풍수지리의 색채에서 백색과 흑색만이 서민들에게 허용되고 그 외에 색채인 적, 청, 황 은 상층계급의 생황 의식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서민생활에는 물감을 들인 색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간직한 무색이며 자연 그 자체인 백과 흑의 색만 있는 것이다.³⁸⁾

그러나 잔치라든가 명절과 같은 경우의 서민의식에서는 적, 청, 황 등과 같은 상층계급의 생활, 의식 등에 사용되었던 채색이 허용되었다. 혼례나 설날, 단오절 같은 때가 복식에서 채색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신에게 드리는 예물 역시 모두 저포(樗蒲)를 사용했는데 사직(社稷)과 선잠(先蠶)에는 흑색, 종묘에는 백색(白色), 선농(先農)³⁹⁾에는 청색을 사용하고 그 외에 신에게는 모두 백색을 사용하였다. 부적의 색은 반드시 적색이며, 신부의 혼례복의 색도 적색이다. 이렇게 붉은색 특히 적색은 벽사색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을 낳으면 금(禁)줄을 빨간 고추를 매달거나,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까지는 채색을 입히지 않고 백색을 입히는 것은 모두 양색(양색)의 의식에 색채는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풍수지리 색채에 나타난 색중에서 채색이 상층계급의 색으로 쓰이고, 무색이 서민들의 삶에 가까이 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안료의 추출이나 염색 기술의 어려움에 따르는 소재의 빈곤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채색을 가까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풍수지리에서는 생활이나 환경에 대한 공간개념으로 방위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색채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주공간을 동사남북중앙의 다섯 방향으로 지각하고 이들 오방위를 오행과 관련지어 왔다.

이와 같은 풍수의 오색에 대한 음향오행적 개념을 보면 청색은 동방의 태양이 솟는 곳, 즉 창조 신생 생장을 상징하며 양기가 가장 강한 곳이 되며, 적색인 남방은 만물이 번성하여 양생기(養生記)가 왕성한 곳이다. 그리고 중앙인 황색(黃色)은 태양을 중심으로 순환 하는 지구의 중심이 되는 심도가 되고, 이 심도

38)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미에 관한 연구, p.75.

39) 처음으로 농사를 가르친 제왕, 神農氏..

를 일명 황도(黃道)라고 해서 지구의 중심처가 태양과 가장 근접한 곳으로 광명과 생기를 주는 양기의 정화로 등장한다.

그러나 북의 흑색과 서의 백색은 음색이 된다. 양기가 강한 적색과 청색이 여러 곳에 사용된 이유는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음양의 협조(協助), 조화(調和)에 의하여 우주 생성, 변화가 이뤄지며 양이 음보다 우세해야만 길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⁴⁰⁾ 그 예로 사주단자 안에 양색인 청실과 홍실을 엮어 넣어 실부 집에 보내는 관습이 있다.

이와 같이 풍수의 오색은 귀족의 상징 이었는데 나라의 색은 금(金)-목(木) 상극의 오행사상에 의해서 서방 백색보다 동방 청색을 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청색을 나라 색으로 했을 때에는 채색기술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다. 대홍을 좋아 했을 때는 단목의 구매로, 짙은 청색을 좋아할 때에는 값이 뛰어 올라서 나라 재정에 폐단이 생겨 금했다.⁴¹⁾

이같이 염색자원이 빈약 하여서 평민으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흑백의 두 극색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백색은 평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염색과 기술 문제도 상관이 없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색이다. 당시에는 색료 및 자원이 결핍 하였으며, 또한 국사 자체가 근검절약을 내세웠고 사회의 관념상 음양오행 및 유·불·선사상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풍수의 오색의 사용이 철저히 반영 될 수밖에 없는 색 생성의 여지가 없는 문화현상으로 보인다.

3.1. 색동

복식의 색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중국의 동한(東漢)시대로부터 색은 아름다움 이외에 철학적 의미로 해석되어 일상생활의 감정까지 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40) 한국 색채, 형 문양 특성에 관한 연구, p.63.

41) 세조실록, 권112, 세종 28년 5월.

음양오행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색의 사용에 있어 시각적인 이미지보다 관념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평상복으로는 백의(白衣)를 즐겨있었으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복이나 왕실복, 관복, 사대부가의 의복, 기생이나 무당의 의복으로는 유채색 계열의 다양한 색을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복색을 갖추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적, 청, 황, 백, 흑을 모두 사용한 색동은 우리 민족이 음양오행설에 따른 풍수의 오색을 이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풍수의 오색을 중심으로 구성된 색동옷은 음을 상징한다는 흑 대신에 분홍, 초록을 가미한 회색조이며 자연현상의 하나인 무지개 색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액운을 피하고 동시에 음양오행에 관계된 색 배열을 원리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색동은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 가지의 색을 사용함으로써 오행을 두라 갖추어 나쁜 액운을 막아주고 어린아이의 수명, 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색동은 후대에 오면서 어른보다는 어린아이의 복식에 많이 사용하였고 풍수의 오색의 배치에 있어서도 오행을 상생(相生)하는 방향으로 나열하여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한국 복식에 나타난 풍수지리 색채를 살펴보자면 ‘백의민족’이라할 만큼 백색 선호 사향이 평상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서민들도 의복에서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함의 즐거움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색채사용으로 인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합시켰다.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이성지간에 또는 만물의 구성원이라 적용되는 색채개념으로서 음양관과 오행사상의 상극은 피하고 상생의 원리를 따랐다. 색동은 “오색 비단 조각을 잇대어 만든 어린아이가 주로 입는 저고리의 소매 길” 색동천은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빛깔로 층을 지게 한 천”이라 정의⁴²⁾하고 있다. 색동의 색 배합은 청, 적, 백, 흑, 황의 풍수의 오색을 중심으로 하여 분홍, 자주, 녹색 등이 한두 가지 가미 되었다.⁴³⁾ 길

42) 정승인, 양주동, 이승녕, 남광우, 이을환, 지춘수. 한국어 대사전, 서울, 현문사, 1976. p.884.

과 끝동과의 관계를 따져 다른 색과의 인접이 상생이 되도록 배열하였고, 몇 가지 색채의 배열에 의해 구성 될 수 있고, 여러 색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어 단순하면서도 밝은 색채감을 풍기며 색 배합이 한국 특유의 전통미를 지니고 있다.

색동저고리도 풍수의 오색을 사용한 예로서 건강과 화평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서민들도 아기의 돌과 명절 및 혼례 때에는 색동옷을 입었다. 색동은 또한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무당의 옷으로도 사용되었는데, 풍수의 오색의 상징적 의미로 무당의 주술적 능력을 가시화하는데 사용된 것이 그 예이다.⁴⁴⁾

3.2. 단청

주 생활에서는 단청이 음양오행사상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단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리는 일을 말하지만 본래 옛날부터 왕실이나 나라의 길흉에 관한 의식이나 종교, 신앙적인 의례를 행하는 건물과 의기 등을 엄숙하게 꾸며서 일반 잡기와 구분하기 위해 의장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단청이 음양오행사상에 얽매어 천편일률적인 단일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청의 색조는 장단, 주홍, 양청, 황, 양록, 석간주 등이다. 특히 녹색과 주 두색은 자연환경과의 가장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효력을 내고 있으면서 장엄하고 우람한 관념적 요소를 갖고 있다.⁴⁵⁾

주로 청, 적, 황, 백, 흑의 풍수의 오색을 기본으로 연회문이나 당초문과 화형을 이루어 나가며,⁴⁶⁾ 중간 혼합색을 써서 상록하단(상록하단)으로 자연과 조화

43) 박희전, 한국 정통 색채에 의한 직물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107.

44) 박영순, 이현주, 색채와 디자인, 교문사, 1998, p.124.

45) 임영주, 단청, 대원사, 1991, p.120.

46) 하용득, ibid. p.36-37.

되는 색을 사용하였다.⁴⁷⁾ 또한 단청은 다른 말로 오채 또는 석채라고 하며, 목조건물, 종상품, 공예품 등에 채화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목조건물에 많이 사용된다. 안료와 접착제인 아교를 배합하여 사용하는 동양식 채색이며 기본적으로 흑색과 백색, 적색과 청색이 벽의 황색과 같이 오방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음양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단청이나 오채라는 단어는 회화의 기본이 되는 안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대의 회화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단청은 주로 풍수의 오색으로 이루어지며 물감은 광물성의 암(岩)채(彩)를 주로 쓴다. 잡귀를 쫓는 벽사의 뜻도 있고 위엄과 권위를 표시하기도 한다.

단청의 색채감각은 독창적이면서 뛰어나다. 외광을 잘 받는 기둥부분에는 적색계 석간주(石間柱)를 썼으며, 그들이 치는 처마나 지붕을 받치는 공간 지주의 녹색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다. 뇌록은 그늘진 위치에서 시원한 배경색으로 면적인 효과를 더해준다.

이와 같이 석간주와 녹색의 배색은 자연환경과 가장 적절하게 조화 될 수 있는 색상의 배색으로 선인들이 조형감각을 느낄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목조, 석조 등 건축물을 장엄하게 하거나 조상 및 공예품에 채화하여 장식하는 도(圖), 서(서), 회(회), 화(화)를 총칭해서 단청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붉고 푸른 빛깔로 무늬를 그리는 것 즉 붉은 색을 의미하는 단(단)과 푸른색을 의미하는 청(청)이 서로 합한 말라 집의 벽, 기둥, 천장과 같은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이나 무늬를 그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고대에 남긴 건조물들 탑, 신상, 비석 등과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부장품 등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양은 바로 단청과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것들이다. 무덤 벽화의 장식 무늬가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장신구와 기물들에 똑같이 시문 되었거나 비슷한 양상을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배색방법은 청(청), 황(황), 녹(녹), 홍(홍), 석간주(석간주) 등으로 보색을 조

47) 임영주, ibid. p.115.

화 있게 나열한 도색기법인데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흰색과 먹색, 기타 색과 배합하여 여러 가지 다른 색채를 만들어 썼다. 단청은 풍수의 오색 혼합의 범주를 넘지 않고 색채의식의 음양오행사상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3.3. 서낭당, 오방신장기, 오색아기

조선시대에는 유교 정신에 따른 금욕주의적 사향에 의해 흰색과 청색을 선호하였으나 유교 이외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던 불교나 무속 신앙에서는 색채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로 서낭당과 신목을 보면, 서낭당이란 한자어로 성황당(城隍堂)이라고도 하는데 민속에서 서낭신이 머물러 있는 곳을 뜻한다. 서낭당은 주로 고개 마루나 마을 어귀에 위치하는데, 우리 민족은 그 표시로 작은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나무를 꺾어 놓거나 나무에 오방신장기를 달아 놓고 서낭신에게 복을 기원하였다.

민속학적 측면의 오방신장기는 풍수의 오색 즉 적, 청, 황, 흑 등 다섯의 손잡이 깃발에서 하나를 뽑아 생활의 운수를 점치고는 했는데, 우리민족은 다섯 개의 기(旗) 중에 적색을 뽑으면 그 해에 신수가 좋다고 믿을 때도 있었다.

또한, 군례(軍禮) 때에 사용하는 색채도 그러했다. 적을 공격할 때는 대열에 사용하는 기(旗)를 오채아기(五彩牙旗)라고 말하며, 동방청색기(東方青色旗), 서방백색기(西方白色旗), 중앙황색기(中央黃色旗), 남방적색기(南方赤色旗), 북방흑색기(北方黑色旗)로 인도 하였으며, 궁궐에서의 가례서례나 임금님 거동 때의 노부에 사용되는 기(旗)도 역시 중앙에 황룡기, 오른쪽에 백호기와 현무기, 왼쪽에 청룡기와 주작기, 그리고 홍문대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바다나 산악도 각각 방위색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동해는 청으로 삼각산은 황으로, 남해는 적으로 태백산은 흑으로 송악산과 서해는 백으로 나타내었다.

3.4. 보자기

보자기는 물건을 덮거나 싸서 보호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수를 놓거나 이어 붙여서 장식을 하였다.⁴⁸⁾ 옛 문헌에서 보자기가 ‘복(복), 보(보), 복(복)’ 등으로 쓰여 있고, 보자기의 어원을 보자의(褌子衣)에서 보자기(褌子器)로 전의되었다고 추정한다.⁴⁹⁾

이중에서도 복(福)의 표현에는 음향오행사상에 의한 복락기원(福樂祈願)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자기에 싸두는 내용물을 복에 비유하여 복을 싸두면 복이 간직 된다’는 민간 신앙적으로 널리 퍼져서 생활에 밀착되었다.⁵⁰⁾

보자기를 사용하는 계층에 따라서는 궁보(宮褌)와 민보(民褌)로 나뉘어 진다. 궁보는 주로 귀중한 물건을 등에 싸두거나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장식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궁보(宮褌)는 용도별, 규모별로 다량으로 제작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쓴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당채(唐彩)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고 홍(紅)색 계열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다. 민보는 조각보와 수보가 대표적인 예이다.

조각보는 폐품활용의 지혜를 발휘한 우리조상의 절약정신이 담긴 소품으로 서민층에서 주로 통용되었고 궁보(宮褌)는 사용되지 않은 제작방법이다. 조각보의 색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모시와 시를 이용한 조각보는 파스텔톤의 색상을 지니며 은은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반면에 명주를 이용한 조각보는 풍수의 오색을 사용해 그 중 양색에 해당하는 청, 홍, 황의 색상을 주로 사영하였다.

수보에는 나무, 꽃, 새 등 자연을 수놓았는데 단순화된 문양을 표현하였다. 수보 역시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수를 놓았으며 색 사용에 있어서도 풍수의 오색을 사용하였고 바탕이 되는 소재를 자연적인 중성색을 사용하여 원색들이 지나

48) 박영순, 이현주, *ibid.* p.129.

49) 허동화, *국립전통보자기*, 국립민속 박물관, 삼화출판사, 1986. p.1.

50) 정필순, *현대적 조형미와 조각보*, 월간 공예, 1990,9. p.96.

치게 강조되어 보이지 않고 안정감을 지녔다.⁵¹⁾

3.5. 복식

우리민족의 색채관은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자연계의 바탕이 되는 풍수의 오색이 기본색이 되었고, 이 풍수의 오색은 회화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풍수의 오색이 사용을 예로 들어보면, 의생활에서 백색은 염색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일반 서민에게 색채생활로서는 가장 용이하였던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자연소재 이용이 습관화 되어 깨끗하고 신성한 백의민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상중에 입는 백의는 사별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속을 벗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고위층에서는 준비 표현으로 유채색을 사용하였는데, 황, 자, 적, 색 계통으로 주로 관복제도로써 뚜렷해진다.

의상과 음양오행과의 관계는 음양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오행을 색채적인 측면에서 결부 시켜보면 대략 그 관계를 알 수 있다. 옛사람들은 하늘은 양, 땅은 음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양은 하늘의 모양인 원으로 나타내고, 음은 땅의 모양인 방형으로 표시했다. 옛 문헌에 하늘은 상원, 주연 등으로 표기하고 땅을 사망, 팔방 등으로 표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음과 양은 상과 하, 표와 이, 내와 외, 강과 유, 강과 약 등의 여러 가지로 쓰임새에 따라 표현되고 적용되었다. 의상에서 머리가 가는 관의 부분을 둥글게 한 것은 천원을 상징한 것이고, 신발인 혜말을 모가 나게 한 것은 족방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웃옷과 아래웃으로 나누어 만든 것은 양상과 음하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남자의 의상을 바지와 저고리의 상하로 나누어 만들고, 그 위에 직령이나 도포를 입은 뒤 띠를 매개한 것도 음양의 원리에 의한 것이었다. 즉 바지와 저고리는 태극속의 음양을 상징하고, 직령이나 도포는 태극을 상징하며, 띠는 우주의 중심을 회전

51) 박영순, 이현주. *ibid.* p.129-130.

하는 적도를 상징한다. 또한 오행과의 관계는 색채, 무늬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옷의 색깔은 시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지역적인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대적인 영향으로는 그 나라의 건국이념이 어떠한 덕을 숭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계층의 옷 색깔이 바뀐다. 의상의 색깔과 국가의 덕목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목덕을 숭상하던 국가에서는 지배층인 왕실의 복장이 청색이었고, 대신의 복장은 적색, 하급관리의 복장은 적색, 하급관리의 복장은 자주색, 서민의 복장은 회색 내지는 흑색이었다. 또한 화덕을 숭상하던 국가에서 지배인 왕실은 적색, 대신들은 녹색, 일반관리들은 남색의 의상을 착용토록 하였고, 서민은 일정한 색은 정하지 않는 반면 풍수의 오색의 사용을 금하였다. 국가의 덕목이 토덕일 경우 지배자인 왕의복식은 황색으로 만들어지고, 대신은 적색, 하급관리는 녹색과 비색을 사용해서 의상을 만들도록 하였다.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도교는 동방의 목기를 주기로 하고 동방의 청색을 도복의 색으로 정하여 항상 발전하는 모양을 나타내었고, 증생의 제도와 제액제살, 자비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에서는 부방 불공성취여래의 본원에 따라 치색(淄色)을 복장의 색깔로 선택하였다는 설도 있다.⁵²⁾

이와 같이 풍수의 오색의 사용은 주술적으로도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데 많이 사용하였는데 적색, 청색, 백색이 주를 이룬다. 무당 옷이 그 좋은 예이다.

3.6. 식생활

빛의 형태인 색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색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에너지와 영양으로서 각각의 색은 각기 다른 영양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색을 띤 음식들은 같은 종류의 비타민을 함유하는 성향을 띤다. 고기류와 근대류 같은 붉은색

52) 권오호, 우리문화와 음양오행, 교보문고, 1996, p.160-163.

식품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 되어 있고, 레몬이나 푸른 채소류처럼 노랑색이나 녹색의 식품은 비타민 C가 풍부하다(Walker, 1998). 한의학에서 특정 색의 식품이나 약재가 동일 질환에 쓰이는 것도 음식을 이용한 색채 치료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식생활에서는 먹는다는 행위와 연관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 그 관심이 적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밥상을 차릴 때 대체로 고비, 도라지, 시금치 등이 2,3가지 나물을 곁들여 한 그릇에 담은 풍습이 있다.

즉, 흰색, 푸른색, 어두운색을 배합하여 침착한 느낌을 주면서 잔치나 제사상에 오르게 한다. 그리고 튀김보다 색을 곱게 내서 기름에 부친 부침을 음식으로 맛의 색조를 돕게 한다. 또한 장을 담글 때 깨끗하게 손질한 장독에 참숯을 빨갭게 달구어 띄우고 구운 다홍고추, 혹은 대추를 같이 띄우는 풍습이 있다.

이 고추와 대추는 많은 음식에 넣게 되는데 이는 적색의 부정적인 뜻으로 액운을 제거한다는 목적도 있고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여 쓰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은 담은 위에 알지단(黃, 白), 버섯채(黑, 褐色), 은행볶음(靑), 잣, 소금(白), 실고추(赤) 등을 사뿐히 얹어 놓아 매우 아름다운 색조를 이루게 하는 풍습이 있다. 짙은 갈색으로 조리한 갈비찜 등에 마름모꼴로 알지단을 얹으면 화려한 색조를 이룬다. 여러 가지 색조를 섞은 잡채나물, 생선찜 위에도 황백색의 알지단과 적색의 실고추, 흑색의 석이버섯 등의 고명을 얹으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외양을 갖게 한다. 이러한 고명은 다채로운 색채를 통해 외양의 미(美) 뿐만 아니라 맛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다.

축하의 뜻을 갖고 차리는 큰상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 생화, 건과, 퍼전과, 포, 수육, 전, 각종 음식이 있는데 역시 색채를 맞추어 늘어놓고 양옆에 색떡과 화수로 장식했다. 아기의 백일, 돌 등의 가족행사와 단오, 동지등과 같은 절기행사 등에서 치를 음식물에서 주로 흰색과 붉은색을 선택하는 색채관념을 보게 된다. 한국전통표준색명에 설백색(雪白色)은 백설기의 색을 말한다. 백설기를

흰무리라고도 하는데, 백설기의 명칭은 「규합총서」에 기록되어 있다. 백설기는 ‘티 없이 깨끗하여 신성한 음식’이란 뜻에서 어린이의 삼칠일, 백일, 돌 등에 사용된다. 돌상에서 흰떡 외에 수수팔떡이 따라온다. 이 수수팔떡은 적색의 참수수로 경단을 만든 것으로 적색이 제액을 한다는 토속적인 믿음에서 열상일 될 때까지 만들어 준다.

이외에도 다섯 가지 색으로 물들인 송편도 쓰여 졌고, 그 안에 밤, 콩, 깨, 대추 등을 넣어서 주발에 가득 담고 신부(신부)의 주발에는 붉은 팔을 가득 담아 홍보(홍보)에 싣는다. 그리고 폐백 예를 치를, 그날 저녁에는 이 흰쌀밥과 붉은 팔으로 액운을 멀리하고 부귀다남(富貴多男)하라고 목수하는 뜻의 근봉(근봉) 두자를 쓴 간지로 허리를 둘러 붙인다.

미역국에 흰밥을 생일에 먹고 혼인에는 흰 국수를 먹어야 한다. 백색은 무고의 뜻으로 출생의 신성함을 의미하며 태양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밝음을 바라는 주술적 의미이다.

음양오행 사상에 의한 오색을 맛으로 표현해 보면, 청색은 신맛(酸)에, 적색은 쓴맛(苦)에, 백색은 매운맛(辛)에, 흑색은 짠맛(鹹)에, 황색은 단맛(甘)에 배속 되어 진다.⁵³⁾

3.7. 꼭두

꼭두란 사람의 모형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가르키는 말로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형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며, 우리 말로는 각시 또는 꼭두이다. 중국어로는 괴뢰(傀儡), 우인(偶人), 목인(木人)이나 목우(木偶)로 불리 우고 있다. 여기서 우(偶)는 인간의 형성을 본떠 만든 꼭두를 뜻하고 용(俑)은 순사자(殉死者) 대신으로 무덤 속에 넣었던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의미한다.

53) 이창완, 현대 한국화의 표현 연구, 오방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종교적, 주술적인 신앙에서 기원되어 점차 유희나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⁵⁴⁾된 꼭두는 일반적으로 옷저고리와 치마의 색상이 통일되고 치마는 땅에 닿을 만큼 길이가 길며, 길게 늘어뜨린 검정색의 머리색을 보면 색상 자체가 음양오행설에 기인한 오방색 및 오간색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꼭두는 오늘날 각지에 남아있는 장승 및 불교의 목공예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나무를 깎아 속을 비우고 그 속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목어(木魚)는 범종(梵鐘), 법고(法鼓), 운판(雲版)과 함께 사물(四物) 가운데 하나인 불교의 염불과 독경, 예배를 할 때 쓰이는 예불용 목각은 원래는 원형이었으나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둥근모양으로 역시 음양오행의 오정색, 오간색인 10가지의 기본색(특히, 오정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오색구름 위에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은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대웅전을 닮게 만들어진 상여는 망자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양택으로 꾸밈으로서 양택에서 음택으로 옮겨가는 중간의 음양중화이다. 이는 환생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행의 사상이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풍습 중에서도 시집가는 신부얼굴에 연지를 찍는 것, 출산할 때 대문 앞에 송지의 푸른가지를 다라 매었으며, 봉숭아 꽃물을 손톱에 들이는 것 등이 있다. 장을 담그고 그 위에 고추나 숯을 띄울 때 숯은 냄새를 빨아 당기는 목적으로 쓰였지만, 불같이 일어나라는 뜻이 있었다.

따라서 제약을 뜻하여 해산 후에 문 앞에 금중을 치며, 아들을 낳았을 때 금줄에 붉은 고추와 더불어 숯을 단다. 함속에 청실, 홍실, 사주단자와 청, 홍색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풍수의 오색의 사용은 주술적으로도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데 많

54) 이두현, 나무꼭두의 역사와 쓰임새, 한국의 나무꼭두, 열화당, 1998, p.7.

이 사용하였는데 적색, 청색, 백색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생활풍습은 모두가 음양오행의 사상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색(色)과 기(氣)의 과학적인 배경

1. 색의 이론적 배경

1.1. 과학적인 색의 개념

색에 대한 정의는 물리학자나 화학자 그리고 예술가 등에 의해 각각 조금씩 달라지지만, 17세기에 아이작 뉴튼이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 빛이 7가지 색으로 나뉘어 진다는 것을 발견한 이래로 색은 특정한 파장을 가진 빛, 즉 가시광선이라는 견해가 오늘날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태양 에너지를 기초로 그 생을 영위하고 있다. 빛은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로서, 그 빛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

파장의 차이에 따라 에너지의 강도도 틀리고 색도 다르게 보인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폭은 약 700nm의 빨강에서 약 400nm의 보라까지이며, 이보다 파장이 긴 것은 적외선, 짧은 것은 자외선이라 한다.

색체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물체의 색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빛의 반사광이다. 예를 들면, 빨간 장미에서 무지개의 색광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장미가 빨강 이외의 다른 색광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정은 태양광 속의 모든 색광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우리들이 보고 있는 물체의 색은 각각의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는 성질로 인해 지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물체의 색은 각기 다른가. 빨간 장미는 왜 빨강이외의 색광을 전부 흡수하는가. 초록의 잎은 왜 그것 이외의 색광을 흡수하는가. 이는 모든 물체가 자신이 필요한 색광을 흡수하며, 필요하지 않은 색은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전체에 색이 있다

는 것은 물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색광을 흡수함으로서 에너지를 얻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색은 그 물체가 필요한 빛의 에너지만을 정확히 흡수하기 위한 필터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⁵⁵⁾

인간 역시 항상 광파의 영향을 받으며, 광선은 우리의 성장, 혈압, 체온, 근육 활동, 수면 패턴 그리고 면역체계 등 이 모든 에너지 체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유색광선은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 기분 그리고 정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신체의 감각기간 중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시각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색채와 많은 관계를 맺게 된다. 특정한 색으로 된 옷을 골라 입거나, 집이나 정원에 특정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색채 에너지를 얻고 있으며, 우리가 보이는 반응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것이다. 한의학적으로는 외부환경과 내부 장기를 오색과 연관 지어 색이 미치는 영향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한의학에 있어서 색채이론은 오행에 배속된 이론으로 생리, 병리, 진단 면에서 응용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색채에 대한 이론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색채조절, 색채관리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색채를 이용한 색채심리와 색채치료법이 외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활용단계에 있다.

1.2. 색의 속성과 지각 요건

1.2.1. 색의 속성

색이란 빛의 스펙트럼의 파장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시 감각의 특성으로 시각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분간 할 수 있는 색의 가짓수는 수

55) 스에나가 타미오, 박필임, 색채심리,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1, p. 171

백만 개이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흰색, 회색, 검정 계통에 속하는 무채색과 무채색 이외의 모든 색 즉,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등 밝거나 어둡거나 맑거나 탁한 색 전부를 포함하는 유채색으로 나누어진다.

눈의 망막에는 추상체와 간상체의 두 종류의 시세포가 있다. 밝은 빛에서는 추상체가 작용하여 색 지각을 만들고, 어두울 때는 간상체가 작용하여 흑백 사진과 같은 무채색의 시각을 만든다.

모든 색채는 색상, 명도, 채도의 독자적인 세 가지 차원을 지닌다. 색상은 색의 기질로 유채색을 종류별로 나누는 단서가 된다. 이것은 색환에서 광파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된 색채의 등급으로서, 붉은 색 계통의 광파가 가장 길고 녹색에서 보라로 갈수록 짧아진다. 이 색상의 자연적인 순환 질서인 색환 안에서 가장 먼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관계의 색채들을 보색이라 한다. 빨강과 초록, 노랑과 파랑, 초록과 보라 등의 색광이 보색이다. 보색관계의 두 색상은 나란히 병치된 경우, 상대 색깔을 가장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한 색깔의 이미지가 잔상으로 남을 경우에 색도 원래 색의 보색에 해당된다. 이것은 눈의 망막상의 색신경이 어떤 색의 자극을 받으면 그 색의 보색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채도는 색채의 순수성으로 노출된 색의 총량의 의미이다. 즉, 채도란 색상의 선명한 정도를 말한다. 채도가 낮으면 ‘탁하다’라고 표현하고, 높으면 ‘선명하다’라고 표현한다. 색은 채도가 높을수록 강하고, 낮을수록 약하다. 따라서 채도의 높낮이는 색채의 탁도(濁度)를 의미하며, 동일 색상의 청색 가운데도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을 그 색상의 순색이라고 한다. 순색에 무채색을 섞는 비율에 따라 채도는 낮아진다. 무채색에는 색상과 채도가 없고 명도만 있다.

명도는 색채의 밝은 정도를 의미한다. 가장 밝은 흰색과 가장 어두운 흑색을 양단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밝기가 다른 여러 가지 회색을 명도 순으로 배열함으로써 무채색의 명도 단계가 이루어진다. 다른 유채색의 명도도 무채색의 명도

단계와 비교하여 결정된다. 색의 밝기 정도는 빛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빛의 어두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세 가지 이외에도 색조는 명도와 채도의 개념을 하나로 합쳐 색의 명암이나 강약 또는 농담 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또한, 색채 경험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광파, 순도, 색조, 농염, 조도, 톤트(tint, 연한 색조)가 있다.⁵⁶⁾

1.2.2. 색의 지각요건⁵⁷⁾

색을 지각하는 것에는 밝기, 크기, 대비, 노출시간의 네 가지 요건이 있다.

① 밝기

빛에 근거한 모든 색 지각에는 그 빛의 밝기가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② 크기

아무리 밝은 색을 지닌 사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물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우리의 눈은 그 사물의 색을 볼 수가 없다.

③ 대비

어떤 색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그 색의 배경(바탕)이나 인접색의 영향 조건이 문제가 된다. 초록으로 뒤덮인 풀밭 속에 청개구리가 빨리 지각되기 어려우나, 그 풀밭 속에 핀 붉은 꽃은 쉽게 지각된다. 이처럼 배경 색과의 차이가 강하지 않다면 색 지각이 쉽지 않다.

④ 노출시간

색을 보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색을 전혀 느낄 수가 없든지 다른 색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반대로 그 시간이 너무 길다면 때로는 잔상현상이나 피로에 의한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

56) 김형수,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1999, p.230

57) 이영재, 실내건축과 색채, 서울, 기문당, 1999, pp.20-25

1.3. 색상의 주파장과 색의 혼합

1.3.1. 색상의 파장

색은 광파로 이루어진다. 즉 특수한 전자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눈은 대략 400~700nm까지의 파장범위가 이루는 색광 이외의 것은 지각할 수 없다.

빨강에서 보라에 이르기까지 주파수의 비율은 대체로 1 : 2이다. 결국 1옥타브에 해당한다. 색광은 제 각기의 파장 또는 주파수에 의해 정확하게 규명된다. 광파는 그 자체로서는 색채가 없다. 색채는 인간의 눈과 뇌 속에서 지각되는 것이다.

1.3.2. 색의 혼합

색의 혼합에는 크게 감산혼합과 가산혼합이 있다. 물체의 색은 주로 감법색이다. 보색 또는 1차색인 노랑, 빨강, 파랑이 어떤 비율로 혼합되어 특정 비율로 섞이면 감법의 결과 검정이 된다. 반면에 프리즘을 통해서 생기는 비물질인 색을 혼합시키는 경우에는 가법색이라 하며 이때의 색은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져 결국 흰색광으로 돌아가다. 색의 혼합을 네 종류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산혼합

색광의 삼원색에는 빨강(Red), 초록(Green), 파랑(Blue)의 3색(RGB)이 있다. 색광의 삼원색으로 색을 만드는 방식을 ‘가산혼합’이라 하는데 빛이 전혀 없을 때가 검정이고, 기본 3색에서 더하는 방식으로 색상을 만들기 때문에 ‘가산혼합’이라 부른다. 즉, 두 개 이상의 색을 혼합할 때 혼합하는 색의 수가 많을수록 혼합 결과 색의 명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가산혼합’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광의 혼합을 말하며 ‘가산’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TV와 컬러모니터, 영상기, 조명 무대 등에 사용한다.

② 감산혼합

원색에 어떠한 색을 섞어도 만들 수 없는 색을 말한다. 인쇄나 색조상의 3원색에름 청록(Cyan), 자주(Magenta), 노랑(Yellow)의 3색(CMY)이 있다. 인쇄나 출력과정에서 사용되는 CMYK 색상 모형은 색과 색을 혼합할수록 색이 어두워지는 ‘감산혼합’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즉, 두 개 이상의 색을 혼합할 때 혼합하는 색의 수가 많을수록 혼합결과 색의 명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감산혼합’이라 한다. 이것은 ‘색료 혼합’을 말하며 ‘감법’이라고도 한다.

③ 중간혼합

두 개 이상의 색을 혼합할 때 색의 수에 관계없이 혼합결과 색의 명도가 혼합하는 색의 평균 명도가 되는 것, 즉 회전판에 두 색을 따로 칠하여 돌려 혼합되는 두 색의 평균 명도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병치혼합

두 개 이상의 색의 선이나 점이 서로 인접한 색으로 인하여 중간 색상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점묘법, 모자이크, 직물의 색, 원색 인쇄 등에 이용된다. 이것은 색 면적과 거리에 비례하며 눈의 망막 위에서 혼합되는 생리적 현상이다.

1.4. 색채감각의 수용기⁵⁸⁾ - 눈

인간은 눈을 통하여 사물의 형태, 크기, 색 등을 지각한다. 눈은 지름이 약 2.5 센티미터쯤 되는 구 모양인 안구와 눈의 하얀색 부분이자 바깥층인 공막, 약간 튀어나와 있는 투명한 창인 각막, 눈의 중간층이자 눈에 영양을 제공하는 얇혀 있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맥락막, 이 맥락막의 연속이자 눈에 색채를 부여하는 홍채 그리고 홍채에 있는 구멍이자 눈의 내부가 검기 때문에 검정으로 나타나는 동공,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인 망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막은 눈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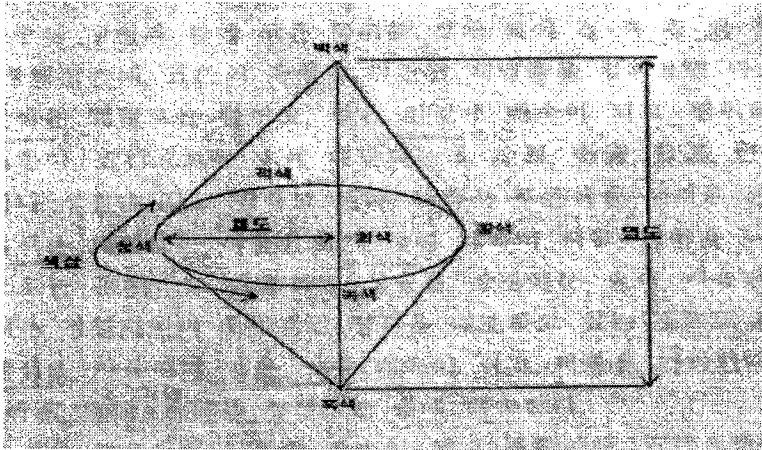
58) 장현갑 역, 생리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1995, pp.254-255.

장 뒷부분에 있고 깊숙한 등근 컵처럼 구부러져 있는 매우 얇고, 빛에 민감한 조직이다. 망막으로부터 나온 신경은 시신경이 상을 만드는데 참여한다.

망막으로부터의 빛 자극이 망막시상하부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 송과선이 빛을 인식하면 멜라토닌 및 세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조절 되는데 세라토닌 호르몬은 안정감과 평화를 주며, 따뜻하게 해주고 쉬게 하고, 기분을 기분을 활기있게 해준다.

추상체(錐狀體)는 색채 감각의 수용기로, 쥐처럼 망막에 간상체(桿狀體) 밖에 없는 동물은 색맹이다. 19세기초에 추상체(錐狀體)에는 3가지 종류의 상이한 것이 있어 색채지각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가설이 등장했다. 이것은 삼원색설(trichromatic hypothesis)이라 하는데, 1852년 독일의 생리·물리학자인 Herman von Helmholtz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그 후 이 가설이 주로 받아들여졌다. Helmholtz는 청색, 녹색 그리고 적색에 각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추체들이 있고, 개개 형태의 원추체는 뇌에 이르는 독립된 감각 통로를 가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한 사물의 색채감은 어떤 종류의 수용기가 활동하느냐에 따라 인지되어 진다고 주장된다. 이것은 마치 피부에 있는 수용기들의 활동에 따라 촉각, 온각, 냉각 따위가 구분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다른 설명이 생리학자 Ewald Herinng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시각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아마도 3가지 대립색의 짝, 즉 청(靑)-황(黃), 녹(綠)-적(赤), 흑(黑)-백(白)과 같은 체계가 있으며, 이 짝들의 서로 대립되는 힘, 즉 +와 -의 반대작용을 하는 생리학적 과정에 의해 색채지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바로 이 대립과정가설(對立過程假設)과 삼원색 가설이 현대 색채 이론이 되었다.

<그림3> 색채 지각에 필요한 기본적인 3차원을 예시한 색입체



명도(明度,brightness)는 어두운 색으로부터 밝은 색에 이르기까지 밝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그림의 수직축에 해당된다.

색상(色相,hue)은 청색, 녹색, 황색, 주황색, 적색과 같이 색채원의 원둘레를 따라가면서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채도(彩度,saturation)는 색채원의 풍부한 색감을 갖고 있는 주변부로부터 안쪽으로 향하면서 옅어지거나 회색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주변부가 진빨강으로 시작한다면 중심으로 진입해감에 따라 점차 핑크색으로 되었다가 마침내는 회색으로 되는 것이다.(<그림3> 참조)

2. 기(氣)의 과학적 배경

2.1. 인체의 설계도-기(氣)

생체의 정보가 DNA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체전자기장, 생명장, 형태공명장, 생체정보, 상해전류, 생체전기, 경락을 유통하는 기(氣)등으로 표현되는 비유전적인 요소들에도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윗단계에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는 견해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복제양 돌리를 만들때, 가장 큰 문제는 분화된 체세포를 어떻게 수정란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서 발생을 다시 시작시키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전까지 한번 분화된 세포는 영원히 그 세포로서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 수정란과 간(肝)세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간세포는 분화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세포로서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만이 발현되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는 억제 되어서 간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세포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한번 간세포로 분화되면 세포는 영원히 간세포로서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간세포 뿐 아니라 모든 세포가 마찬가지이다. 여태까지 한번 분화된 세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월머트 박사는 이 난관을 해결한 것이다. 그는 양의 젖샘세포를 수정란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서 다시 발생을 유도 할 수 있었고, 결국 발생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미와 똑같은 유전형질을 갖는 돌리가 태어난 것이다.

월머트 박사가 분화된 세포라는 자물쇠를 풀어버린 열쇠는 놀랍게도 단순한 전기자극이었다. 전기자극에 의해서 분화된 체세포를 완전한 수정란과 같은 상태로 시계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기장과 같은 물리적인 자극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체세포에

서 DNA와 전사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도롱뇽의 경우 팔이 절단 되었을때,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들을 지휘하여 절단된 단면으로부터 원래의 절단되기 이전의 팔의 다양한 모습을 정확하게 재생하도록 하는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절단된 앞발의 단면에 있는 세포들도 도롱뇽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세포들과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절단된 면에 있는 세포들은 삼차원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의 정보들을 인식하여 완벽한 발의 삼차원적 모습을 재생할 수 있을까?

현대 분자생물학은 DNA의 염기배열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유전자에 생체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자생물학은 도롱뇽에서의 삼차원적 모습을 포함하는 재생능력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해줄 수 없다.

다음은 나뭇잎을 절단한 후 생체에서 방사하는 에너지를 킬리언(Kirlian)사진기로 찍은 모습이다.

<그림4> 킬리언 사진기로 찍은 일부 절단된 나뭇잎



비록 나뭇잎은 절단되어 있지만 사진은 원래의 절단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잔상은 나뭇잎이 삼분의 일 이상 잘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1953년 레닌그라드의 의사였던 가이킨 박사에 의해서 킬리언 장치에서 찍히는 빛들이 인체의 경락과 관계있다고 보고되어, 실제로 건강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킬리언 사진기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고주파, 고전압을 가하면 물체의 주위에 방전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방전현상이 필름에 감광되어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킬리언 사진에 나타나는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의 에너지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왜 이런 사진이 찍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아직 부족하다.

나뭇잎의 잔상은 항상 찍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킬리언 사진기 중에서도 나뭇잎의 잔상이 찍히는 사진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의 잔상이 찍히는 이유는 매우 특정한 파동에 의한 공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뭇잎의 잔상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르게 찍히는 삼차원적인 영상임이 증명되었다. 이 영상은 또한 부분이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나뭇잎의 가운데 동전크기의 구멍을 뚫어놓고, 킬리언 사진기를 이용하여 나뭇잎을 찍었을 때, 그 구멍 안에 나뭇잎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는 영상이 찍힌 것이다.

그렇다면 절단된 나뭇잎에서 나타나는 잔상과 같이 도롱뇽에서도 비록 발이 절단되어 있지만 남아 있는 부분들은 원래 발이 절단되기 이전의 전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도롱뇽 발의 잘라진 부위에 대한 기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전체적인 발을 재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일까?

만약 도롱뇽 발의 잘라진 부분을 재생하는 정보가 이미 공간에 하나의 장(場, Field)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모두가 믿고 있는 설계도가 아니라, 그 설계도에 맞추어 단지 블록을 쌓아가는 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의하면 유전자를 활성화 시키고 억제 시키는 근원적인 정보는 오히려 전자기장과 같은 비유전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간의 장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하는 것이다.

사람에 있어서도 사람의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경락을 따라 유통되는 기(氣)라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갖고 인체를 조절하고 있는 시스템이 실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 그 시스템이 매우 미세한 에너지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완전히 그 원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존재의 유무마저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을 무조건 비과학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과학계에 종종 있다. 존재하는 현상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된다면,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과학의 수준이 미약해서 인체에 흐르는 미세에너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2.2. 기(氣)의 다른 이름-토션장과 생체정보

생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동종요법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동종요법은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것을 치유한다(Like cures Like)'는 것을 주요 원리로 한다. 정상인에게 물질을 주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환자의 증상에 가장 가까운 증상을 유발하였던 물질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인에게 질병의 증세를 유발하는 물질이 대부분 독극물이었기 때문에 원래의 병은 치료

될 수 있을지라도 그 독극물에 의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독극물을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을 정도로 희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독극물을 여러 단계로 희석해서 독극물의 분자가 용액에 한 개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까지 희석해도 그 치료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효과가 희석을 하면 할수록 증가하였다. 물질이 없는데도 물질의 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오히려 효과가 증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빛보다 빠른 파동의 세계는 매우 미약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과학적 측정이 쉽지 않지만 기존의 물리적 세계와 공존하고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빛보다 빠른 파동의 세계에서는 우주의 무질서는 계속 증가한다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무너지며, 구체적인 정보가 흩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담겨 있을 수 있다.

2.2.1. 정보를 담는 토션장

1922년 프랑스의 수학자 카탄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전자기장이나 중력장과는 전혀 다른 토션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최초로 발견 되었다. 물리학적으로 비교 한다면 전하로부터 전자기장이, 질량으로부터 중력장이 그리고 회전으로부터 토션장(혹은, 스핀장)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원자마다 핵이 있는데 스핀(물리학적으로 전자나 핵의 회전을 의미)의 방향이 다른데, 원자핵과 전자의 스핀 배열 상태에 따라 특정한 토션장이 만들어 진다. 또 원자핵과 전자뿐 아니라 원자의 물리적 회전 방향에 의해서, 단순한 회전이 아닌 나선형의 회전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공간적 구조를 갖는 특정한 토션장이 만들어진단다.

물질의 각 원자마다 핵과 전자의 스핀과 또 원자의 물리적 회전이 편극화 되

며, 각각 원자의 토션장들이 중첩되어 물질의 전체적인 토션장이 공간에 표현된다. 즉, 각 물질마다 독특한 토션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및 스핀의 각 속도가 일정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적 토션장을 공간에 형성하며, 회전의 각 속도가 계속 변화한다면 동적인 토션장을 형성한다.

동적인 토션장에서는 전파되는 토션파가 발생한다. 정적 토션장은 매우 약해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나 동적 토션장은 전달받는 물체의 스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다.

토션파는 매우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 토션파는 주위 환경에 흡수되지 않고 진공 중에서도 매질 없이 전달된다. 그리고 토션파의 전달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특별히 전자기장이 생성되는 경우, 물질의 스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자기장과 토션장은 함께 진행하게 된다. 전자기장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토션장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토션장이 함께하지 않는 전자기장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토션장은 특별한 전자기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토션장은 히란야(특별한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도형이나 그림)나 부적과 같은 2차원적인 도형에서 발생할 수 있고, 피라미드와 같은 3차원적인 공간의 특이한 배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토션장은 특이한 그림이나 도형, 공간적인 배치뿐 아니라, 평범한 문자와 그림에도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담을 수 있다. 이러한 문자나 그림에 담긴 토션장은 복사나 스캔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고, 또 디지털 코드로 변환되어 이메일로 전달될 수도 있음을 최근 필자의 연구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토션장은 에너지를 운반하지 않고 단지 스핀이나 회전의 배열 상태로 나타나는 정보를 전달할 뿐이다. 이런 성질은 물리학적으로 매우 특이하다. 그렇지만 에너지의 변화는 없더라도 전달받은 물질의 스핀 상태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션장의 측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토션장의 영향은 전달되는 물체뿐 아니라 공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물에도 구체적인 물질의 토션장이 담길 수 있다.

물리적 진공을 통해서 전달되는 토션장은 부분에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는 홀로그래픽인 특성을 보인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기(氣)라 할 수 있다.

2.2.2. 빛보다 빠른 토션장

토션파는 빛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성질을 갖고 있다. 빛보다 빠른 속성을 갖는 토션파를 다시 살펴보자. 영국의 물리학자 디랙에 의하면 ‘진공은 가득 차 있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진공은 측정되지 않는 마이너스 에너지의 입자로 가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강한 빛에너지에 의해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진짜 전자로 변해버리고, 그 자리는 비게 된다. 그 빈자리는 전자와 같은 성질을 갖지만 반대의 전하를 갖는 양전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빛에너지는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2개의 입자는 사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2개의 빛으로 붕괴한다. 놀랍게도 이렇게 형성된 2개의 빛(광자)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동일한 편광각을 유지하고 있다. 즉, 빛의 속도로 서로 멀러져 가고 있는데도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듯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의 연락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EPR 역설이라고 한다.

어쨌든 광자가 그것의 쌍이 되는 광자와 편광각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초광속 통신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토션이론에서는 물리적 진공을, 단지 반대의 전하를 가질 뿐 아니라 각각 다른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와 양전자의 파동 형태의 패키지로 가득 차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로의 스핀이 서로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전하뿐 아니라, 서로의 스핀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진공을 서로의 스핀이 상쇄하고 있는 상태인 파이톤(Phyton)이라는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한다.

토션이론에 의하면 물리적 진공이 서로 다른 방향의 스핀의 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광자가 이동하는 궤적이 공간에 스핀이 편극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연결되어 초광속통신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2.2.3. 열역학법칙이 무너지는 세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빛과 물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빛과 물질이 처음부터 다른 존재는 아니며, 서로 변환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인 $E=mc^2$ 은 빛과 물질이 서로 변화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원래 이 공식은 분모에 $\sqrt{1-v^2/c^2}$ 이 추가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빛의 속도에 비해서 물체의 속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분모의 값 1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sqrt{}$ 안의 값이 0에 가까워지면 물체의 에너지는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된다. 이는 현재의 물리학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만약 토션파와 같이 빛보다 빠른 존재가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는 $\sqrt{}$ 안의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sqrt{}$ 안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값은 허수라고 부르며, 수학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다.

따라서 필자는 빛보다 빠른 토션파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맥을 예로 들어보자. 이 세상 모든 것은 빛 아니면 물질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맥은 빛인가 물질인가? 수맥을 물질이라 볼 수 없을 것 같다. 수맥은 빛이다. 하지만 수맥은 기존의 빛 이론(파동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면들을 갖고 있다.

수맥의 에너지는 매우 약해서 현대과학의 측정방법으로 관측되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수맥에 쉽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간단한 훈련으로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도 수맥을 감지 할 수 있다. 어떤 초능력자는 수맥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 수맥이 있는 곳도 그는 평소에는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고 지나가지만, 그가 수맥을 느끼고자 하면 수맥은 단단한 벽으로 변해서 그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수맥이라는 빛은 퍼져나가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물리적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수맥은 바로 토선파이기 때문이다.

수맥뿐 아니라 자석의 N극과 S극이 나타나는 장(場)도 바로 토선파이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공간에 나타나는 장은 쇳가루를 뿌려줌으로서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자석에 의해 나타나는 장이 물질이 아니라면 빛일 수밖에 없다. 이 빛은 공간에 일정한 형태를 이룬다. 바로 토선파인 것이다.

그 뿐이 아니라, 만유인력을 생각해 보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잡아끄는데, 이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만유인력은 분명히 물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만유인력은 빛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유인력이라는 빛을 설명할 수 있는 파동이론은 없다. 결국, 만유인력도 빛보다 빠른 일종의 토선파라고 본다.

빛보다 빠른 토선파의 세계에서는 기존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다.

우주를 지배하는 열역학법칙이 있다. 제 1법칙은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법칙이고 제 2법칙은 우주의 엔트로피(무질서도)는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만약 열역학법칙들이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무너지면 무에서 에너지를 창조하는 일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법칙이 무너지면 엔트로피는 저절로 감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퍼지지 않고 저절로 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빛보다 빠른 토션장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토션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같이 일방적으로 퍼져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들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 모습에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담길 수 있으며, 심지어 민감한 사람은 그 형태를 만질 수도 있다.

그리고 토션파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며 앞서가기도 한다. 토션파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지금도 생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토션파는 너무나 미약해서 현대과학의 측정방법으로는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면서 보이지 않는 토션파의 세계는, 지금 보이는 세계와 공존하며 보이는 세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토션파가 바로 디지털 바이올로지에서 표현하는 파동일가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종요법에 의해 물에 담기는 물질의 정보이기도 하다. 이 파동에는 물질과 생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 바로 이 책에서 표현하는 생체정보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氣)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는 다음에 살펴보듯이 홀로그램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2.2.4. 생체정보 분석의 원리

생체정보 분석 장치는 토션장 혹은 토션파로 표현되는 생체정보를 측정해준다. 생체정보는 인체의 어느 부분이나 담겨 있다. 바로 인체의 어느 부분이나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혈액, 소변, 머리카락 등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 측정하더라도 상관없이 전체의 생체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파되지 않는 정적인 토션장은 에너지적으로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측정장비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토션장의 측정은 자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 바로 인체를 회로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원리는 O링 테스트라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쪽 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원(O링)을 만들고, 다른 쪽 손에는 물질을 들었을 때, 이 물질이 내 몸에 맞으면, 한쪽 손의 O링이 강해지고, 물질이 내 몸과 맞지 않으면 O링은 약해진다. 예를 들어 사과가 내 몸에 맞는다면 사과를 만지거나 한쪽 손에 드는 순간, 다른 쪽 손의 O링이 강해지는 것이다. 사과를 손에 만지는 것만으로 다른 쪽의 손가락의 힘이 증가되는 생리학적인 원리는 없다. O링 테스트는 사과가 내 몸과의 특별한 상화작용을 통해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생체정보 분석의 원리는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에 아주 약한 전류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 있는 인체의 생체정보를 담은 후 오퍼레이터의 몸을 통과시킬 때, 오퍼레이터의 몸이 생체정보와 반응하여 자율신경이 민감하게 하게 반응하여 근육반응의 변화 혹은 피부저항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어떤 측정 장치도 생체정보가 실린 전류와 그렇지 않은 전류를 구별해 내지 못한다. 하지만 인체는 생체에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하여, 생체에 좋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와 나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 탐지기와 매우 비슷한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현재의 어떤 측정기구로도 수맥을 측정을 할 수 없으나 인간은 버드나무 가지나 L-로드, 혹은 추를 이용하여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피부저항의 변화를 읽어내는 생체정보 분석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일본의 노무라 하루히코 박사가 했던 다음의 실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피실험자가 카본섬유보드에서 2~3m 떨어진 곳에 앉아 있고, 뇌파, 호흡수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를 몸에 부착한다. 그리고 피실험자의 손은 센서 위에 부착, 손바닥 가운데 있는 노궁혈을 통해서 나타나는 피부저항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피실험자의 2~3m 뒤에 있는 보드에 한 사람 분의 발열량에 해당하는 정도의 전류를 흘리면서, 피실험자에게서 나오는 뇌파, 호흡수, 손바닥의 피부저항의 변화를 기록한다. 실험 결과는 전류를 넣었다 끊었다 할 때마다 노궁혈을 통해 나타나는 피부저항이 재현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피실험자의 뇌파나 호흡수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결국 피실험자의 등에 있는 세포가 손바닥의 노궁혈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하지만 뇌에는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뇌파나 호흡수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피실험자는 전류를 넣거나 끊거나 했던 것을 실험 중에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 실험 결과의 중요한 점은 뇌에 ‘정보가 전달되고 안되고’에 관계없이 ‘세포끼리 의사를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의식과 무관하게 생체정보에 일정하게 반응하는 인체를 회로의 일부분으로 이용하는 것이 생체정보 분석의 원리이다.

생체정보 분석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은 각각 다른 코드로 분리하여 각 코드마다 인체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했다. 그 수치가 높을수록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고, 수치가 낮을수록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판단한다.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사람이 회로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서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측정치가 변할 수 있다면 전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숙련된 오퍼레이터의 경우 95% 이상의 재현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

다. 생체정보 분석이 많은 정보를 전해주지만 아직 과학계나 의학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의 이론으로 설명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재현성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을 선입견 없이 탐구함으로써 진정한 과학의 발전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연구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생화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현원 교수는 본인을 찍은 사진의 생체정보 분석을 한 결과, 본인의 정보를 간직하고 있었다. 20여 년 전 사진부터 한 달 전 사진까지 시간별로 다양하게 측정한 결과는, 한 달 전 찍은 사진이 본인의 생체정보와 가장 근접한 값을 보였다. 하지만 오랜 과거에 찍은 사진도 현재의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갖고도 생체정보 측정을 해보기 위해 노력해 보았으나 이 경우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고 한다.

3. 신체 치료를 위한 색채

3.1. 색의 형(形)과 의(意)

홍콩과 미국에서 활동 중인 린윤에 의하면 색깔은 형(形)과 의(意)에 따라 활용된다. 형은 우리의 감성과 지성, 육체가 색깔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같이 주관적인 것이다. 또한, 형을 통해 외적 요소인 색깔이 어떻게 우리의 기를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은 그 날의 기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자신의 기와 조화를 이루는 색을 선택하면 당신의 하루는 활짝 피어나지만, 선택한 색이 그날의 기분과 어긋난다면 당신은 그 색으로 인해 화를 입을 수 있다.

형을 통해 색깔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알 수 있다. 어떤 색은 흥분을 유발하지만, 어떤 색은 희망을 준다. 관념과 색깔의 연상 작용을 통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초록색은 봄과 희망을 상징하지만, 짙은 갈색은 겨울을 상징하는 색으로 동면(冬眠)을 연상시킨다.

‘의지’, ‘목적’, ‘염원’ 등으로 해석되는 의(意) 역시 형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의로서 사물이나 사람의 기(氣)를 향상시키고 조절할 수 있다. 이미 드러났거나 앞으로 드러나게 될 축복의 형태로 나타나는 의에는, 단순한 의식에서 신비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료와 실천 방법이 있다. 이 축복은 성공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정신적 안정과 이해와 자각을 깊게 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반영한다. 의는 우리의 의지를 집중할 때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염원을 담고 있다. 의를 통해 색깔을 활용하여 기를 계발하고 영을 고양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불운을 행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의’를 활용한 치유법에는 본 연구의 기본이 되는 오행색상론과 7색 스펙트럼, 육진색의 세가지 방식이 있다. 이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정적치유와 순환치유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⁵⁹⁾

① 정적치유

정적치유(Static Cures)에서는 오행의 색깔 중 한 색 또는 모든 색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보면, 논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 사무실은 내부를 화(火)의 상징인 적갈색으로 장식하거나, 변호사의 의상이나 넥타이를 적갈색으로 해야 한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고객의 기(氣)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섯 가지 색깔이 모두 들어간 의상을 입는다.

실제 건물, 방, 옷, 음식 등에 오행 색깔 모두를 활용시 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59) 홍성정 역, 컬러로 보는 생활풍수와 인테리어, 동도원, 1999, p.34.

② 순환치유

오행의 상생 주기와 상극 주기의 역동적인 순환을 활용하는 순환치유(Cyclical Cures)는 가정, 사무실, 옷, 음식, 자동차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 있는 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람의 성향과 기(氣)를 조절한다.

색을 이용한 치유법에서는 형과 의를 모두 활용하지만 개개인의 의지를 의미하는 의를 더욱 중시한다. 의는 신앙치유의 한 형태로서 사람의 의지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촉발 시킨다. 그러나 의를 충분히 깨닫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수행과 명상이 필요하게 된다. 더구나 많은 비의(秘義)가 담긴 활용법을 습득하는 데에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3.2. 색의 심리적 영향과 생리적 영향

빛이 눈에 들어오면 눈의 여러 구조를 통해 마침내 시신경이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데 이 정보에 따라 인간은 특정한 색을 접했을 때 따뜻하다, 또는 차갑다 등의 각기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무게는 같을지라도 하얀색을 칠한 박스보다 검정색을 칠한 박스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 또 온도와 재질이 같은 파란 병에 들어 있는 음료수가 빨간 병에 들어 있는 음료수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체로 스펙트럼의 장파장 부분의 색, 즉 빨강, 주황 그리고 노랑의 색들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단파장 부분의 색, 즉 파랑, 녹색 계열의 색들은 차가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명도가 높은 색들은 가벼운 느낌을 주고, 명도가 낮은 색들은 무거운 느낌을 준다. 또, 붉은색 계열의 색들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푸른색 계열의 색들은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색채와 심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종 상품개발 및 인간이 살아가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색채와 심리가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한 예를 들어, 홍지수(1994)에 의하면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방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한 집단은 그러지 않은 집단에 비해 초조감이나 적의 있는 말 등이 12%나 줄었다고 한다. 이렇게 환경에 있어서의 색채의 역할이 점차로 밝혀지면 벽지를 고를 때나 커튼의 색을 결정할 때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움은 줄 수 있다.

한편, 색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박지현 등(1999)은 빨간색, 파란색, 흰색의 벽이 있는 색채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피실험자를 들여보내고 20분 후에 피실험자의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해 본 실험에서 맥박은 빨간색, 흰색, 무적용, 파란색의 크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색채군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최고혈압은 빨간색, 흰색, 파란색, 무적용 크기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혈압은 무적용, 빨간색, 파란색, 무적용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색채군 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실내식물 및 색채자극이 대뇌 활성화 및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종섭, 손기철(1999)에 따르면, 신문지를 통한 시각적 자극을 한 대조군에 비하여 녹색, 녹색 식물 사진 그리고 실제 녹색 식물로 시각적 자극을 한 집단이 뇌의 전 구역에 걸쳐 안정 이완된 상태에서 대뇌활성도의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각 자극에 대한 피부온도의 변화에 대한 실험에서는 적색 자극에서보다 청색, 녹색과 연관된 자극에서 온도가 낮아졌다고 한다. 즉, 청색 또는 녹색의 자극들이 안정화 경향 또는 위축 반응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

정우석(2002)은 색채 조명으로 인체 생리 신호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한색계통에서는 α 파의 활성화를, 난색 계통의 색에서는 β 파의 활성화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빨간색은 인체의 흥분도를 증가시켜 피부 전도도의 상승을 알 수 있었고, 파란색과 녹색에서 흥분도를 억제함으로서 피부전도도의 하강을 볼 수 있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정동실(2000)의 연구에서 파랑, 보라, 빨강 색이 인체 평형감각을 저하 시키고 노랑, 녹색이 인체 평형감각을 향상 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색채가 사람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평형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Gibert Brickhouse는 수백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색광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측정 하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근육의 활동을 검사해 보았다. 그는 그 실험에서 빨간색 색광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평상시보다 12% 빨라지지만, 초록색 색광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더 지연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골드슈타인은 소뇌에 이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경증 환자와 정신병 환자들에게는 색채의 영향이 증가한다.’ 고 기술했다. 그 환자는 걸쭉하면 넘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 했으며, 빨간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런 증세가 더 심화 되었지만, 초록색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정반대의 효과가 생겨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울 정도로 몸의 균형이 회복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색채는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색은 눈을 통해서만 흡수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 된다. 1968년 Lucey가 처음으로 신생아 황달의 치료에 있어서 광선치료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그 후 광선치료의 임상 이용으로 신생아 황달에 대한 교환수혈을 요하는 빈도를 현저히 감소 시켰다. 최근 광선치료의 효과에 있어서 가시광선 중 청색 광선이 가장 우수함을 알게 되었으며 광선의 밝기보다는 오히려 광선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현저함이 증명 되었다(고창우, 1980). 청색광을 쬌 때 치료 받는 신생아는 눈을 가린 상태로 처치된다. 이는 눈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직접 색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3.3. 색과 인체와의 상관관계

3.3.1. 색채 호흡

우리는 물리적 신체와는 별도로, 기(氣) 혹은 전자기적 영역으로 알려진 우리 주위를 둘러싼 미묘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영기(aura)라고 하는데 영기는 알 모양이며 여러 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참조] 영기의 색은 각 개인의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태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기분이나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영기의 색의 변화로 건강이나 기분 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영기의 빛깔로 병을 진단하거나 영기의 색을 조절하는 색채 치료가 있다. 영기의 빛깔은 심령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인다고 하나 최근엔 일반인들도 영기를 볼 수 있는 기체가 발명 되었다. 영기치료사들은 자신의 기(氣)로 환자의 기(氣)의 균형을 바로 잡아 주기도 하고 환자 스스로가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기(氣)의 밸런스를 찾기도 한다.

전자기력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색채 호흡법을 실시하는 동안 명상을 하는 것이다. 색채 호흡의 기법은 인도 요가의 거장이 개발해 낸 것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색채에 정신을 집중하고, 이를 호흡 과정에 사용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다(Walker, 1998). 이 때 명상을 돕기 위해 필요한 색상에 해당 되는 색상지나 실크, 꽃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꽃을 이용하는 방법은, 꽃이 가진 색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꽃의 향기 또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꽃은 명상이나 호흡에 이용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치료를 하기도 한다.

색채 호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크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크라(Chakra)는 범어로 바퀴 또는 원을 뜻한다. 인도의 철학에 의하면 차크라는 연

꽃에 비유 되어지며, 우리의 ‘기(氣)’에 해당 되는 인도의 프라나(prana)는 에너지 저장고인 차크라를 통해 출입한다. 다섯 개의 주요 차크라는 일정한 지점에서 척추와 교차한다. 각 차크라는 고유의 색채를 띄며 차크라의 색채는 그 차크라가 위치한 곳과 가까운 신체 영역에 대한 치료 색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무라타라 차크라(Muladhara Chakra)는 영어로는 루트 차크라(Root Chakra), 우리나라 말로는 근본 차크라라고 부른다. 척추 맨 아래 미저골(尾骶骨)의 바로 밑에 위치하고 붉은 색이며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이며 생명력의 근원인 쿤다리니(Kundalini)가 내재해 있다. 이 차크라에 영향을 받는 신체는 다리, 발, 뼈, 대장, 척추 그리고 신경 체계이다.

스와디스타나 차크라(Swadisthana Chakra)는 배꼽아래 두 세치 되는 부위, 즉 단전(丹田)의 자리에 위치하고 방광계, 즉 비뇨기계통의 기능을 관장 한다. 색채는 주황색이고 성(性)과 연관 된다.

마니푸라 차크라(Manipura Chakra)는 위(胃)의 상부, 즉 의학계에서는 태양신경총(太陽神經叢)의 자리, 동양 침술학계에서는 중완(中腕) 자라라고 한다. 소화와 흡수의 과정에 관여하며 노랑색이다.

아나하타 차크라(Anahata Chakra)는 가슴의 한 복판에 위치하며 오늘날 심령과학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초능력은 이 차크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색채는 초록색을 띄며 심장과 순환계, 폐와 호흡계, 면역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비슈다 차크라(Vishuddha Chakra)는 인후부에 위치하고 파랑색을 띤다. 신경계통, 여성 생식기관, 소리를 내는 기관 그리고 귀를 관장한다.

아지나 차크라(Ajna chakra)는 미간에 위치하고 남색을 띄며 눈, 코, 귀 그리고 뇌와 연관이 있다. 이 차크라가 불안정하거나 불균형하면 피로, 신경과민, 감기, 불면증, 천식, 스트레스, 신경염과 편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하스라라 차크라(Sahasrara chakra)는 우리말로는 두정(頭頂) 차크라라 부르며 머리의 정수리 위에 위치한다. 주 색상은 보라색이며 우리의 기분을 조절

한다.

이렇듯, 각각의 차크라라는 신체의 치료와 연관이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차크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가체조나 색채 명상, 호흡 등을 통해 그 차크라에 해당하는 색을 떠올리는 방식의 색채치료가 있다.

3.3.2. 한의학에서의 색채치료

서양에서는 그리스 시대에 세상이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당시에 동양에서는 음양설(陰陽說)과 오행설(五行說)이 합해진 음양오행설에 따른 세계관이 있었다. 오행, 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각각에 해당하는 방위와 색채, 인체의 장기 등이 있었다.

심장에는 붉은 약재를, 간에는 푸른 약재를, 위에는 누런 약재를, 폐에는 희 약재를, 신장에는 검은 약재를 처방 하였다. 예를 들면, 심장에는 오미자와 붉은 대추, 구기자 등이 쓰이는데 이 약재들이 모두 붉고 둥근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간에는 인진쑥, 청매, 지실 등이 쓰이는데 모두 푸른 약재들이다. 폐에는 흰색을 띄는 산약, 인삼, 황기, 백출 등이 쓰이고 신장에는 검은색을 띄는 숙지황, 오매, 흑두 등이 쓰인다. 위에는 누런색을 띄는 감초, 하피 등이 쓰인다. 또한 한의학에 있어서 색채이론은 오행에 배속된 이론으로 생리, 병리, 진단 면에서 폭넓게 이용 되어 왔다.

최근에는 색채요법을 경락이론과 연관시킨 색침 요법, 체질이론과 연관 시킨 팔체질테이핑 요법, 피부 질환과 동통 질환에 뚜렷한 임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종합가시광선 등의 이학요법의 형태로 응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이론적 근거들은 미약한 상태이다.(신승우 외, 2000)

4. 색채선정의 방법

풍수인테리어에 색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방법들은 서로 보완, 협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길들이다.

4.1. 기질(氣質)의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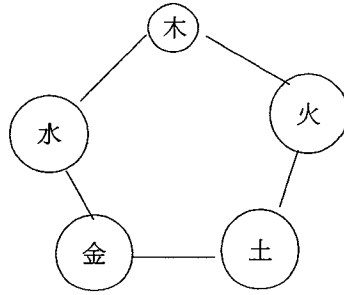
몸속 오행의 기(氣)에 따라 상생 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힘의 크기는 오행 중 가장 작은 기(氣)에 비례하기 때문에 작은 기에 해당하는 기를 유입해야 기의 순환도 원활하게 되어 힘이 생기고 인체의 모든 기능도 원활해진다. 반면에 작은 기(氣)에 극(剋)하거나 설(泄)하는 기(氣)가 들어온다면 작은 기(氣)가 더욱 약해지므로 기(氣)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힘도 약해지고 신체의 기능도 떨어져서 병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가장 부족한 기를 기질(氣質)이라 한다. 이는 다음의 O-링 테스트를 통해 알 수 있다.

4.1.1. O-링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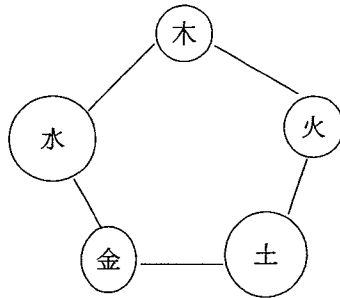
O-링 테스트는 기(氣)를 발생하는 모든 것에 적용 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는 음식을 비롯해 문자(한글, 한자, 이름 등)와 실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서는 색(色)을 통해 자신의 기질(氣質)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인간의 체형을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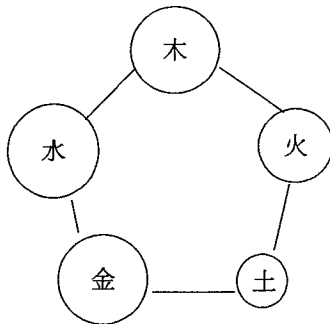
① 청색(靑色)에 힘이 있는 사람 - 기질(氣質)이 목기(木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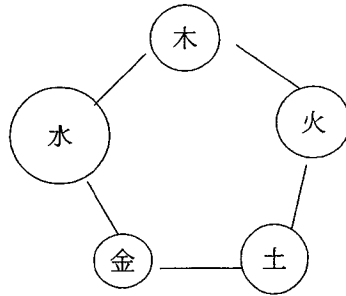
② 적색(赤色)에 힘이 생기는 사람 - 기질(氣質)이 화기(火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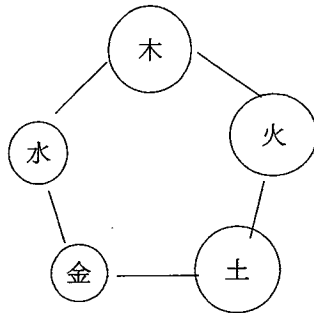
③ 황색(黃色)에 힘이 있는 사람 - 기질(氣質)이 토기(土氣)



④ 백색(白色)에 힘이 생기는 사람 - 기질(氣質)이 금기(金氣)



⑤ 흑색(黑色)에 힘이 생기는 사람 - 기질(氣質)이 수기(水氣)



O-링 테스트는 테스트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음양오행 기의 차이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O-링 테스트는 상대의 힘을 고려하여 O-링을 만든 손가락 사이로 양쪽 검지를 넣어 지긋이 당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기는 과학이다’를 저술한 이권배씨의 테스트 결과 80%정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기질(氣質)을 찾아 낼 수 있다고 한다. 동일 개체의 생명체에 연속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과학으로 밝혀 낼 수 없다면 이 역시 초과학의 영역이다.

4.1.2. 기질(氣質)의 조화와 부조화

모든 기(氣)가 무조건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氣質)을 찾아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氣)의 크기가 달라 생기는 불균형이 심해지면 오행(五行)의 각 기(氣) 가운데 많은 양의 기(氣)가 적은 양의 기(氣)를 더 적게(剋)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힘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氣)가 관장하는 인체의 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크게 봐서 전체의 기(氣)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체는 기(氣)를 발산하기도 하지만 기(氣)를 흡수하기도 한다. 기를 흡수할 때 기질(氣質)을 흡수하면 힘이 커진다는 것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기는 과학이다’를 저술한 이권배씨는 다음과 같이 가족 개개인의 기(氣)를 조사한 바 있다.

① 서로 남남으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의 기질(氣質) 구성

- 기질(氣質)이 동일한 부부 : 70%

(자식의 기가 대부분 동일하나 구성원의 많을 경우 기가 다른 사람이 생기며 소외 되는 경향이 있음)

- 기질(氣質)이 상생되는 부부 : 20%

- 기질(氣質)이 상극이 되거나 상생 되지 않는 부부 : 10%

(위의 두 경우는 그 자식들의 기가 대부분 강한 쪽을 따라가고 있으며 간혹 약한 기를 따르는 자식도 있음)

이와 같이 한 가족의 기질(氣質)을 조사한 결과 가족은 대부분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질(氣質)이 같다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는 것이며, 흥망성쇠의 때가 같다는 것이다. 이는 “3대 거지가 없고 3대 부자가 없다”는 옛말처럼 우주 순환에서 오는 기(氣)의 변화를 읽어서 세운 학리를 가지고 설명

할 수 있다.

②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대부분 동일한 기질(氣質)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氣質)과 상생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접근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유유상종하는 것이 소단체(小團體)를 통해 밝혀졌다. 반면에 단체가 크면 클수록 그곳에는 음양오행의기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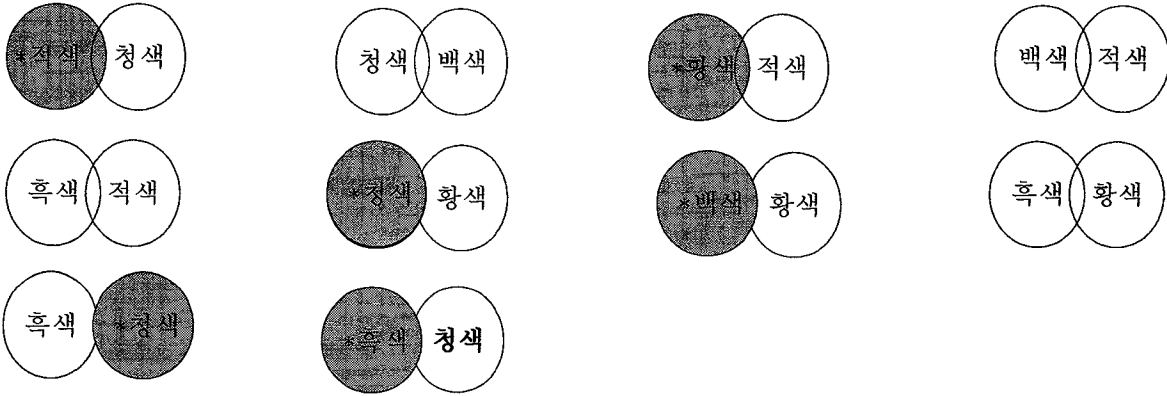
③ 기질(氣質)이 있는 곳에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다. 이는 인간이 대부분 기질(氣質)에 해당하는 직종의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기질(氣質)이 수기(水氣)인 사람은 물과 관련된 직업을 보통 갖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몸에 모자라는 기(氣)를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이는 실로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인체는 기질(氣質)을 얻어 체내의 기의 순환을 돕게 된다. 힘(氣運)이 생기고 힘이 생기므로 다른 일을 할 때보다 업무의 능률이 오르는 것이다.

④ 색의 음양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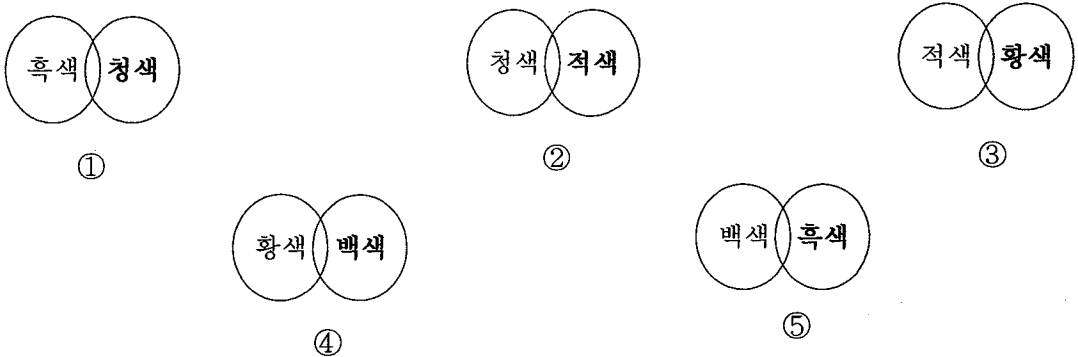
인간은 색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개개인마다 인체에 맞는 색깔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색상의 옷을 입혀보면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다. 이 현상은 색상에도 기(氣)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음양오행의 기(氣)에 따라서 어울리는 색상이 있다. 색상 하나하나에 기(氣)가 있고 서로 상생・상극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O-링 테스트에서 우리는 이미 자신의 기질(氣質)을 알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색상이 겹쳐져 있을 때도 위의 O-링 테스트에서 힘을 느낀 색상을 쳐다보고 힘을 느끼는 색상에서 그 겹쳐져 있는 색상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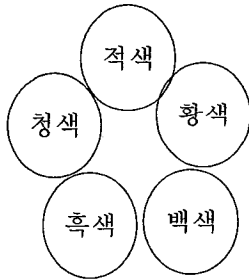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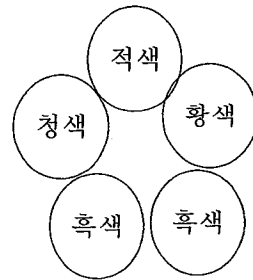
위 두 가지의 검사를 통해서 청색에 힘이 작용한 사람은 <예시2>의 ①에 힘이 있고, 적색에 힘이 작용한 사람은 <예시2>의 ②에 힘이 있다. 황색에 힘이 작용한 사람은 <예시2>의 ③에 힘이 있고, 백색에 힘이 작용한 사람은 <예시2>의 ④에 힘이 있다. 흑색에 힘이 작용한 사람은 <예시4>의 ⑤에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예시1>의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는 것과 작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표가 있는 쪽은 기를 발산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기가 발산되지 않는다. 이유는 기가 설(泄)하게 되든지 충(沖)하게 되어 멸(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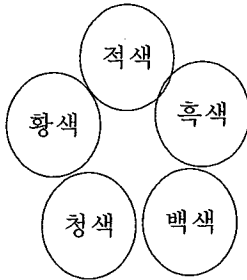
<예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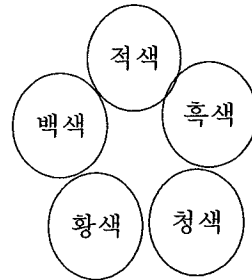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위 <예시3>의 ① ② ③ ④ 중에서 ①의 경우는 어느 것을 쳐다보고 O-링 테스트를 해보아도 다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② ③ ④의 경우는 어느 것을 보아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음양오행이 상생(木:청색→火:적색→土:황색→金:백색→水:흑색)하면 힘이 존재하지만 상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힘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는 우리 몸속에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기(氣)가 상생하여 돌고 있다. 이와 같이 오행이 상생해서 내놓은 기(氣)가 우리의 눈(目)

이나 손(手)으로 들어와 우리 체내의 기(氣)를 자극하여 상생 운동을 촉진시킴으로서 힘(氣, Energy)이 생기기 때문이다. 위의 검사에서처럼 색상에도 기(氣)의 작용을 찾아볼 수 있으니 삼라만상 가운데 어느 하나도 기(氣)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기(氣)가 어떤 것인지 기(氣)의 상생・상극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4.2. 십간(十干)과 음양오행의 조화

①상생 되는 색채간의 배색을 고려한다.

색상만을 고려했을 때, 노랑(yellow)과 남색(purple blue)은 보색 관계에 가깝지만 음양오행의 원리로 살펴본다면 남색은 갑목(甲木)이며, 노란색은 기토(己土)로서 각각 천간합(天干合)의 이상적인 색채 배색을 의미한다.

또한 붉은 계열의 색상을 배색 한다면 이어지는 주변 색상의 배색은 상생 관계의 색인 청색 계열의 색채를 배색 할 수 있는데 이는 붉은 계열의 화(火) 기운을 청색 계열의 목(木)이 생하여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만 이러한 색채 계획을 할 때에는 색상만을 고려 할 경우 각 실내의 분위기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색채학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계열의 색채 계획은 산만한 분위기와 디자인적이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의 고려 외에 적합한 채도와 주변 색상과의 고려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② 공간의 오행 의미와 일치, 상생 되는 색채 계획을 한다.

각각의 실내가 의미하는 오행 요소를 파악하여 그와 합일, 일치, 상생되는 색채를 고려하여 배색을 한다. 병・의원을 오행으로 풀이한다면 정화(丁火)인데 정

화(丁火)의 색채는 저채도의 붉은색 계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간호사의 복장이 깨끗함을 의미하는 흰색에서 최근 핑크계통의 칼라 스타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정화(丁火)의 고유 색상을 나타낸 하나의 예시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오행의 편중된 기운은 적합한 색채 계획의 고려로 분산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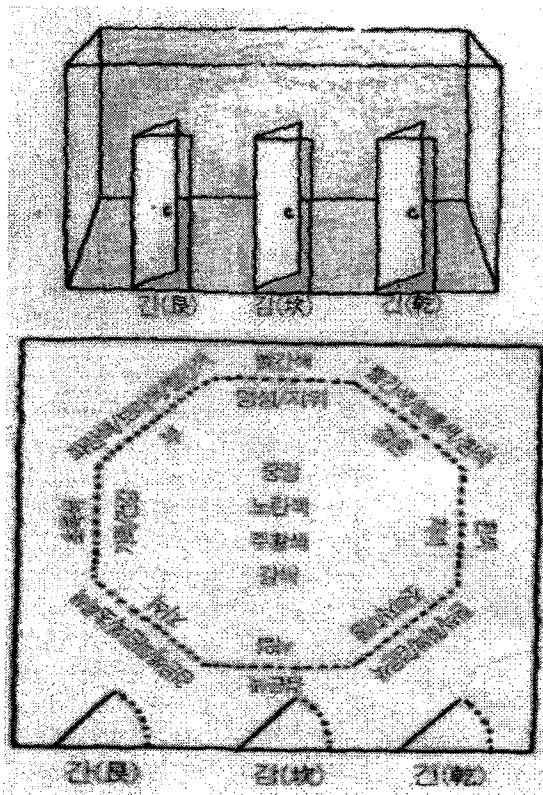
하나의 예로서 동쪽의 방위(方位)에 마감재로 목재의 사용이 지나치게 과했다면 이를 오행상 목(木)의 기운이 합쳐져 편중된 결과로 길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나무의 기운을 목생화(木生火)하여 발산 시켜주는 상생관계인 화(火)의 색채인 적색 계열의 색채 계획이 길하다. 또한 그와 반대로 오행의 구성이 지나치게 약해진 공간이라면 그 오행을 생(生)하여 주는 오행의 색채를 사용한 색채 계획을 해준다.⁶⁰⁾

60) 서진원, 풍수와 음양오행의 인테리어 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산업대학원, 2003, p.28-30.

<표8> 오행의 상징 색상과 특징

	색	기본 성질	부족할 때	과도할 때
목	녹색	인(仁) 친절한, 측은심 • 자비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물이 맑고 수려하다.	인자하지 못하고 질투심이 많다. 주관이 없다.	마음이 한쪽으로 치운친다. 고지식하다.
화	붉은색	예(禮) 충명하고 논리 정연 한 다. 예의바르다.	대부분 신체가 마른편이 다 질투심이 강하다. 일의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	말씨와 성질이 급하다. 쉽게 흥분한다
토	황색 갈색	신(信) 언행이 신중하고 신앙심 이 강하다. 매사 공정하게 판단한 다. 스스로 기회를 만든다.	근심이 많다. 기회주의적이다. 불안정하고 산만하다. 성실하지 못하면서 고집만내 세운다.	지나칠 정도로 순박하 다. 고집스러우며 때론 어리석기까지 하다.
금	흰색	의(義) 정의감이 강해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다.	결단력이 부족하면 일의 진행하는데 있어 용두사 미격이 되기 쉽다. 말수가 적고 매사 조심스럽다.	욕심이 많다. 수다스러워진다. 게으르며 한가로운 것을 즐긴다.
수	검은색 회색	지(智)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 다. 문학을 사랑하며, 지혜롭다. 삶을 조화롭게 이끈다.	전략을 세우는데 약하 며, 답에 약하다. 신체는 왜소한 편이다. 욕심이 많다.	거짓행위가 많으며, 유량이나 방탕한 생활을 즐긴다. 스스로의 의지가 약하 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많으며, 음모 를 꾸미기를 좋아한다.

4.3. 오행 팔괘(八卦)의 색깔 구성



<그림 5> 오행팔괘의 색깔 구성

주역의 3효를 기본으로 한 팔괘(八卦)를 방이나 건물의 운 자리에 포개놓는다. 그리고 방 중앙에 팔괘를 상상하면서 문을 중심으로 왼쪽과 중앙, 오른쪽에 세 자리를 머릿속으로 그린다. 이제 문지방에서 봤을 때 오른쪽 문이 '조력자'의 자리인 건(乾)이 되고, 중앙의 문이 '사업'의 자리인 감(坎)이 되고, 마지막으로 왼쪽의 문이 '지식'의 자리인 간(艮)이 된다.

이 팔괘 위에 다시 오행을 포개 놓는다. 이제 오행의 상생 관계에 의한 색깔 구성을 주택이나 방의 특정한 자리에 적용함으로써 거주자의 운에 상응하는 자리의 기운을 증진

시켜, 거주자의 운 자체를 증진 시킨다. 명성과 사업의 운을 향상시키려면 사무실의 '명성'에 해당하는 자리를 찾아 그곳을 빨간색으로 장식한다. 목의 초록색이나 파란색(木生火) 그리고 토의 노란색과 황갈색, 주황색과 갈색(火生土) 역시 '명성' 자리의 기운을 상승시킨다. 즉, 오행의 수평 구성에 속한다.

4.4. 오행과 오제의 색깔

4.4.1. 주택 내부

어떤 형태의 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색깔의 수직 구성으로서 풍수의 기(氣)를 향상 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열 가지 길한 운의 색깔로 이루어진 이 구성은 오행의 상생 주기와 상극 주기를 기반으로 하여 주택이나 방의 수직 구조에 적용한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변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이 두개의 주기는 상징적으로 우리를 그 변화의 과정에 참여시킨다.

음양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창조와 파괴의 물리적인 두 작용은 각기 다른 형태로 발현된 기의 영원한 순환을 상징한다. 오행의 상생 • 상극 주기에 따라 꾸민 방은 대우주의 순환과정을 내포한 소우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① 상생 주기

오행의 상생 주기에 따른 색깔 구성의 적용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한다. 상생 주기표의 이용 방법의 예를 들어보자. 먼저, 바닥의 색깔을 자신이 좋아하는 색 중에서 선택한다. 빨간색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빨간색은 오행의 화(火)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색깔은 화에 의해 생성되는 토(土)와 연관된 색깔이어야 한다. 따라서

벽의 색깔은 노란색이나 베이지색이 된다(아래에서 위로 이동). 그러면 천장은 토에 의해 생성되는 금(金)의 색깔인 흰색이 된다. 이렇게 꾸민 방의 전체적인 구성은 화-토-금의 상생 주기를 반영하고 있다. 오행의 상생 주기에 따른 색깔 구성을 침실에 적용하면 초록색 양탄자에 분홍색 벽재와 베이지색 천장, 또는 연한 갈색의 카펫에 흰색 벽과 연한 회색의 천장으로 구성된다.

② 상극 주기

오행의 상극 주기에 따른 색깔 구성의 활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천장의 색을 흰색으로 정했다면 벽의 색은 흰색을 상징하는 금(金)과 상극 관계인 목(木)의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된다. 그리고 바닥의 카펫이나 양탄자의 색깔은 목과 상극 관계에 있는 토(土)의 갈색이나 황갈색이 된다.

상생주거나 상극 주기에 따라 색깔을 활용할 때 선택된 색깔이 사용자의 마음에 들고, 미적으로 서로 보완해 준다면 어떤 색이든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다.

1.4.2. 주택 외관

① 오행에 따른 색깔 구성의 활용

이 색깔 구성의 적용은 주택 내의 길이나 토대부터 시작한다. 주택의 색깔을 선택할 때는 상생 주기에 따라 길부터 시작해서 벽과 덧문, 장식재, 지붕 순으로 한다. 만약, 길을 토(土)의 색깔인 황갈색 자갈로 포장했다면 주택의 외벽은 흰색으로 꾸며야 한다. 토가 흰색의 금(金)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문은 금에 의해 생성되는 수(水)의 색깔인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하고, 지붕은 수에 의해 생성되는 목(木)의 색깔인 초록이나 파란색으로 칠한다. 그러나 화(火)의 색깔인 빨간색이나 분홍색 벽돌로 길을 포장한다면 주택의 벽은 토의 색깔인 베이지색으로, 덧문과 장식재는 금을 상징하는 흰색, 지붕은 수를 의미하는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해야 한다.

주택 안에 길이 없거나 이 색깔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행의 상생 주거나 상극 주기를 활용하여 색깔을 직접 구성해도 된다. 상생주기를 활용할 때에는 주택의 바닥 장식재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장식재가 없으면 외벽을 상생 주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상생 주기의 색깔 구성은 주택의 바닥부터 시작해서 위쪽에서 마무리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테두리를 화의 색깔인 붉은 벽돌로 치

리했다면 벽은 토의 색깔인 베이지색으로 칠한다(화생토). 그리기 장식재와 덧문은 토에서 생성되는 금의 흰색으로 칠하고, 지붕은 금을 생성하는 수의 검은 색이나 회색으로 칠한다. 그러나 장식재나 덧문도 없다면 바닥 장식재부터 시작해서 벽과 지붕 순으로 적용한다.

상극 주기의 색깔 구성은 지붕부터 시작해서 벽과 바닥 장식재의 순으로 적용한다. 주택의 기(氣)를 상승시키는 초자연의 방법은 오행의 상극 주기에 따라 색깔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에너지를 완벽하게 재순환시켜 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고 거주자의 기를 역동적으로 상승시킨다. 예를 들어, 지붕은 검은색이나 회색(수) 타일을 입히고, 건물 정면은 빨간색(화)으로 칠하고, 아래쪽 가장 자리는 흰색으로 처리하고, 주택의 토대 주위에는 초록색 덩굴(목)을 심고, 굴뚝은 주황색이나 황갈색 벽돌(토)로 만들었다고 하자. 이것은 개인의 기호와 무관하게 오행의 상극 관계를 활용하여 색깔 주기를 구성해 본 것이다. 이러한 색깔 주기에 따라 지은 주택은 기의 역동적인 힘과 도의 끊임없는 변화를 내포하게 된다.

<표 9> 오행의 상생주기

오행상생주기 - 4색					
지붕	분홍색/빨간색 (화)	갈색/노란색 (토)	흰색 (금)	회색/검은색 (수)	파란색/초록색 (목)
덧문	파란색/초록색 (목)	분홍색/빨간색 (화)	갈색/노란색 (토)	흰색 (금)	회색/검은색 (수)
벽	회색/검은색 (수)	파란색/초록색 (목)	분홍색/빨간색 (화)	황갈색/갈색/ 노란색 (토)	흰색 (금)
바닥 장식재↑	흰색 (금)	회색/검은색 (수)	파란색/초록색 (목)	분홍색/빨간색 (화)	황갈색/갈색 (토)

오행상생주기 - 5색					
지붕	분홍색/빨간 색 (화)	갈색/노란색 (토)	흰색 (금)	회색/검은색 (수)	파란색/초록 색 (목)
덧문	파란색/초록 색 (목)	분홍색/빨간 색 (화)	갈색/노란색 (토)	흰색 (금)	회색/검은색 (수)
벽	회색/검은색 (수)	파란색/초록 색 (목)	분홍색/빨간 색 (화)	황갈색/갈색/ 노란색 (토)	흰색 (금)
바닥 장식재	흰색 (금)	회색/검은색 (수)	파란색/초록 색 (목)	분홍색/빨간 색 (화)	황갈색/갈색 (토)
도로↑	황갈색/갈색 (토)	흰색 (금)	회색/검은색 (수)	파란색/초록 색 (목)	분홍색/빨간 색 (화)

<표 10> 오행의 상극주기

오행상극주기 - 4색					
지붕↓	황갈색/갈색 (토)	회색/검은색 (수)	분홍색/빨간 색 (화)	흰색 (금)	파란색/초록 색 (목)
덧문	회색/검은색 (수)	분홍색/빨간 색 (화)	흰색 (금)	파란색/초록 색 (목)	황갈색/갈색 (토)
벽	분홍색/빨간 색 (화)	흰색 (금)	파란색/초록 색 (목)	황갈색/갈색 (토)	회색/검은색 (수)
바닥 장식재	흰색 (금)	파란색/초록 색 (목)	황갈색/갈색 (토)	회색/검은색 (수)	분홍색/빨간 색 (화)

오행상극주기 - 5색					
지붕↓	갈색/노란색 (토)	회색/검은색 (수)	분홍색/빨간 색 (화)	흰색 (금)	파란색/초록 색 (목)
덧문	회색/검은색 (수)	분홍색/빨간 색 (화)	흰색 (금)	파란색/초록 색 (목)	갈색/노란색 (토)
벽	분홍색/빨간 색 (화)	흰색 (금)	파란색/초록 색 (목)	갈색/노란색 (토)	회색/검은색 (수)
바닥 장식재	흰색 (금)	파란색/초록 색 (목)	갈색/노란색 (토)	회색/검은색 (수)	분홍색/빨간 색 (화)
도로	파란색/초록 색 (목)	갈색/노란색 (토)	회색/검은색 (수)	분홍색/빨간 색 (화)	흰색 (금)

② 외부 장식재

건물 정면의 전체적인 색깔을 고려해 외부 장식재를 오행 색깔 - 빨간색, 노란색, 흰색, 초록색, 검은색 -을 활용하거나, 육진색 - 빨간색, 흰색,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색깔을 활용한다면 상생 . 상극 주기에 따르지 않고, 장식재를 빨간색으로 하고, 지붕을 갈색, 창문은 초록색, 창밀 화분을 검은색으로 하거나,



<그림 6> 오행의 모든 색깔

주택의 외관은 흰색으로 하고 지붕은 빨간색, 창문은 초록색, 창밑 화분은 검은색, 화초는 노란색으로 전체적인 색깔을 구성해도 된다.

왼쪽 사진은 오행의 모든 색깔 -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흰색, 검은색 - 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화초와 정원의 가구는 계절에 따라 바뀌도 무방하다. 겨울엔 노란색 의자를 갈색(흙색) 나무 벤치로, 분홍색과 빨간색 페튜니아를 딸기 류의 열매가 열리는 가시나무로 바꾼다.

③ 담장

담장에 가장 어울리는 색은 옥색(玉色)과 빨간색이다. 옥색 담장은 무성한 식물의 초록빛처럼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고, 빨간색 담장은 권력과 귀한 신분을 상징한다. 흰색 담장은 죽음, 질병, 실패를 상징한다. 담장을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칠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담장 주위에 빨간색 꽃 또는 초록색 덩굴식물을 심거나 빨간색의 장식물을 다는 것도 좋다.

색깔을 입히지 않은 나무 담장은 생명력이 없다. 이 때는 담장이 덩굴을 심거나 상록수로 울타리를 만들어 성장, 생명, 희망을 상징하는 담장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울타리에 빨간 꽃이나 딸기과 식물 또는 과일 등을 장식하면 나무 담장, 푸른 잎, 빨간색이 함께 어우러진 결실이 풍성한 사과나무의 이미지가 조성될 것이다.

오행의 상생 주기에 따른 색깔 구성을 담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파란 잔디밭에 검은색 담장이 잘 어울리는 것은 검은색의 수가 초록색의 목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V. 색(色)을 활용한 풍수인테리어

우리는 매혹적인 장소나 어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중압감이 엄습하여 불편했던 일들을 기억한다. 이처럼 장소는 우리의 감정과 반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환경이 어떻게, 왜 특별한 감정을 유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동양의 음양오행은 장소가 내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풍수는 ‘이것이 왜 이래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언어이다. 이는 우리가 유·무의식 적으로 색깔, 모양, 무늬, 냄새, 소리, 감촉에서 얻게 되는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특히, 풍수적 공간에 색을 활용해 보려 한다.

색은 단순한 색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색의 광파는 자는 동안까지(피부로도 색을 감지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색채치료사나 의복, 음식분야에서는 이미 색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자연의 언어인 색을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심도 깊게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다.

1. 개별 색의 특성

색은 우리의 삶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색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규정한다.

둘째, 색은 사람의 운세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한의사는 얼굴색이나 기의 색깔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려 준다. 또한 색은 관상, 수상, 점술 등의 초자연적인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색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초록색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흰색은 순수와 파멸과 죽음을 상징하고, 검은색은 경외로움과 웅장함 그리고 깊이를 상징한다. 기(氣)의 상태가 옷의 색과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기분이 저조하면 본능적으로 빨간색을 꺼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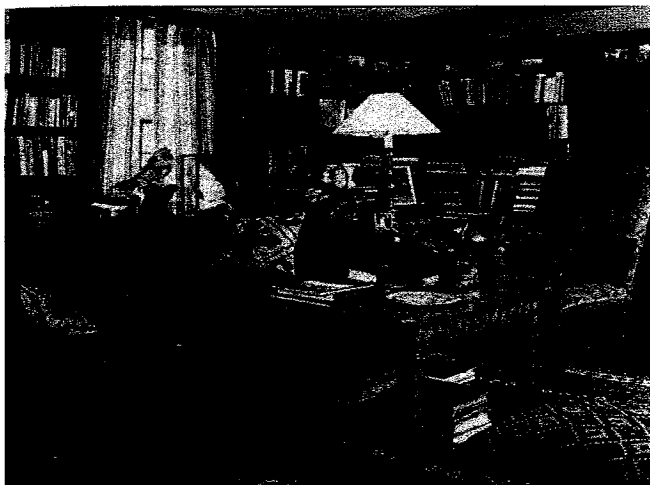
넷째, 색은 사람의 태도를 형성한다. 무채색은 보편적이거나 획일적인 기질을 상징하고, 다양한 색깔은 직업이나 환경이 그만큼 다양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교회에 갈 때 대부분 일정한 색깔의 정장을 차려입지만, 야외에 나갈 때는 다채로운 색깔을 선호한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상인, 여배우 역시 각자의 역할과 업무에 따라 독특한 색깔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1.1. 빨강(레드)

빨간색은 행복이나 따뜻함, 불, 원기, 명성을 상징한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같다.

부신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강하게 하고 적혈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스테미너를 강화시켜 준다. 너무 많으면 짜증이나 화가 나고, 불쾌감을 느낀다.

스펙트럼에서 가장 긴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색보다 빨리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자극, 흥분과 활동성을 자극 한다.



<그림 7> 빨강

1.2. 주황(오렌지)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은 색으로 행복과 권력을 상징한다. 또한, 성적 감각을 자극한다. 소화계에 강력하고 이로운 효과를 준다. 비장과 허파 그리고 췌장을 포함해서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 체액을 분비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삶의 흥미를 되찾게 해준다. 혼합, 협력을 의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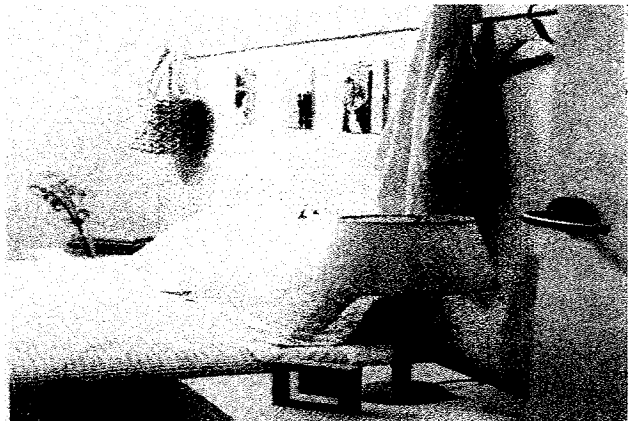


<그림 8> 주황

1.3 노랑(옐로우)

관용과 인내,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상징하는 색이다.

머리를 맑게 하며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⁶¹⁾ 신경계를 강화시켜 준다. 운동신경을 활성화시켜 근육의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림프계를 움직이게 하고 소화계를 깨끗하게 해준다. 췌장, 간장 그리고 쓸개와 공명한다. 행복한 느낌을 주는 색이다. 태양의 색으로 낙천주의자들을 증가 시키고 원기와 유쾌함을 불어넣어 준다. 때로는 신체의 병약한 모습을 만드는 노랑은 관능적인 기분을 망칠 수 있어 침대 머리맡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녹색과 빨강색의 부조화의 메시지를 무효로 하거나 완화 시킬 수도 있다.



<그림 9> 노랑

61) 수지 치아자리, 색(color), 전원문화사, 2002.

1.4. 녹색(그린)

심신 양면에 걸쳐 심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균형과 이완을 불러일으킨다. 균형을 잡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혈액순환 조절을 돕는다. 교감신경계를 통해 작용하므로 가슴의 근육을 이완시켜 심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지식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10> 녹색

신선함, 평온함, 희망을 상징한다. 봄의 성장을 의미하며, 초목이 초록색을 띠고 있으면 그 주변의 흙의 기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대부분 식물의 엽록소 색이다. 엽록소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강력한 촉진제인 효소를 포함한다. 주기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빛 때문에 광합성 감소로 인해 엽록소의 양이 줄어들면 그 식물은 죽기 시작 한다. 잎들은 대개 녹색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녹색은 성장과 부활을 암시하고 원기를 자극하게 된다.

1.5. 파랑(블루)

인후 및 갑상선과 연결되어 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가 크다. 청광은 자율 신경계를 평온하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수축작용과 항염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식사 속도도 늦추게 만든다.⁶²⁾

62) 감테일, 인테리어 풍수, 한숨미디어, 2004.

내성적이고 우수에 젖으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힘을 북돋아 주는 순수의 색깔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극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내부로 돌아가서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여 쉽게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다.

1.6. 청녹색(터쿼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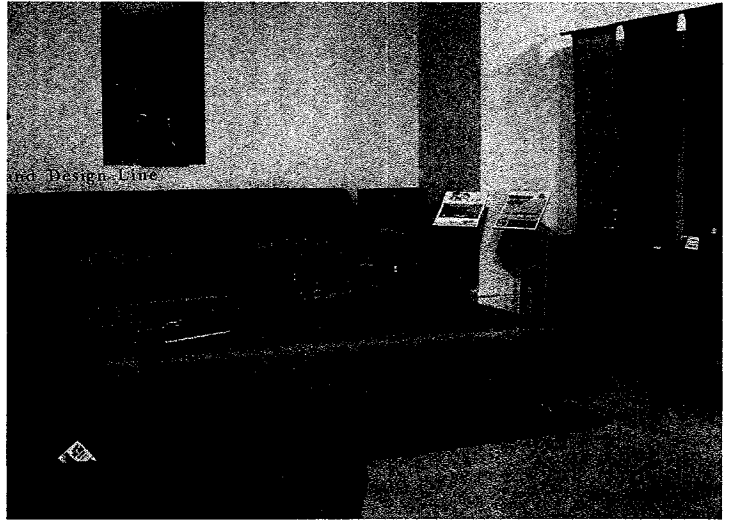
신록의 푸르름을 상징한다. 그리고, 흥선과 공명한다. 신경쇠약이나 약화된 면역체계로 고생한다면, 기운을 북돋아 주는 강장제 역할을 한다. 갑상선과 허파를 자극한다. 정신적 긴장과 피곤 또는 패배감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고독감에 효과가 있다. 의사소통, 감수성 그리고 창조성을 고양시켜 준다.



<그림 11> 청녹색

1.7.보라색(바이올렛)

보라색, 짙은 빨강색, 자주색은 모두 상서로운 색이며 존경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아주 붉은 것은 이미 보랏빛이다.’라는 말이 있어, 빨간색보다 더 행운이 깃들인 색이라고도 한다. 즉,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것,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랏빛 기를 가진 사람은 고귀하고 부유한 출신이며 권력 <그림 12> 보라색과 행운이 따른다.



또한, 정확와 방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열이 나는 상태를 해소한다. 배고픔을 억제하고, 신체의 신진대사가 균형을 이루게 한다. 정신질환자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만든다. 창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타인의 기대보다 더 많은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도와준다.

1.8. 분홍(핑크)

사랑과 순수한 감정, 기쁨, 행복, 낭만을 상징한다. 독신인 사람에게는 좋은 의미를 지니지만 결혼한 사람에게는 파괴적인 의미를 지닌다. 흔히 사랑을 분홍빛으로 표현하는데 얼굴이 불그스레한 장밋빛 홍조를 띤 젊은이는 곧 이성을 교제하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 애인을 갖고 싶어하는 여성에게는 핑크 계열의 화장법을 권하기도 한다.

감정을 차분하게 달래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초조함이나 공격성을 경감시켜 주고 사랑과 보호를 충만하게 해준다. 고독감, 의기소침, 신경과민과 마음의 상처를 완화시켜 준다.

실제로 긴장된 환경에서조차 이완된 상태를 촉진하며, 화나는 감정도 줄일 수 있다.

1.9. 흰색(화이트)

평화로움과 편안함을 준다. 해방감과 어수선하지 않은 개방감을 준다. 과다하면 쌀쌀해 보이거나 고립감을 줄 수 있다. 실제적으로 모든 색을 반사함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격렬함을 유발한다. 흰색은 또한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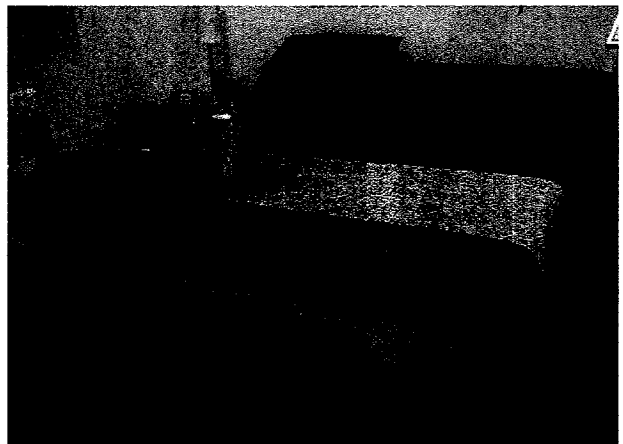
1.10. 검정 (블랙)

편안함과 보호감을 주고, 고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은폐의 색이기도 하다. 공간감을 주지만 방을 더 작게 보이게 한다.

1.11. 회색(그레이)

경계가 모호한 색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독립성, 자립 그리고 자기 통제력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좌절’이나 ‘희망 없음’의 부정적인 느낌도 준다.

모든 빛의 완전한 반사와 모든 빛의 전체적인 흡수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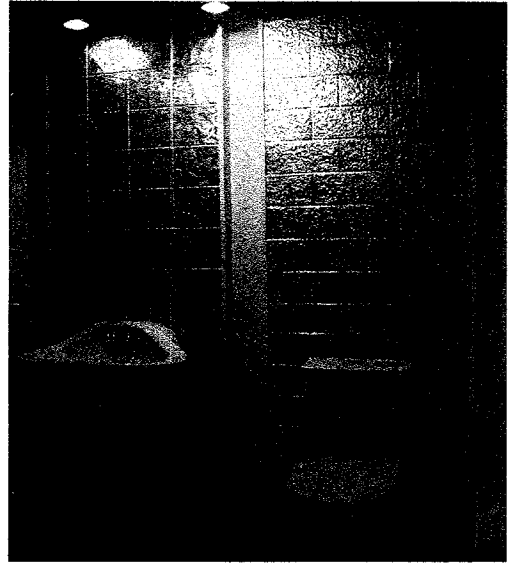


<그림 13> 회색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는 시소넬뻬지의 받침대처럼 완벽한 균형이 있다. 내부의 목소리를 듣도록 유도하는 육체적인 평정을 갖도록 도와준다.

1.12. 은색(실버)

달의 색이다. 여성적인 원리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마음의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 주고 정신적인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14> 금색

1.13. 금색(골드)

풍요로움과 힘, 높은 이상, 지혜 그리고 이해력과 관련이 있다. 정신적인 소생과 정력 그리고 영감을 준다.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유용하다.

1.14. 갈색(브라운)

대지의 색이다. 무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고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준다. 나무의 뿌리와 그 깊은 정도를 나타내어 고대 유럽에서 집을 장식할 때 갈색을 사용한다. 즉, 지금까지



<그림 15> 갈색

건재한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건재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다.

우아한 색이라 나이든 사람이 선호하기도 한다. 갈색으로 변한 나뭇잎이 땅에 떨어지는 가을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도 의미한다. 감정의 억압,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으로부터 은둔 그리고 편협한 마음과도 연관되어 있다.

두 가지 색상이 서로 혼합되었을 때, 각각의 색깔은 희미해지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 어두운 색깔과 농도가 짙은 색이 물리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간계열의 색은 더 감정적으로 만들고, 밝은 색상은 보다 지적이고 영적으로 이끈다.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심정적 확신이 요구될 때, 밝은 노랑색이 어두운 노랑색보다 효과적이다. 자부심을 키우기 좋은 색, 즉 주목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밝고, 가볍고, 선명한 색이다.

2. 색의 의미를 적용한 주택 내부

2.1. 공간

주거공간에서의 색채사용은 색채의 감정에 따라 변화되며 색채의 사용에 따라 주거 공간의 크기, 형태, 특징이 결정된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색채조절에 있어서 그 색채자체 뿐만 아니라 환경적 조건(빛의 반사, 질감 등)이 문제가 되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조건에 적절한 색채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예시이다.

① 거실

아직까지 우리는 거실 색채기호에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중각색채가 지배적이었다. 거실은 가족 단란의 장소이므로 색채는 보편성을 띤 황색계열(베이지색:1.0Y 6.5/2.5)을 가장 선호 된다. 가구는 주황색계열(고동색:5.0 YR3.5/4.5)로 사용 되고 있는 가구의 색채와 조화를 이룬다.

② 부부침실

이 공간은 안락한 수면으로 휴식을 취하며 생리적,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운동에너지의 재생산 장소이면서 야간생활의 공간이다. 침실은 취침 외에 부수적인 행위 즉, 대화, 사고, 단장 등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으로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아늑하고 따뜻한 감을 느끼기 위하여 적색계열(연한핑크색:8.5R 7.5/7.5)로 계획한다.

③ 아동실

교육은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와 목의 중간에 있는 '지식'을 상징하는 색이 좋다. 공격적인 아동에게는 음의 색이 차분하도록 도와준다. 거칠고 다루기 힘든 아이의 경우에는 침실의 책상이나 장롱 등의 가구와 벽을 엄숙하고 진지한 느낌이 나는 색으로 장식한다.

놀이, 학습, 취침 등의 하루 일과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색채조절은 정서적, 예술적 방향이나 색채 기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어린이를 흥분시키고 자극적이지 않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계열(베이지색:1.0 Y 6.5/2.5)도 좋다. 유아와 꼬마들의 방은 부드럽고 연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④ 노인실

노인실은 벽면과 천정을 무채색계열(백: N9.0)을 선호하여 공간의 통일감을 나타내거나, 공간을 평화롭고 조용한 감을 느끼기 위해서 황색계열(베이지색:1.0 Y 6.5/2.5)을 선호하기도 한다. 노인실의 색채조절을 위해서는 노인의 생활이나 심리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생각할 수도 없으며 연령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가, 또는 가정안에서의 입장이나 성격이 어떠한가 등에 따라 다를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⑤ 식당(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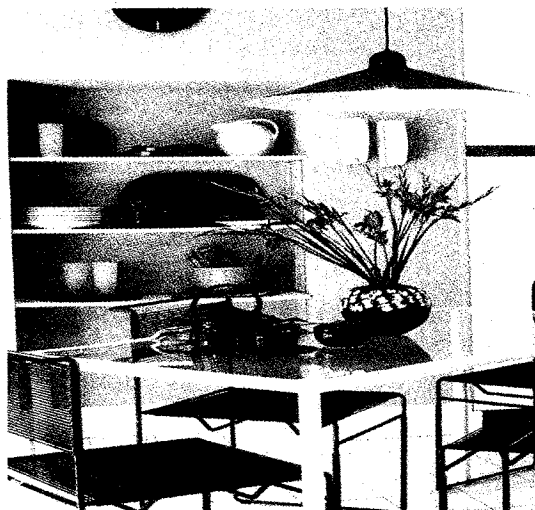
가족이 식사를 하는 식당은 식욕을 돋을 수 있는 색깔로 꾸며야 한다.

거주자가 우아한 식당 분위기를 원하거나 체중을 조절하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어두운색을 활용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식당은 미각을 돋우는 밝고 연한 색이 좋다.

부엌은 지나치게 따뜻한 느낌의 색채나 혼란한 무늬는 피하고 아기자기한 무

늑와 조용한 색채가 바람직하며 식당은 밝고 유쾌한 색채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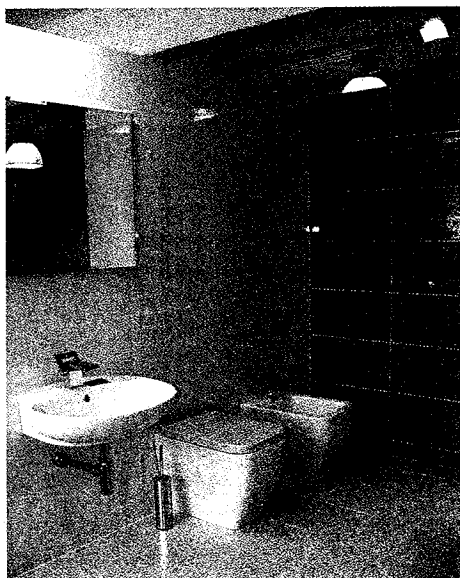
식당의 오렌지색 계열은 식욕을 자극하고 소화를 돕고, 이 때 블루, 그린 계열의 벽이 조화를 이룬다. 주방에서는 따듯한 색조가 활기를 제공한다.



<그림 16> 부엌

⑥ 화장실

욕실(화장실)은 주거공간 전체에서 보면 작은 공간에 불과하지만 날마다 사용하는 장소로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욕실은 몸의



<그림 17> 화장실

더러움을 씻을 뿐만 아니라,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일상생활에 소중한 공간인 만큼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간의 전체 분위기로 청결감을 위하여 무채색계열(백색: N 9.0)을 주로 하여, 산뜻하고 명랑한 감을 느끼기 위하여 보조색을 연하늘색(9.5 B 8.5/6.6) 계열으로 계획한다.

욕실은 차가운 색이나 보색인 오렌지색 계열도 좋다.

⑦ 현관

입구와 바로 연결된 현관에 가장 적합한 색깔은 밝고 옅은 색이다.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현관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현관은 가족들이 출입하고 손님이 찾아 왔을 때 주거공간에 대하여 첫인상을 주는 곳으로 흔히 비좁고 어둡기 쉽다. 현관은 조금이라도 여유를 느끼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⑧ 기타

천장은 벽보다 연한색이 좋으나 천장이 높은 경우 어두운 색도 가능하다.

마루는 땅과 연관 있는 색이 최적이다. 연한색은 공중을 걷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발바닥이 자극되는 곳이므로 천연재료가 좋다.

창문과 문은 똑같은 색 또는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칠한다.

진한 블루를 많이 사용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므로 독서, 공부처럼 눈을 바짝 들이대고 하는 작업실에는 피한다.

옐로우와 원색은 방을 작아 보이게 하고, 블루와 파스텔톤은 방을 크게 보이게 한다.

차가운색을 사용하면 따뜻한 색상의 가구를 배치하던지 보색 관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편안하며 안정감이 있다.

대조색이 주된색과 명도가 동일하면 서로 경쟁하여 눈이 피곤하므로, 진하거나 연해야 한다.

녹색식물은 모든 색상을 조화롭게 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수평선인 벽지는 진정작용을 하고 따뜻한 색이면 생기까지 준다. 수직 무늬는 역동적이지만 차가운 색이 그 효과를 줄일 수 있다.

2.2. 가구 및 소품

가구와 창문의 색깔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천, 지, 인의 구성을 활용하거나, 오행의 색깔 구성을 활용할 수도 있고, 거주자의 기를 조절하는 색깔을 활용할 수도 있다. 천, 지, 인의 방법에 따르면 천장은 천을 상징하고 바닥은 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머지 벽과 창문과 가구는 인에 해당한다.

만약, 벽을 지의 색깔인 노란색으로 정했다면 가구나 커튼은 갈색이나 주황색으로 장식한다. 그러나 바닥에 붙어 있는 가구는 지와 연관된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닥에 빨간색을 사용했다면 분홍색이나 붉은빛을 띤 보라색 등 빨간색 계통은 어떤 색이라도 가구에 사용할 수 있다.

커튼은 천장이나 벽, 바닥의 모든 영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커튼이 천, 지, 인 중 어느 요소에 속하는가는 거주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곧, 거주자가 선택한 요소의 색깔과 일치시키면 된다.

방 안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른 방법은 오행의 색깔 구성을 가구와 창문의 장식에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커튼과 가구를 별개의 요소로 생각한다. 즉, 방의 구성을 바닥, 가구, 벽, 커튼, 천장의 다섯 요소로 구분한다.

방의 구조가 오행의 주기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색깔을 활용하여 거주자의 기를 조절할 수 있다. 거주자의 불운이 계속되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면 밝은 색으로 방을 장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활이 극히 불안정하다면 어두운 색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생활에 안정감을 준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처음으로 풍수인테리어에 접목시킨 기질(氣質)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2.3. 내부 조명의 색채

햇빛이 화창한 날에 편안함이 증가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빛은 생명을 주고 분위기를 강하게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주택에서 조명은 휴식, 오락, 작업 식사 등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 행위를 안락하게 해주기 위하여 시각적 쾌적성을 부여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며, 보다 넓게는 환경적 의미와 미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

① 현관홀

현관은 단순히 신을 벗고 수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즐겁고 기대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므로 조명의 효과적인 연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두운 현관에는 특히 적당히 밝은 조명이 도움 된다.

② 거실조명

거실은 주택공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다른 실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전반조명, 작업조명, 강조조명이 조화있게 통합 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가구와 조명 사이의 조정성을 가해 가변성(flexibility)을 유지해야 하므로 매립형 조명기구보다는 이동 가능한 스탠드 종류(테이블 램프, 데스크 라이트, 플로어 램프 등)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트랙스포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③ 식당

만일 식당조명이 잘못 된다면 그것은 식욕과도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명은 음식의 질적 효과를 높이고 대화의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식탁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모든 빛을 식탁 위로 집중 시키며, 구태여 배경조명으로서 전반 조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④ 부엌

부엌은 고정된 가구류들로 구성되는 작업 중심의 공간이므로 고정된 조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이다. 과거의 부엌 조명은 거의 단일 형광등으로 전반 조명에 의존했으나, 칼이나 불꽃 등을 사용하는 작업공간이므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밝기가 높은 작업조명이 보충 되어야 한다. 이 때 눈부심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연색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침실

침실은 휴식, 수면, 독서 등 기본적인 행위와 관련시켜 전방조명이 보충 되어야 할 공간이다. 이는 반드시 조광처리(dimming)를 해서 본래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맞추어 변화를 부여해야 한다.

사용 되는 조명 기구들은 베드 사이드램프, 플로어램프, 벽등 또는 천장에 매립된 다운라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베드 사이드(bed side) 조명은 침대를 떠나지 않고도 등을 끄고 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취침시 상대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한 사람은 잠들고, 한 사람은 책을 볼 경우) 설계 되어야 한다.

⑥ 욕실

욕실에서는 전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방수처리가 필수적이며, 안정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도록 한다.

거울과 세면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면도, 화장 양치 등의 행위를 위한 조명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거울 상단에만 설치된 조명은 코와 입 아래쪽에 음영을 만든다. 샤워 조명은 샤워실의 커튼을 칠 때 주광원을 차단시키지 않게 천장 조명 위치를 잘 선정해서 별도의 샤워 조명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⑦ 아동방

아동방에 사용 되는 조명기구는 밝고 색깔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하므로 견실하게 천장이나 벽면에 고정 시킬 수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아이들은 주로 바닥에서 놀기 때문에 밝은 전반 조명이 유리하다.

학생방 조명에 있어서 책상 위에 사용 되는 데스크 라이팅(desk lighting)은 빛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불박이식 가구 조명은 직접 눈부심이나 반사에 의한 눈부심(veiling reflection)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사용 되는 작업 조명은 반드시 전반 조명을 보충함으로서 극심한 밝기 대비에 의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⑧ 노인실

노인방에 사용 되는 조명은 밝고 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므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안전해야 하므로 천정이나 벽에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좋고 누워서 장시간 볼 경우를 고려하여 간접 조명이 유리하다. 노인은 밝고 어두움의 적응이 느리므로 밝기 조정이 가능하며 켜고 켜를 때 서서히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위치는 폭이 넓어서 손바닥으로도 작동이 가능한 리모콘 스타일이 좋다.

3. 색(色)의 의미를 적용한 주택 외부

3.1. 환경의 색깔

3.1.1. 주변의 기(氣)와 색깔

주거지이든 사업장이든, 주변 환경의 색깔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의 기를 반영한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지역의 토지와 식물의 색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풀의 색깔이 회색이나 갈색이고 나무가 시들어 있다면, 그곳은 생명력이 쇠퇴하여 이미 기가 바닥이 났다는 표시이다.

이와 반대로 식물이 무성한 지역에서는 주민 역시 번영과 건강을 구가한다. 특정 식물은 사람의 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약나무는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 봄, 사랑을 상징한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깨끗한 흰색은 여름과 영적인 순수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꽃위에 앉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혼탁한 세속을 초월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빨간 감나무는 기쁨과 사업의 번창 그리고 새 사업의 좋은 출발을 의미하고 사과나무는 안전함, 오렌지는 행운, 상록수와 대나무는 장수를 상징한다.

풍수가는 나무의 색깔로 좋은 기가 서린 자리와 상서로운 자리를 식별한다. 봄의 푸르름이 무성한 새 잎과 건강한 기를 상징하는 최고의 표시인 것처럼, 나무와 덩굴이 항상 푸르르면 그 지역에 좋은 기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잎의 모양이 날카롭고 가시가 많은 식물이 입구와 통로에 있으면 그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같은 환경 안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초원은 멀리서 보면 푸르러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어떤 지역은 나무와 식물이 무성하지만 다른 지역은 초목이 시들거나 병들어 있기도 하다. 잔디밭의 경우에는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싱싱할 수도 있다. 집안의 화분 가운데 어떤 식물은

잘 자라지만 어떤 식물은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누구나 체험해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식물의 색깔은 흙의 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그러나 식물의 색깔과 풍수는 인간에 의해 해를 입기도 한다. 동물의 건강과 색깔 역시 한 지역의 기를 파악할 수 있는 풍수의 한 방법이다(고대의 점술가는 동물의 내장 기관을 조사해서 그 지역의 풍수를 파악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영혼을 고양 시키고 밝고 맑은 소리를 들려주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는 까마귀 떼가 낮고 거친 음색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풍수에서는 주변 생물의 운세도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새나 바퀴벌레의 죽음, 또는 전구의 과열 같은 ‘이상한’ 현상 역시 그 지역의 기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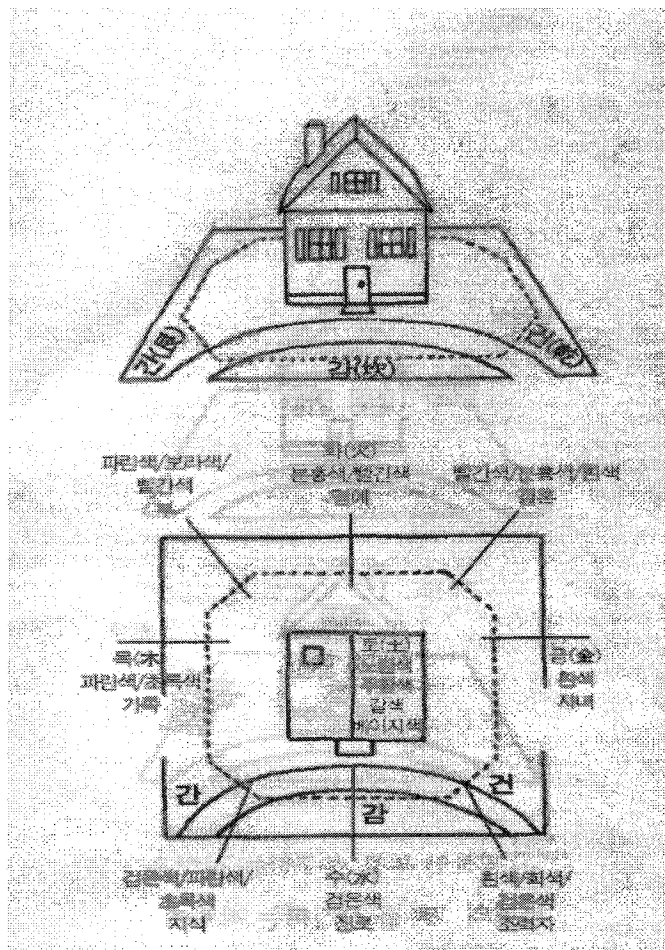
3.1.2. 색깔을 이용해 주변 환경 개선하기 - 오행 팔괘에 따른 색깔 구성

토지와 건물에 오행 팔괘의 색깔 구성을 적용하면 그 지역의 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색깔 구성은 교외의 다양한 형상의 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의 모퉁이나 초목, 연못, 분수대 등에 어울리는 색깔을 선택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색깔 구성은 부, 명예, 결혼, 자녀, 조력자, 사업, 지식, 가족 등 여덟 가지 운의 팔괘를 토(土), 화(火), 금(金), 수(水), 목(木)의 오행과 함께 활용하여 토지나 주택의 구성에 적용한다.

적당한 위치에 길한 색깔의 초목을 심으면 주민의 특정한 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를 상징하는 자리에 푸른 전나무를 심으면 가정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녀’의 자리에 흰색 정원수를 가꾸면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운이 상승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원수로써는 흰장미, 백합, 재스민이 좋다.

조경에 오행 팔괘의 색깔 구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구의 도로를 살

펴야 한다. 이 도로는 기의 입구로서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 ‘진로’, ‘조력자’를 상징하는 간(艮), 감(坎), 건(乾)의 자리에 있다. 이 세 자리는 조경에 팔괘를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오행과 팔괘를 적용한 안뜰의 각 자리에는 거주자의 운을 상승 시키는 상응 색깔이 있다.



<그림 18> 오행 팔괘의 조경 계획

3.2. 외부조명

외부 조명도 주택의 결점을 보완해 준다. 만약, L자 모양의 주택 구석에 결함이 있다면 램프나 투광 조명 등을 사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그리고 언덕의 아랫자리에 조명을 설치하면 경사면으로 빠져나가는 기와 돈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조명이 토지의 기를 개선하고, 풍수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주택이 도로면보다 낮아 나쁜 기를 끌어들이고 거주자의 사업이나 결혼, 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조명이 전물의 뒤편에서 주택의 가장 높은 곳을 비추게 한다. 이때의 조명은 땅이나 기둥 위에 설치해도 무방하다.

외부 조명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은 지붕의 네 귀퉁이에 조명을 설치하여 건물 위쪽의 한 지점을 향하게 하면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거주자는 끝없는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주택의 경우엔 위쪽을 비추는 조명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도 큰 지장이 없지만, 사무실이라면 조명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도 항상 파산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63)

63) 홍성정, 컬러로보는 생활 풍수와 인테리어, 동도원, 1999, p.74.

VI. 결론

풍수인테리어에서의 색(色)은 곧, 기(氣)를 의미한다. 색의 구성은 또한, 기의 흐름을 의미한다. 즉, 과학적인 표현으로 미세한 파동(氣)이 집안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성격도 개선되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의미이다.

기는 그 본질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기가 넘치기도 하고 기운이 약해지기도 한다. 풍수인테리어는 기(氣)의 조화를 찾아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생기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풍수인테리어의 원리는 기(氣)의 유입과 유출을 조절하여 각자의 기운과 분위기에 맞는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⁶⁴⁾ 풍수지리에서는 조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균형을 강조한다. 균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몸은 다양한 여러 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져 있기에, 당연히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역시 균형이 맞아야 그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과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사무실이나 주택에서 뭔지 모를 불안한 분위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그 공간이 주변 환경이나 전체적인 기(氣)의 흐름과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변화와 충돌이 생기게 된다. 풍수인테리어의 가능성은 기(氣)의 균형과 변화를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풍수인테리어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 원인을 찾아 사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을 관찰하며 또한 오행과 역학의 원리를 폭넓게 사용한다. 가장 가본이 되는 것은 기의 흐름을 읽고 이상적인 공간을 창출하는데 그 뜻이 있다.

기질(氣質)을 이용한 풍수인테리어의 색채 계획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64) 정동근, 생기가 샘솟는 집, 북하우스, 2003, p.16.

사물과 사람의 모습이 제각각 다르듯, 풍수인테리어 또한 개개인마다 시대마다 여러 모습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풍수인테리어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정서나 성격 등의 개선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풍수인테리어 공간의 조화를 생각하며 방위, 색채, 재료 등으로 분석하고 오행의 편중, 부족으로 구분하여 편중 시에는 편중된 오행을 제거하거나, 부족한 오행을 생(生)하여 준다. 혹은 극(剋)하여 강한 기운을 풀어주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부족한 오행은 극(剋)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배제시키는 공간 조화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강한 구성요소의 오행이 중첩될 때 오행의 흉한 구성요소가 단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풍수인테리어에서 음양오행은 상호 보완, 유기적인 요소이므로 나머지 요소들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연계성이 있다. 색채 등으로 보완 하면서 공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풍수인테리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기(生氣)를 집안에 극대화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핵심 단어인 기(氣)에 대한 해석은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언젠가는 규명될 것이다.

동양의 직관적인 사고는 현재의 과학적 사고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새로이 전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에서 동양이 앞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기(氣)와 풍수(風水)의 연구는 수천 년 동안 다른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동양과 서양의 학문이 만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풍수를 통해 환경 속에서 메시지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옷의 액세서리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수인테리어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풍수인테리어는 요리법으로 친다면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인간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다. 음양오행에 따른 인간의 기질(氣質)을 알고, 기(氣)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인간이 표현하고 이해하는 진리는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지면서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진리를 자신의 세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진리를 이해할 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풍수인테리어의 색채 사용을 위해 동양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인 접근방법으로, 그 의의가 있다. 풍수인테리어의 색채 적용은 환경과 자연의 본질을 해석하려는 현대과학의 정신과 함께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3.
- 고하수, 한국의 미 그 원류를 찾아서, 1997.
- 김동규, 인자수지, 명문당, 1999.
- 김영기, 빗갈의 문화, 1998.
- 김의숙, 한국 민족제의와 음양오행, 서울, 집문당, 1993.
- 권오호, 우리문화와 음양오행, 교보문고, 1996.
- 모종수, 기 풍수 연구, 동학사, 1994.
-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 박영순, 이현주. 색채와 디자인, 교문사, 1998.
- 박용숙, 한국미술의 기원, 예경출판사, 1990.
- 신기원, 관상학, 대원사, 1991.
- 신평, 나경연구, 동학사, 1997.
- 안호상, 고대 민족사 연구, 사림원, 1995.
- 이몽일, 한국풍수사상사, 명보문화사, 1991.
- 이세복, 이우영. 전통 풍수의 이론과 방법, 동학사, 1999.
- 이을호,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지식산업사, 1994.
- 이충우, 산수지리서, 세종문화사, 1997.
- 이충용, 한반도에 기가 모이고 있다, 집문당, 1997.
- 임영주,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1999.
- 임응수, 수맥과 풍수, 청문각, 1991.
- 유종근, 최영주. 한국 풍수의 원리, 동학사, 1997.

장영훈, 생활풍수 강론, 기문당, 2000.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 미에 관한 연구, 1991.

정현석 외 3인, 조선의 풍수, 명문당, 1991.

진용옥, 최한기. 기철학과 전기론, 한국정신과학학회, 1997.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한국 풍수의 이론과 실제. 서해문집, 1990.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 민음사, 1997.

최창조 외, 풍수, 그 삶의 자리, 생명의 자리. 푸른 나무, 1993.

하용득, 한국인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9.

한동환, 성동환, 최원석. 자연을 읽는 지혜, 푸른 나무, 1994.

<외국문헌 번역서>

강정청 역, 경여중국예술정신, 대북, 요령교육추란사, 1990.

김기환 역, 랑크로의 색채 디자인, 도서출판 국제, 1990.

김부식, 이영도 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1.

김수석 역, Johannes Itten 저, 색채의 예술, 서울 지구문화사, 2000.

김진환 역, 파버 비렌 저, 색채의 영향, 시공사, 2002.

박희준 역, 마루야마 도시아끼 저, 기(氣)란 무엇인가, 정신세계사, 1989.

이민수 역, 주역 을서 문화 136, 을서 문화사, 1986.

이상역 역, 한국집 한국의 지학사상 2, 삼서출판사, 1983.

오상익 역, 장경, 동학사, 1993.

왕대유, 임동석 역. 용봉문화 원류, 동문선, 1994.

정현우 역, 재산지훈 저, 조선의 풍수, 명문당, 1996.

진현중 역, 수지 치아자리, 전원문화사, 2002.

최창조 역, Lin Yun 저, 터잡기의 예술, 민음사, 1992.

홍성정 역, Lin Yun. 사라로스바크 저. 컬러로 보는 생활 풍수와 인테리어.
동도원, 1999.

<국내 논문>

- 고재근, 한국전통회화에 나타난 색채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수옥, 한국 미술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세화, 음양오행 사상의 상징적 표현에 의한 섬유미술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은희, 전통적 자연을 바탕으로 한 색채 표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현승, 한국 도시 형성에 있어서의 풍수지리사상의 활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라연신, 색채를 통한 한국 이미지의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신영, 한국전통색채의 해석과 환경디자인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성혜, 풍수지리에 있어서 색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박진숙, 한국 전통색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실증적 배색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희전, 한국 전통 색채에 의한 직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장기철, 풍수지리사상과 건축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 환경디자인 연구소, 1999.
- 신동숙, 음양오행의 상징에 근거한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동순, 한국 전통색채의 도입을 통한 도시환경 색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경행, 전통주거에서 풍수지리 이론의 활용에 관한 기술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유권현, 한국 전통 색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수정, 음양오행 의미를 부여한 가구 디자인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정미, 음양오행의 상징적 표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창환, 현대 한국화에 표현 연구, 오방색.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홍종숙, 양택론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홍지윤, 한국 전통 색채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정기 간행물>

- 강길부, 풍수지리설의 현대적 의미, 정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3.
- 신채호, 이만열 주 편 조선상고사, 단체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발행, 1997, 7.
- 세종대왕실록,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93, 4.
-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인식, 그 시각의 단면들. 미술세계, 1990, 2.

- 정필순, 현대적 조형미의 조각보, 월간 공예, 1990, 9.
- 조수동, 불교의 생명과 철학연구 61, 대한 철학회, 1997, 3.
- 조규남, 풍수지리란 무엇이 문제인가, 신앙계, 1994, 9.
- 월간디자인, 한국의 색, 디자인하우스, 1994, 9.
- 월간디자인, 한국의 색, 디자인하우스, 1994, 10.
- 월간주택, 2001, 1.
- 한국토지공사, 땅 이야기, 성립문화, 1998, 6.
- 한국의 자생풍수 1. 한국의 명당을 찾아서, 믿음사, 1997.
2. 한국의 명당 자료집, 1997.

<외국 문헌>

- Hale, Gill. The Feng Shui Garden, Asiapace Book Pte Ltd. 1998.
- Lip, Eyelyn. Personalise Your Feng Shui, Times Book International, 1997.
- Moton Walker, The power of color, Bantam Books, New York, 1970.
- Sing, Wu. The Feng Shui Work Book, Asiapac Book Pte Ltd. 1998.

Abstract

A Study on a Color Plan of the Feng-shui Interior Design

Lee, Dong- hee
Major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Many Westerners are concerned with a human residence and the choice of house sites based on feng-shui to pursue health, quality of life, happiness and good fortune. For this reason, the value of oriental feng-shui will be embossed in the West. The application of feng-shui to architecture, interior decoration and the arrangement of trifle articles in the room will also be spread widely in our country.

Owing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physics, all the learning fields are recognizing environment with mutually supplementary relation with organism, and they are converting organism and environment into mutually inseparable whole, that is, holistic and systematic thinking. In the change of period paradigm, we should approach the element such as human being, nature and color etc. integrally by holistic and organic thinking in performing design.

But, in the field of design to experience daily color and do creation activity, we have handled color only as separate subjective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this issue was repeated. As for desirable color, whole should be harmonized and be objective by analyzing and

integrating the point at issue of existing art as well as diverse restriction condition such as economic, social and legal conditions etc. and the diverse terms desired of relevant group.

Art to exist between human being and nature is not made by mechanical thinking the sum of parts is linked to whol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cause and effect, but each part should be harmonized with whole though the maintenance of each feature under the organic relation with whole.

Nevertheless, the actuality of design has understood the composition system of art as the circulation system of material in the reason-centered and the mechanistic worldview which made nature as the subject of conquest with the belief of invariability and infiniteness of art was predominant. This problem may not be solved only with the issue of design. And the value system of life and the thought to be the basis of value will have to change. This thought may not change over once. But we have Feng-Shui thought to the original flow of thought and to be universal in speculation system also.

Consequently human beings can maintain his healthy life through harmony with nature as a part of ecosystem. The culture as a concept compared with nature will be by far deepen, giving and taking the close, reciprocal effects within the relativity of culture, man and nature based in human beings.

Oriental feng-shui men think earth and nature as alive organism. And so those who believe in feng-shui think that matter and spirit exists in the earth together. the consciousness and material co-exist is proved in the quantum mechanics to handle atom and elementary particle etc.

In the side of design also, Feng-Shui is the thinking system of usable color up to the relation, arrangement and form of the physical element to color as well as it.

As feng-shui men construed the relativity of culture, human being and nature organically on the basis of feng-shui theory, feng-shui has

occupied a position as a real life philosophy in our life for thousands of years.

Feng-shui about interior as the empirical, scientific logic-system can be succeeded and applied to the interior through the organic analysis on the basis of culture-human beings-nature.

Feng-Shui theory about interior suitable for the present period can be developed and applied to our residence environ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on feng-shui interior consists not only the understanding of Korean feng-shui but also the grasp of the substance of nature. It is likely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If the symmetrical view of nature of feng-shui is applied to feng-shui interior effectively, the value of Korean feng-shui will be able to recognized afresh.

As for contents of study, this researcher discussed about the present viewpoints on the necessity of Feng-Shui study and the science nature and superstitious nature of Feng-Shui and about the issues of terms in introduction part and had the course to draw a conclusion through the theoretical study of Feng-Shui,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Feng-Shui, the programming of dwelling color of Feng-shui, and the course of application case of residential design.

Finally, this research attempted the creative methods of approach through the harmony with the oriental thinking and scientific method for the usage of desirable feng-shui interior correctly but also construe the substance of environment and nature.